

감히 용왕 매진치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출전 : 「事變第三周年」, 『東亞日報』, 1940년 7월 7일〉

4. 『내선일체』의 발간 취지

1) 창간사

내선일체실천사장 박남규(朴南圭)

빛나는 기원 2,600년의 원단(元旦)을 맞이하여 본 지가 초성 높이 태어난 것은 진심으로 의의 있는 것이라 믿는다.

성전(聖戰)은 어느덧 4년, 혁혁한 황군의 위무(威武)는 바야흐로 내외에 현양(顯揚)되고, 더구나 총후의 굳건함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여유자작한 모습을 보이면서 흥아(興亞) 완수의 대 사명을 향해, 보무(步武) 당당한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전쟁이 지연되면 일본은 비명을 올릴 거라 믿고 있었던 외국인은, 새삼스러운 것처럼 일본의 정체모를 실력을 똑똑히 보게 되어 경탄의 소리를 발하고 있다. 고성낙일(孤城落日)의 장(蔣)정권의 궤멸(潰滅)도 멀지는 않다.

이건 완전히 '천황폐하'의 능위와 황조천조대신(皇祖天照大神)의 신덕에 의한 것이라 절을 드리며 감사 합장을 금할 수 없다.

우리 반도는 성전 이후 병참기로서 고금 미증유의 국민적 정열을 발휘하여, 혈루로써 감격의 도를 더하고 있는 것은 실로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깊이 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빛나는 기원 2,600년의 벽두부터 '내지' 식 씨제(氏制)로 이성양자제도(異姓養子制度)가 실시된 것은 반도 통치사상 획기적 치적(治績)이고, 실로 내선일체의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들 동포는 일역일심, 건국이념인 팔굉일우의 구현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불초 여기에 느끼는 바 있어, 내선일체 실천사를 창설하여 기관지 『내선일체』를 발행하는 까닭도 총독의 뜻을 명심하여 내선일체의 결실을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내선일체의 구현은 동아신질서를 신속하게 하는 침병(尖兵)이라고 믿는다.

흥아성업의 건설을 이루는 날이야말로 일본이 명실공히 대아세아의 맹주로서 세계만국으로부터 양모되어야 할 때인 지금은, 구주(歐洲)에 전운(戰雲)이 넘치고, 우리 제국은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더하는 것을 감안하여, '내선' 완전 일체가 되어, 실로 황국신민으로서의 진가를 발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황기 2,600년의 신춘을 맞이하기에 즈음해서, 경건하게 황실의 번영과 국운의 번창을 빕과 동시에, 조금 소감을 서술하여 여러분의 청감(淸鑒)⁷³⁾을 바란다. 바라건대 협찬지원과 격려편달을

73) 자기 작품에 대한 남의 감식을 청할 때 쓰는 말.

아끼서서는 안 된다.

〈출전 : 朴南圭, 「創刊のことば」, 『內鮮一體』 창간호, 1940년 1월 1일, 1쪽〉

2) 내선일체실천사 창립취지서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고급 미증유의 역사적 전환기란 좋은 때를 만나 국가 내외의 제 정세는 실로 용이하지 않고, 일본 국민인 바의 사명 또한 점점 무거운 무게를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비상 난국에 임해서는 실로 거국일체, 국가의 총력을 받들어 그 조치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근대의 국방은 단지 제일선만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병행하여 국가국방의 총국력에 의해 온전함을 얻게 됨으로써 국가의 모든 부문을 조정, 동원하여, 어떻게 질서 바르게 총국력을 운용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거국일체라든가 국가의 총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신적 결합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정신적 거국일체가 될지 아닐지는 즉시 거국일체의 강약과 국가 총력의 고저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처음부터 국가의 흥룡발전은, 첫째로 그 국민의 정신적 결합과 국가가 의도하는 곳을 향하여 활동하는 것에 기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히 조선에 있어서는 정신적 국민의 결합 즉 '내선일체'로써 거국일체하여 국가 총력을 받들어 국가 백년대계에 따라야 된다. 그러한바 최근 무수한 기관을 통해 각종 형식과 방법으로써 '내선일체'의 결실을 올리려고 함도, 자칫하면 시국 하에서의 일시적 표어, 또는 정치적 지표가 되는 듯한 형식과 방법으로 해석될 수많은 결여가 있는 것 같이 미루어 짐작된 것이다.

이로써 본사는 내선 쌍방의 물심을 실천적으로 결합시키고, 그럼으로써 진실된 '내선일체'를 구현하고, 충실 강화된 정신적 국민의 결합 즉 거국일체를 철저적으로 기할만한 국민운동을 기도할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그 방법으로써 『내선일체』인 월간 소책자를 세상에 내보내 '내선일체'의 실천화를 창도(唱導)하고, 아울러 내선 결혼 축진을 도모하는 것 외에, 강연회, 좌담회, 전람회, 영화회 등으로 이 선전 앞선을 행하고, 본사가 기도하는 바에 매진하려고 한다.

이것이 일본정신을 생기있게 하는 요소가 되어 우리나라의 무거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물론, 명실 공히 대 아세아의 맹주, 세계의 지표가 되어 거기에 비로소 빛나는 동양 영원의 평화,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가 초래될 것을 단언해 의심치 않는 바이다. 바라건대 세상의 제현(諸賢)이여! 본사의 사명이 무겁고 또한 큰 것을 양해하시어 진지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감히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출전 : 「內鮮一體實踐社創立趣旨書」, 『內鮮一體』 창간호, 1940년 1월 1일, 19쪽〉

3) 속간에 대하여

내선일체실천사장 대조실신(大朝實臣)⁷⁴⁾

본지는 5월호로써 휴간하고, 오늘 이에 재간되는 단계가 된 것은 더할 나위없는 기쁨이다. 독자 제현도 또한 기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본지가 휴간되면 안 될 처지에 빠진 경위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본지는 올해 정월부터 시작해서 창간되었기 때문에 용지의 배급실적이 없어서 용지입수가 난관이었다. 따라서 자연히 암시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입수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본사로서는 국적(國賊)적 행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휴간하여 정상적인 종이의 배급을 갖는 것이 현명하다고 믿고 휴간을 단행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조우한 것이다. 그 후 용지배급도 지지부진하게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고, 게다가 본사는 풍부한 자금을 지닌 사업이 아니라 최소한도의 자금으로써 경영해온 바 휴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난관에 처해 쓸데없는 경비를 지출하였기 때문에 마치 탄환이 다 떨어지고 화살이 부러진 상태가 되었다. 이와 같은 고경(苦境)에 처해서 언제 속간이 가능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사선(死線)을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업은 열과 성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또한 돈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자칫하면 본사의 사업이 시국의 물결에 편승하여 영리적, 이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조금씩 색안경을 통해 보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것도 과거의 선배들이 해온 흔적이 그렇게 시키는 것도 다분히 있다고 여겨진다. 결코 세상의 이 색안경을 냉정하다고 원망할 수 있을까? 그러나 본사는 창업 이후 조금도 세상에 해독은 흘려보내고 있지 않은 것을 단언해둬야 동시에 금후도 성실하게 본 사업을 문자 그대로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싶은 굳은 신념을 갖고 있다. 그래야 비로소 세상도 바르게 인식하여 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행히 주위의 사람들이 물심양면으로 응원해주시게 된 것도 우리들의 적성(赤誠)을 인정해주신 증거의 일단이라고 생각하여 무척 감사하는 바이다. 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우리들은 제일선으로 달려가 참가하여 봉공 드리고 싶다는 각오를 여기에 약속드리고 싶다. 간단한 기분으로 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의 제현은 하루라도 빨리 인식해 주셨으면 한다. 아니 인식이 없더라도 우리들의 힘으로 계속할 수 있을 만큼 계속할 생각이다. 일개의 잡지가게로 끝낼 생각은 결코 없다. “굶어 죽는다고 해도 매는 이삭을 뜯지 않는다”라는 데, 성스런 이 사업을 절대 희생물로 삼지 않을 각오다.

국가 내외의 정세를 보라, 세계는 우주가 시작된 이래의 최대의 혼란시대를 전개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제국 또한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들 국민은 어떠한 각오가 필요할까 말할 필요도 없이 국방국가의 완벽을 기해야말로 비로소 제국의 국시(國是)인 팔굉일우의 정신을 안팎으로 선양할 수 있는 이치다. 국내에서는 신체제의 대혁신기이다. 내선일체의 현현(顯現)은 신체제운동으로의 박차가 되어야 한다. 건성으로만의 내선일체는 그만큼 어리석음의 최상을 나타내는 말이다. 건성으로만의 내선일체는 오히려 간판을 내리는 것과 같다.

우리 회사는 제창한다! ‘내선’ 쌍방이 결혼할 수 있을 정도의 쌍방의 장벽을 하루라도 빨리 제거해야

74) 박남규(朴南圭)의 창씨명.

한다.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언어, 풍습습관, 예의, 예의범절) 등에 장벽 부분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한 시라도 빨리 제거하여 '내선'의 구별이 가지 않게 되도록 만드는 방법수단을 발견해내야 한다. 물론 정치력으로써 행하는 것은 가장 강력하지만, 그러나 문화운동 없이는 만전을 기할 수 없을 것이다. 민간으로 혈아(血兒)가 모여 이 운동을 능동적으로 해야만 대중도 보다 흥미를 갖고, 이 운동에 참가할 거라는 것은 여러 말이 필요 없다. 이 운동은 일시적 정치표어로 끝나서는 안 된다. 몇 백 년 걸려서라도 달성해야 된다. 본사 사업 중의 주된 내선 결혼이 번성하게 되도록 되면 우리 회사의 운동도 거지반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라건대, 세상의 제현이여, 우리들의 운동을 바르게 봄으로써 응분의 원조를 주실 것을 또한 우리 회사는 본 운동을 방해하는 자는 비국민이라고 절규할 것이다.

하는 일 없이 올해를 보내는 것을 양심적으로 가책을 느낌과 동시에 신년에 들어가서는, 바로 한 발자국 전진해서 사업수행에 노력하고 싶다고 각오하고 있다. 오래도록 지켜보고 후원해주실 것을 간절히 희망하며 부탁드려마지 않는 바이다.

〈출전 : 大朝實臣, 『續刊に就て』, 『內鮮一體』 제1권 5호, 1940년 12월 1일, 67쪽〉

5. 『조광』의 선전 취지

1) 지나사변 3주년(권두언)

1937년 7월 7일 노구교(蘆溝橋) 상의 일발 총성은 동양 영원의 평화를 울리는 효종(曉鐘)의 프롤로그였다.

이제 세월은 잠깐이어서 금년 7월 7일로써 사변 3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이때에 있어서 먼저 우리는 이 성전으로 희생된 황군 장병의 영령을 위해 명복을 기리 기원하거니와 이 전야의 들꽃으로 핀 황군 장병과 아울러 제일선 장병의 공이 있어 이미 사변은 일단락을 고하게 되어 지난 3월 30일 국민정부는 환도(還都)되고 다시 4월 26일 전 지나 4억 민과 같이 신정부 환도 경축 식전은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리하여 의기양양 신지나정부는 그의 환도를 중외(中外)에 크게 성명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경 한 귀퉁이에 아직도 그 잔영을 지키고 있는 장개석(蔣介石)은 지금껏 미몽에서 깨지 못하고 다만 항전일로(抗戰一路)로 나아가고 있으니 이는 결국 항전을 위한 항전에 불과한 것이요, 무슨 승산이 있거나 또 항전할 이론적 근거가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긴다. 싸워라.'라는 우매한 인민을 선동한 그 언질에 얽매여 싸우는 것이니 청천백일만지홍(靑天白日滿地紅)의 반공화평국기(反共和平國旗)가 지나의 전 강토(疆土)에 높이 날리고 있는 오늘 이 무슨 미몽일 것인가?

더구나 지나사변⁷⁵⁾의 무대 뒤에서 장개석의 조종사(縱士) 노릇을 하던 영국, 프랑스, 소련의 마수

가 저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그 여력을 발휘하게 못 된 지금에 있어서는 장개석의 비운, 쇠망의 길이 날로 깊어 가고 있으니 어찌 항전일로로 매진하는 것이 악몽에서 해매는 것이 아닐까?

지금 유럽은 나치스 독일의 전승의 기폭(旗幅) 하에 일몰을 모르는 나라로 자랑하던 노회(老獺)한 영국까지 무찔러 그 위급(危急)이 목첩간(目捷間)에 닥쳤으니 세계의 역사는 다시 지어질 날이 멀지 않았 거니와 1894~1895년의 일청전쟁과 1904~1905년의 일러전쟁에서 승전한 패기가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에 있어서는 만주건국, 지나사변으로 인한 신동아 질서의 건설로써 우리 일본은 완전히 동양의 맹주가 되었으니 이는 오로지 강직한 일본정신의 발로일 것이다.

만세일계(萬世一系)의 황통(皇統)을 이으신 세계無比(無比)의 깨끗하신 역사를 가진 우리 일본 황실의 번영이 이처럼 날로 점양(漸昂)하는 것은 위로 성명(聖明)하신 천황 폐하를 모시고 아래로 국민이 일치단결 국운의 번영을 꾀한 때문일 것이다. 이제 신국민정부가 그 새로운 기폭을 중외에 날리는 이때에 있어서 우리 총후국민은 더욱 노력하여 이 성전의 성과가 완수되기까지 은인자중 멸사봉공의 희생적 정신으로 나아가야 하 것이다.

신정부의 건설한 보조는 나아가 동양평화의 길에 크게 공헌할 바 많으므로 우리는 더욱 이를 지지하기에 총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사변이 끝났다고 낙관할 것이 아니다. 이 뒤에 오는 건설에 더 한층 총력을 모아야 할 것이니 부질없이 전승의 기폭으로 여광여취할 것이 아니다. 이 시국을 정시(正視) 자중하여 동양영원의 평화가 올 때까지 백절불요 일로매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제 지나사변 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소회(所懷)의 일단(一端)을 서술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출전 : 「支那事變三週年(卷頭言)」, 『朝光』 제6권 7호, 1940년 7월 1일, 20~21쪽, 322쪽)

2) 시정 30주년을 맞음

광고무비(曠古無比)⁷⁵⁾의 시국하 광휘있는 황기 2600년과 함께 금 10월 1일로서 시정 3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였다. 회고하건대 지금부터 만 20년 전 동아의 정국은 실로 난마와 같이 흩어져 구한국의 운명이 위급(危急) 존망지추(存亡之秋)에 당하였던 1910년 8월 22일 '일한' 양국은 드디어 양국의 행복과 동양 영원의 평화를 위하여 양국 '병합'의 조약을 체결하고 그 달 29일부터 이것을 공포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해 10월 1일부터 조선총독부 및 그 소속관공서의 관제는 제정 발표 실시하였는데 제1대 총독으로는 전 통감(統監)이요, 당시 육군대신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겸무(兼務)로 취임하였다. 데라우치 총독은 조선 통치의大本(大本)을 정하여 창업의 토대를 쌓은 위대한 공적을 남겼거니와 이래 만20년 간 현 미나미(南) 총독에 이르기까지 7대 총독을 맞이하였는데 각각 그 시대 그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혹은 제도 개혁에 혹은 치안 확립에 혹은 경제 기구와 산업 시책에 혹은 교육 시책에

75) 중일전쟁을 뜻함.

76) 광고(曠古) : 전례가 없음. 만고에 없음. 미증유.

주력하는 등 모두 특색 있는 정책을 실시하여 그 결과는 오늘날과 같은 문화조선건설을 결실시켰다.

이제 유럽 정국을 살펴보면 유형무형의 상태에 있어 그 근저에는 심각한 민족 문제가 대립된 채 숨어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내선(內鮮) 간에 있어서는 그 통치의 근본정신이 본래부터 서양류(西洋流)의 식민지 정책과 그 범주를 달리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미나미 총독의 내선일체(內鮮一體) 정책의 강화는 이 원리를 완전히 구현시켜서 민족 융합의 이상적 경지로 매진하고 있다. 모두 어능위(御稜威)의 소치이거니와 이것은 또한 팔굉일우(八紘一宇)의 대건국정신의 발로이며 그 표현이다.

생각건대 제국은 현하 전고미문의 대역사적 전변기에 당면하고 있다. 동아의 신질서 건설은 곧 제국의 백년대계인 동시에 전 동아의 백년대책이요, 또 그 공존공영의 최선책이다. 그러나 완미한 장(張)정권⁷⁷⁾은 사변 4주년인 금일에 이르러도 오히려 그 비(非)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모든 장애물을 완전히 격파하고 동야 백년의 대계를 수립시키기 위하여는 국내체제의 정비가 당면의 급선무이다. 그런데 국내체제 정비의 안목은 결국 이 전변기에 처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일억일심(一億一心)으로써 이 역사적 사명을 다하게 하려는 것이요, 또 국민으로 하여금 역사적 사명을 다하게 하는 길은 오직 만민익찬(萬民翼贊)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노에(近衛) 수상은 신체제 운동의 출발에 즈음하여 이 정신을 특히 강조하였다. 그러나 국내 국외를 살펴보면 신질서 건설 문제이나 그 기초 공작이요 동시에 제국의 백년대계인 국내체제 정비 문제임을 막론하고 이것을 완전히 실현 시킴에는 실로 다대한 노력을 요할 것으로서 국민은 일사재생(一死再生)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리하여 시국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중대해지고 또 이에 따라 국민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과 각오와 결의를 요구함이 더욱 절절한 바 있다. 난국이요 또 중대시기인 이때에 처하여 2천3백만의 반도민 중은 한결같이 내선일체의 결실을 거둬으로써 황국 신민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의의 깊은 시정 30주년을 맞이하여 각각 자기의 시국 인식을 반성하고 시국의 장래를 투철하여 일층 각오를 굳게 하고 또 일단(一段)의 노력을 더하여 그 영예를 선양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출전 : 「施政三十周年을 맞음(社說)」, 『朝光』 제6권 10호, 1940년 10월 1일, 20~21쪽〉

3) 방응모, 조광사 혁신의 사

사장 방응모(方應謨)

나는 미력이나마 『조선일보(朝鮮日報)』 경영에는 전 성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독자 제씨(諸氏)도 또한 조선일보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과 편달을 아끼지 않았습니니다. 그 결과는 조선일보로 하여금 드디어 조선 신문계의 최고위(最高位)를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여러분의 커다란 촉망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0일로서 마침내 최중호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때 나는 심사숙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광사(朝光社)를 따로 남겨 『조광(朝光)』, 『여성(女性)』, 『소년(少年)』의 세 잡지

77) 장개석 국민정부를 뜻함.

발행과 도서출판사업을 존속키로 결의하였습니다. 존속시킬 뿐 아니라 이것을 기회로 하여 내용 쇄신과 기구의 대확장을 단행하였습니다.

첫째 종래로 본지는 원고 검열제이던 것을 이번에는 「신문지법」에 의하여 발행하도록 수속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인가되면 여러 가지 점에서 매우 편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구를 확충하여 사장 직속의 총무, 영업, 편집, 도서의 네 부를 설치하고 또 진용(陣容)도 일신(一新)하였습니다. 그리고 잡지의 배급에 있어서도 전 조선 각지에 지사를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라도 구할 수 있도록 기구를 정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중요한 개혁은 지면 내용의 쇄신 일 것입니다. 우리는 본지로 하여금 넓은 의미의 생활의 좋은 반려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길잡이의 역할을 다하게 하기를 스스로 기획하는 바입니다.

설령 이 이상(理想)이 제일보에서 완전히 구현되지 못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으려 합니다. 로마(羅馬)는 하루 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이 경우에도 훌륭히 적용될 것인 까닭입니다. 지도적 논설과 문화 평론, 중량 있는 창작, 친절한 시사 해설, 고상한 취미와 실생활에 필요한 ‘뉴스’, 이것은 날이 감을 따라 더욱더욱 풍부한 내용으로써 결실시켜질 것이요, 이에 따라 여러분의 욕구도 또한 반드시 높은 정도에서 충족될 것을 확실하는 바입니다.

◇

이렇듯 조광사를 존속시키기로 결의하고 또 개혁을 단행하려 함은 오직 여러분에게 정신적 양식—좀 더 내용이 충실한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향상에 홍모(鴻毛)⁷⁸⁾만한 기여라도 끼치기를 기하는 이외에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네 평생과 내 재력, 그것이 극히 미력한 것일지라도 나는 이미 이것을 들어 이 방면 사업에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광사를 존속시키는 것은 결코 이것으로써 신문에 대신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과 잡지는 각각 독자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까닭입니다. 오직 종합지로서의 영역을 굳게 지키면서 다만 주제마다의 내용을 좀 더 충실히 하여서 좀 더 색채와 선을 뚜렷이 하기에 전력을 다하려 합니다. 나는 가까운 장래에 본사의 기초를 또한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하여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려 하거니와 본지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우리의 힘으로만 결실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문화사업이란 특히 한 사회의 공동 노작만이 결실시킬 수 있는 사업인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 사업은 공동사업이요, 또 이 기관은 동시에 여러분의 것입니다. 나의 미력에다 여러분의 관심과 편달이 없이는 이 사업은 성장할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청컨대 본사의 뜻을 살피 독자 제씨와 문화인 제위(諸位)는 조선일보에 대한 것이나 다름없는 관심으로써 공동 노작을 아끼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조광사를 혁신 확충하면서 본사의 뜻있는 바의 일부를 피력하여 여러분의 절절한 원조를 감히 앙청(仰請)하는 바입니다.

〈출전 : 方應謨 「朝光社革新의 辭」, 『朝光』 제6권 10호, 1940년 10월 1일, 18~19쪽〉

78) 기러기의 털이라는 뜻으로, 매우 가벼운 사물을 이르는 말.

4) 방응모, 창간 5주년사(권두언)

사장 방응모(方應謨)

본지는 금 11월로 창간 만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5개년이란 세월도 긴 듯 또 짧은 듯 하면서도 나에게서는 감회가 또한 적지 아니합니다. 본지가 고고(呱呱)⁷⁹⁾의 소리를 내어 세상에 나타나는 1935년 11월과 지금 5개년 돌맞이를 하는 1940년 11월과는 실로 격세의 느낌조차 없지 않습니다. 당시 유럽에 있어서는 이탈리아 군대의 에티오피아 진격으로 영국·프랑스를 중심한 제국연맹이 물끓듯하여 대이탈리아 경제봉쇄(對伊經濟封鎖)를 결의하는 때였고 동양에 있어서는 지나에서 화폐제도개혁 등을 중심으로 영·중 합작이 급진전을 보이는 한편 일·중 관계는 날로 악화하여 마치 일지사변⁸⁰⁾의 전야를 예상케 하던 때였습니다. 말하자면 동서양에 있어 그 사정과 성질에 다소의 차는 있었다 할지라도 역시 신질서의 서곡이 그윽하게 울려오던 때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세월은 흘러 에티오피아 문제 해결의 뒤를 이어 1937년 7월에는 동아신질서건설을 목표로 하는 세기적 대사건인 일지분쟁이 발단되었고 작년 9월에는 독일의 유럽 신질서 건설 사업인 제2차 유럽대전쟁이 발발되어 세계신질서 건설은 지금 일본·독일·이탈리아 삼국에 의하여 용감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대전변기에 처하여 본지는 그때 그때에 따라 오로지 본지에 부여된 직책을 다하기에 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본지 창간에 즈음하여 문화 조성(朝城) 건설의 아침 햇빛(朝光)이 되기를 스스로 기획한 바 있었습니다. 과거 5년간 본지가 과연 조선문화향상에 기여한 바가 어떠한 것인지는 스스로 촌탁(村度)⁸¹⁾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다소라도 비익(裨益)⁸²⁾한 바 없지 않을 것이라는 것만은 굳게 믿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래부터 본사의 미력보다도 오히려 본지를 아껴 사랑하고 도와주고 하는 분들의 힘으로 된 아름다운 결정(結晶)이라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평소애 본사를 지원 해주신 제위에게 대하여 애심(哀心)으로써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또한 본지의 장래를 더욱더욱 빛나게 하여 제위의 간곡한 원조와 수만 독자의 기대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기를 또한 자기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5년 전이나 3년 전과 같이 세계의 동향은 애매한 것이 아니고 아주 확연해졌습니다. 제국은 독일·이탈리아와 손을 잡고 세계 신질서 건설에 참획(參劃)하고 있습니다. 지나에서 사변이 발발한 이래 우리는 시국인식 철저화에도 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의 시국이라고 하는 것은 3년 전과도 다르고 2년 전과도 달라졌습니다. 국민된 자로서는 누구나 실로 최후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를 당하였습니다. 안으로는 신체제의 확립, 밖으로는 혁신외교정책을 강행하여 하루 바빠 동아 신질서 건설을 완성시켜서 세계의 신질서를 건설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세계 영구 평화를 기도하지 않으면

79) 아이가 세상(世上)에 나오면서 처음 우는 울음.

80) 중일전쟁을 뜻함.

81) 남의 마음을 미루어서 헤아림.

82) 보익(補益). 보태고 늘여 도움이 되게 함.

안 되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모름지기 이 선(線)에 따라 행동하고 생활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의 반려인 본지의 앞으로의 주력이 어디에 있겠냐는 것은 다시 노노(嗚嗚)⁸³⁾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대이상에 따라 문화정책이 새로워질 것이요, 새 문화는 종래의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지양하고 일로 전체주의적인 방향으로 향하여 달음질치도록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국책과 신문화정책선에 따라 시국을 인식시키고 또한 조선문화 향상에 일단의 노력을 더하려 합니다.

원컨대 독자 제위는 끝까지 본지를 지켜주시고 또 끝까지 성원을 아끼지 말아주기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출전 : 方應謨 「創刊五周年辭(卷頭言)」, 『朝光』 제6권 11호, 1940년 11월 1일, 18~19쪽〉

5) 동아공영권 신장과 국민의 각오(권두언)

1

제국의 외교는 동아공영권의 기초를 날로 공고(鞏固)히 하고 있다. 금일의 마츠오카(松岡) 외교는 이 점에서 실로 세기적 의의를 가진 것이라 할 것이다. 마츠오카(松岡)씨는 적당한 기회를 가리어 독일을 방문하였다. 그 결과는 추축진(樞軸陣)을 한층 더 강화하여 동아에 있어서 뿐이 아니라 제국은 실로 세계 신질서 건설에 기여할 결의를 더욱 굳게 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마츠오카씨는 스탈린 씨와 재회견을 하여 드디어 일소(日蘇) 중립조약에 성공하였다. 이 조약이 가지는 의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이것으로써 제국의 남진정책을 실현시키는데 절대적인 힘을 얻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조약이 중경(重慶)에 주는 타격은 예상 이상으로 크다. 이 조약체결 후 중경측이 얼마나 당황 초조 하였던가, 중경 측의 초조가 심하였음에 불구하고 소련은 무엇이라고 응수(應酬)하였던가. 스탈린씨는 중경 측에서 만일 국교 조정을 원하거든 장개석(蔣介石)이가 모스크바(幕府)에 올 것이라고 하였다. 그것으로써 소련의 저의(底意)를 짐작할 것이요, 또한 그와 동시에 중경 내부의 국공(國共) 마찰이 어떻게 악화할까 하는 것도 짐작되는 일이다.

2

이와 동시에 우리는 최근의 제국의 적극적 작전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복건(福建)·절강(浙江)·황하(黃河)중심 작전은 실로 그 의의 중대한 바가 있다. 적이 제국의 진의를 알기까지는 언제까지든지 군사행동을 중지하지 않을 것이다. 중경 측의 무모한 항전책도 이와 같은 작전 앞에서는 차츰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 비(非)를 깨닫는 날도 반드시 먼 장래의 일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한편에 있어 국민정부의 기초도 날로 공고하여 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 또한 일(日)·프랑스령 인도차이나(佛印) 경제협정과 제국의 알선으로 태국(泰)·프랑스령 인

83) 구차한 말로 자꾸 지껄이다.

도차이나(佛印)평화조약이 성립되었다. 이 조약이야말로 제국의 동아공영권 건설상에 있어서의 역사적 거보임에 틀림없는 것으로서 이것으로써 공영권의 남방으로의 진전이 확립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듯 최근의 제국의 군사외교의 승리를 찾아보면 정히 세기적인 대성과를 거두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여기에 잡음(雜音)이 있다. 동아 신질서 건설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고의로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국가군(國家群)이 있다.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군이 그것이고, 그 중심이 영국(英)·미국(米)이다. 최근 비정상적인 그들의 언동은 실로 언어도단(言語道斷)이어서 미국 상원에서는 심지어 중경에의 비행기 파견을 주장하고 동경(東京)을 폭격하자는 폭언까지 임의로 토(吐)하는 자가 나타났다. 무적항공군이 국가를 지키고 있음에 우리에게서 쓸데없는 기우(杞憂)는 글자 그대로 일편(一片)의 기우일 다름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은 신사태에 상응할 만한 물심 양면의 준비다. 이 점은 특히 우리가 명심할 점이다. 동아공영권이 날로 진전함에 불구하고 그 완성은 아직 장래에 속하는 일이다. 우리는 천리 길을 지금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우리는 물심양부면에 있어서 오히려 전쟁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하고 만전준비를 다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지난 6일 초도 순시(初度巡視⁸⁴)를 마치고 남경(南京)에 돌아온 전총(畑總)사령관은 그 시찰담(視察談)중에서 일선 장병은 전쟁은 지금부터라는 의기에 불타고 있다고 하였고 결말에 이르러 총후국민은 국제관계의 일시적 호전에 현혹되지 말고 일선 장병의 결심을 지지하라는 의미의 말을 하였다. 오늘날 국민의 처할 바의 국민이 가져야 태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이 짐작될 것이다. 만난(萬難)을 박차고 최후의 이상에 도달하는 것이 오늘날 국민에게 부여된 의무이다.

〈출전 : 「東亞共榮圈伸張과 國民의 覺悟(卷頭言)」, 『朝光』 제7권 6호, 1941년 6월 1일, 22쪽, 404쪽〉

6) 지나사변 4주년(권두언)

1

1937년 7월 7일 노구교(蘆溝橋) 상의 한 발의 총성은 실로 동아신질서 건설에의 효종(曉鐘)이었다. 그 동안 이 성스러운 대사업의 행진곡은 지나 천지를 뒤흔들어 마침내 사변도 최종계단에 들어간 채, 금년 7월 7일로써 그 만 4년을 맞이한다. 우리는 이 의의 깊은 날을 맞이함에 먼저 이 성전의 초석이 되어 전장의 꽃으로 사라진 황군장병의 영령에 대하여 삼가 그 명복을 비는 바이거니와 이들에게 동아신질서의 완성의 우렁찬 고종(告鐘) 소리를 들려줄 날도 반드시 먼 장래의 일은 아닐 것이다. 과거 4년간 황군이 가는 곳엔 실로 글자 그대로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전 지나 400여 주(州) 중 황군의 족적(足

84) 한 기관의 책임자나 감독자 등이 부임하여 처음으로 그 관할 지역을 순회하여 시찰함.

跡)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으며 그들의 미몽(迷夢)을 깨뜨리는 폭탄이 날지 않는 곳이 별로 없었다. 전 전선 3천여km(浬)로 제1차 대전의 그것은 물론, 금차 대전의 그것도 훨씬 능가하여 세계전사상(世界戰史上)에 새 기록을 지고 있다. 어찌 이 기록을 장하다 하지 않으리오. 그리고 재작년 3월에는 왕정위(汪精衛)씨를 주반(主班)으로 하여 이미 남경에 환도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일지(日支) 기본조약도 성립되었다. 그 후 국민정부는 비록 십(十)의 십(十)은 아닐지라도 점차 발전되어 가는 도정에 있으며 제국으로서도 최근 다시금 국민정부 육성의 최고방침을 끝까지 수행할 체제를 완비 시키고 있다.

2

나아가 중경 측의 곤궁한 상황을 보라. 그들은 황군에게 물리어 겨우 촉지(蜀地)에서 여맥(餘脈)을 보존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 공상은 우리 눈앞에 역력(歷歷)한 바 있다. 그들에게는 식량도 없고 무기도 없다. 그리하여 4억만 민중은 도탄에 빠지고 있다. 다만 남은 것은 일종의 발악뿐이다. 이 어찌 통탄할 바가 아니라. 제국은 과거 3년간에 걸쳐 제국의 진의를 충분히 설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끝내 그 미몽을 깨지 못하였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그들에겐 다만 오늘날의 궁황이 선물(膳物)되었을 뿐이 아닌가. 그런데 이 중경 측이 명맥을 오늘날까지 이끌어 오는 것은 결코 그들의 자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미의 타력에 있는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그들의 적성(適性)은 사변 진전에 비례하여 그 정도를 더하고 있다는 것이 금일의 현상이다. 과반(過般) 영국은 자국의 공상도 돌아봄이 없이 극동정책의 강화를 역설하였으며 미국은 지나의 항일전선을 격찬하고 끝까지 그 원조를 아끼지 않는다고 성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태평양상의 제반 군사기지를 보강하여 싱가포르(新嘉坡)에까지 군함과 군대를 파견하여 어디까지 제국의 성업(聖業)을 방해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보면 지나사변은 지나와 전쟁한다는 것보다 차라리 그 배후의 제국(諸國)과 싸우는 것이오, 지나가 영미의 원조를 받는다는 것보다 차라리 그 영미 측의 제1선이 바로 중경 측이라고 보아야 마땅하게끔 사태는 악화되었다.

3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태가 악화되면 악화되는데 따라 거기에 상응한 준비가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방해가 온다고 한들 조금도 패념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제국의 운명을 가늠하고 있는 이 성업에 있어 어찌 단 한 걸음인들 후퇴할 것인가. 문제는 다만 우리의 물심 양방면으로부터의 총력전 준비에 있다. 더구나 금일의 세계정세는 거의 견잡을 수 없으리만큼 급회전을 하고 있다. 이 정세를 똑바르게 간취(看取)하면서 일(日)·독(獨)·이(伊) 구축을 더욱 더욱 강화하여 만 4개년의 전쟁을 치렀으니 일상생활에 다소의 변화가 없을 수 없는 바이겠으나, 이것쯤은 본시부터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이다. 그 보다는 앞날을 위하여 더욱 더욱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경 측의 도괴(倒壞)는 설령 가까운 장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동아신질서 건설의 성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아직 앞이 요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선 이 위업은 거의 백년대계에 가까운 것이라는 것을 첫째 깨닫지 않으면 안될 것이오. 이것이 국가 백년대계에 속하는 일이라고 하면 국민도 백년대계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사리(事理)의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사변 4주년을 맞아 국민은 모름지기 각오를 새로이 하여 1억 1심, 백년대계의 과정을 견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동시에 동아영원의 평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정신으로 돌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출전 : 「支那事變四週年(卷頭言)」, 『朝光』 제7권 7호, 1941년 7월 1일, 24~25쪽, 400쪽〉

7) 시정 31주년(권두언)

광고무비(曠古無比)의 비상시국 하에 있어 금 10월 1일로써 시정 만 31주년을 맞이하였다. 회고하건대 지금으로부터 만 31년 전 동아시아의 정국은 실로 난마(亂麻)와 같이 흩어져 구한국(舊韓國)의 운명이 또한 위급(危急) 존망지추(存亡之秋)에 있었다. 이때 1910년 8월 29일 '일한' 양국은 드디어 양국의 행복과 동양영원의 평화를 위하여 양국 '병합'의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간 역대 조선총독은 선정을 하여 금일과 같이 경제·산업·교육 등 일반 문화 향상에 자(資)한바 실로 컸다.

이제 머리를 돌려 유럽(歐洲) 제국(諸國)의 식민지 정책을 살펴보면 그 근처에는 항상 심각한 민족문제가 대립한 채, 잠재(潛在)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항상 정복과 피정복의 관계, 지배와 피지배의 불변의 원칙과, 착취와 피착취의 엄연한 관계가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내선(內鮮) 간에 있어서의 그 관계는 이와 전연 다른 범주에 속한다. 내선의 관계는 정복과 피정복, 지배와 피지배,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가 아니고 내선 혼연일체, 그것이 바로 조선통치의 대정신이며 미나미(南) 총독이 주창하는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원리이다. 내선관계는 한 마디로 말하여 팔굉일우(八紘一宇)의 대 건국정신의 발로이다. 그러므로 내선관계는 동시에 신동아 건설의 기초요, 출발점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제 제국은 동아시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또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하여, 동아시아의 공영방위를 위하여 동아시아 신질서건설의 성업을 수행시키고 있다. 이 동아시아신질서건설의 위업의 근본 원리가 팔굉일우의 대이상 상에 있음을 생각하면 내선관계 여하라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를 알 것이다.

동아시아 신질서건설의 위업은 지금 수행 도정상에 있다. 지나의 대평야에 성전의 검을 휘두른 지 이미 4개년이로되 장개석(蔣介石)은 이 성전의 성전됨의 의의를 깨닫지 못하고 부질없이 저항을 일삼고 있다. 여기에 또한 영미 측의 책략에 승세(乘勢)하여 동아시아신질서의 대이상을 이해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이들 영미의 원조로 그들은 더욱 더 소리를 높이 하여 항전하고 있는 것이 금일의 현황이다. 이때에 있어 우리는 내선일체를 기초로 하여 동아시아신질서건설의 위업을 힘차게 진전시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 장개석의 항전 의식이 양양(昂揚)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 몇 배의 힘과 열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이 사위(四圍)의 정세를 살핌에 국제관계는 더욱 조잡하여지고 있다. 이때에 있어 우리는 내선일체의 정신을 더욱 깊게 하고 병합당시의 정신을 회상하여 실로 한 덩어리가 되어 이 난국을 돌파 시키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출전 : 「施政三十一周年(卷頭言)」, 『朝光』 제7권 11호, 1941년 11월 1일, 25쪽, 210쪽〉

8) 징병령 실시와 상무정신(권두언)

조선에도 드디어 징병령을 실시하는 날이 왔다. 1944년 봄 4월부터 우리도 제국 군인으로서 또는 제국 군인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그 아내와 그 형제자매로서 영예와 광명에 찬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즉 조선 2천 4백만 민중은 이날부터 제국신민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는 새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요, 역사적인 첫 걸음을 내 딛게 된 것이다.

생각건대 지나사변 이래 반도강산에 창일(漲溢)한 애국지성은 실로 놀랄만한 바 있다. 예컨대 지원병의 성적이 우량한 사실이라든지 현금에 나타나는 열렬한 정성이라든지 기타 총후국민으로서의 봉공(奉公)에 있어, 가지가지로 불타는 듯한 성의를 표시하여 왔다. 이제 이와 같은 정세 아래에서 우리는 징병령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받은 것이다. 오직 감격할 따름이요, 우리는 즐겨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 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회에 스스로 돌볼 점이 있으니 그것은 재래 반도에는 상무정신이 박약하였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조선은 확실히 문약에 흘렸고 또 현재는 그 구관(舊款)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에 있어, 또 사회에 있어 그 교육에 있어 그 처세에 있어 항상 정신적 긴장이 부족하였고 그 행동에 있어서는 엄숙한 맛이 적었다. 이웃집에 불의가 있고 길가에 부정이 끊고 해도 이것을 그대로 눈 감아 버리는 것이 마치 신사(紳士)의 도(道)인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조차 없지 아니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정(正)과 부정(不正), 의(義)와 불의(不義)가 한데 뭉치어서 그 경계의 명료성을 잃고 말았다. 이것은 현대 세계를 풍미(風靡)한 1개 기류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에 있어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상무(尙武)정신이란 인간 사회에 있어 인간문화에 있어 얼마나 존중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징병령 실시에 대하여는 한층 감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출전 : 『徵兵令實施와 尙武精神(卷頭言), 『朝光』 제8권 6호, 1942년 6월 1일, 21쪽, 222쪽〉

9) 해군특별지원병제의 영광(권두언)

지난 5월 11일의 각의(閣議)에서 조선에 특별해군지원병제(特別海軍志願兵制)를 실시하는 것을 결의 발표하였다.

생각하건대 조선에는 일찍 1938년에 육군특별지원병제(陸軍特別支援兵制)를 실시하여 이래 제1선에 서 이미 혁혁한 무훈(武勳)을 세운 사람도 적지 아니하거니와 작년 5월 12일에는 1944년도부터의 징병령 실시를 발표하여 2천4백만 민중을 감격시켰다.

1944년의 그 실시를 앞두고 방금 광명과 영예의 앞날을 위하여 맹훈련을 하고 있는 이때 거듭되는 광영을 입어 이제 우리는 해군으로서도 당당히 제국 군인이 되어 천황폐하의 고굉(股肱)⁸⁵⁾으로 봉공

85) 다리와 팔이라는 뜻으로, 다리와 팔뚝에 비길 만한 신하(臣下). 임금의 가장 신임(信任)하는 중신(重臣).

(奉公)할 수 있게 되었다.

제국은 해양국이다. 4면이 모두 바다이다. 그러므로 제국의 운명은 본시부터 이 바다와 떠날 수 없는 것이다. 이 지리적인 운명적 지위에다가 제국관계를 생각하면 제국은 생존상 바다를, 특히 태평양을 제패하는 것이 절대 필수조건이 아니면 안 된다. 게다가 현하의 전국으로 보면 정히 제국은 7해(七海)를 제패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기세를 높이고 있다. 제국의 해군력이 암만 증강 되어도 너무 지나친다는 법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유는 지극히 간단하다. 해군 국가로서 최대한의 해군력을 건설해야 할 것은 다시 설명을 요하지 않는 것이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적 영미(英米)는 꿈같은 군축회의(軍縮會議)에서 기어코 제국의 해군력을 제압하려하지 않았던가. 제국은 육해공(陸海空) 모두 세계무비(世界無比)의 정강(精強)⁸⁶⁾을 자랑하고 있거니와 이 전통을 더욱 더 빛나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결 같이 병역의 경험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특별한 훈련과 연성이 있어야 하리라 생각하거니와 특히 해군에 있어서는 견확(堅確)한 정신과 과학적인 두뇌를 요구함이 크다. 제국의 빛나는 해군정신을 체득하고 광휘(光輝) 있는 전통을 자랑하면서 육군은 육군으로서 해군은 해군으로서 어느 것이나 제국 군인으로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연성(鍊成)을 쌓아서 제국의 간성(干城)⁸⁷⁾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출전 : 「海軍特別志願兵制의 榮光(卷頭言)」, 『朝光』 제9권 6호, 1943년 6월 1일, 13쪽, 180쪽〉

10) 징병제 실시에 감사합시다(권두언)

2천5백만의 전 조선민중이 대망(待望)하여 마지아니하는 징병제는 금 8월 1일으로써 드디어 그 실시를 보게 되어 이제 조선출신의 청장년은 일제히 군문으로 다닐 일이 눈앞에 다 닦쳐왔다.

제국의 군인은 황공하옵게도 천황어친솔(天皇御親率)의 군이며 황군의 '고굉(股肱)'이다. 이와 같은 군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바로서 이것은 한갓 세계무비(世界無比)의 국체에 연원하는 바이다. 제국장병의 광영이 비할 데 없이 큰 까닭도 또한 이 점에 있는 것이다.

이제 이와 같이 크나큰 광영이요, 명예인 징병제가 조선동포에게도 실시된 것이다. 생각하건대 이것은 조선민중에게 국가의 간성으로서의 중실을 맡겨주는 것이요, 그와 동시에 우리의 국가의식이 그만큼 향상되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중대한 일익(一翼)을 맡아가지고 새 출발을 하는 것으로서 이 중책의 일부가 우리에게 허용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대동아의 지도자이라는 광영 있는 지위(地位)에 한 걸음 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영예 있는 지위가 주어지는데 대하여 거듭 감사 감격하는 바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광영을 입은 것을 감사하는 한편 또한 책임이 중대해 진 것을 깨닫지 아니하면 안 된다. 제국 군인의 전통과 영예는 세계무비의 정병(精兵)이라는 데 있다. 역사상 먼 예는 잠깐

86) 정력이 있고 강함.

87) 방패와 성이라는 뜻으로, 나라를 지키는 믿음직한 군대나 인물을 이르는 말.

차치하고라도 하와이 기습의 9군신(九軍神), 앓쓰섬의 야마자키(山崎) 부대의 옥쇄(玉碎)와 같은 것은 제국군인의 정신을 그대로 발휘시킨 것이다. 이와 같은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또는 이와 같은 충용(忠勇) 정신의 기반(地盤)을 닦기 위하여는 우리는 첫째 책임 관념을 좀 더 높여서 직(職)에 몸숨 바칠 각오를 굳게 가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리하여 전투에 있어서는 “죽은 후에야 그친다”는 투지, 투혼을 길러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정신에 투철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일본정신이란 만민일군(萬民一君) 사상으로서 그 핵심은 충(忠)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무비의 국체에 대한 관념을 높여야 할 것, 이런 점에 대하여 우리는 한층 더 연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우리의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광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전 : 『徵兵制實施에 感謝합시다(卷頭言)』, 『朝光』 제9권 8호, 1943년 8월 1일, 13쪽, 180쪽〉

6. 『신시대』의 선전 취지

1) 연두사

성전 제5년.

예성문무(睿聖文武)하옵신 대원수 폐하, 어성덕(御盛德)을 받잡고 혁신창영(革新昌榮)의 세기 새로운 제1년에 당당 일보를 내딛는 회세(回歲)의 벽두에 즈음하여 1억 창생, 황토(皇土)에 부복(俯伏)⁸⁸⁾하여 대어능위의 혁요(赫耀)하옵을 배(拜)하옵고, 흥륭(興隆) 일도(一途)를 계승하옵는 황국에 생을 향유함에 감읍변무(感泣抃舞)하오며, 구중운심(九重雲深), 황실의 어번영을 우러러 축도(祝禱)하옵고, 신도(臣道)를 각준(恪遵)⁸⁹⁾하여 지성봉공(至誠奉公)함으로써 무궁무극(無窮無極)하옵신 황운에 익찬(翼贊)하여 받들기를 깊이 서원(誓願)하옵니다.

이제 우리 황군은 광고(曠古)에 빛나는 대이상의 실현에 목척(目睫)⁹⁰⁾하고 있습니다. 지나사변 완수, 동아공영권 확립, 세계 신질서 건설, 황기(皇紀) 새로운 신세기, 2601년과 함께 신민된 자의 사명이 가 한층 중대함을 스스로 느끼는 바입니다. 더욱 반도 2천 6백만 민중은 황송(惶悚)하게도 일시동인(一視同仁)하시는 어인자(御仁慈)하심에 욕(浴)하여 만방무비(萬邦無比)의 국체를 봉대(奉戴)하고 군민일체의 국풍(國風)을 받잡아 영광스러운 신시대의 전진을 함께 하게 되옵는 오직 감격 감격할 따름입니다.

이제 우리들 신민은 사변을 완수하고, 생산을 확충하고, 군비를 충실히 함께 한층 전 노력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시국이 더욱 중대해짐에 따라 더 큰 사건이 발기(勃起)되는 때에도 모든 인고 결핍을 감

88) 고개를 숙이고 엎드림.

89) 일이나 말 따위를 정성껏 따르고 지킴.

90) 눈과 속눈썹을 아울러 이르는 말. 아주 가까운 때나 장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내하여 외적(外敵)을 분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리하므로 우리가 제회(際會)⁹¹⁾한 영광스러운 신시대로 난관을 정복하여 황국의 대이상을 완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지(本誌)의 창간도 황국의 중대 시국을 돌파 정복함에 일호(一毫)의 가치라도 있어지기를 힘쓰고, 홍대(鴻大)하신 황은의 만의 하나라도 봉답하기를 서원하옵는 바입니다.

이제 세단(歲旦)을 맞이함에 있어 삼가 성수(聖壽)의 무강(無疆)하심을 봉하(奉賀)하옵고 국운의 더욱 융창(隆昌)하옵기를 기원하오며 황군장병의 무운장구(武運長久)를 빌고 소회를 말씀하옵는 바입니다.

〈출전 : 「年頭辭」, 『新時代』 第1集, 1941년 1월 1일, 18쪽〉

2) 신시대 변 - 창간사에 대신하여

신시대(新時代).

얼마나 오래오래 기다려 오던 신시대이나. 바라고 바라던 신시대가 이제 우리들의 면전에 박두(迫頭)해 버렸다. 마침내 신시대는 제군과 또 나와 또 모든 인류의 눈앞에 맞닥뜨려 버린 것이다.

기다렸던 자가 맞이할 차비가 채 못 되었다고 비명(悲鳴)할 만큼 신시대는 쉼없이 도착하였다. 왜 이다지 일찍 왔느냐 항거하여도, 좀 더 있다가 오시오 애원하여도, 이미 신시대는 도래한 것이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보다 새로운 신시대로의 전진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여기서 뒤지면 언제까지 패잔졸(敗殘卒)의 운명 외에는 남는 것이 없다. 전진이나 패퇴나, 남은 것은 둘 뿐이다.

잡지 『신시대(新時代)』도 이 새로운 전환과 출발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차비가 채 못 된 비명과 함께 서서 발걸음을 빨리 빨리 하여 신시대의 선봉과 맞서야 할 운명을 안고서 탄생한 것이다. 고통도 있을 것이요, 결합도 있을 것이리라. 그러나 잡지 『신시대(新時代)』는 그것을 돌아보기 보다도 제군과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여 우리가 맞이한 신시대의 앞으로 활개치고 용감하게 나서야 할 것이 보다 큰 사명이라고 믿는다.

잡지 『신시대(新時代)』는 평이(平易)와 명랑을 요건으로 삼고, 어린 벗으로부터 늙으신네까지를 포용할 야망으로 출발하였다. 탄생에서 출발까지에 현실적 난관을 뚫고 나와 보니 첫 번 기도(氣愴)가 무척 놀리워졌다. 그러나 뜻한 바 면목(面目)의 일단(一端)이나마 남기어 있음을 유쾌히 생각하고 힘을 다시 돌구어 제군과 전진을 같이 하려한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신시대의 출발도 많은 낙오(落伍)에 겁내는 것이 아니다. 1억을 뭉치고 8억을 뭉치고, 21억을 뭉치려는 열의가 첫 출발로써 완성될 것은 결코 아니다. 오직 신념과 노력을 다 함으로써 완성으로의 전진이 약속되는 것이다.

잡지 『신시대(新時代)』도 이로서 위안을 삼고 진심과 성의를 다 할 것임을 약속하고, 전진을 기약한다.

잡지 『신시대(新時代)』의 제작자는 모두 젊은 자다. 또 경험이 없다. 그러나 신시대로의 전진을 사모함에는 남에게 뒤지기를 싫어한다. 우리의 용기는 전진함에 있는 것이다.

91) 좋은 때를 당하여 만남.

신시대로의 거부(拒否)는 태평양 물결을 드높게 한다. 대서양 위의 파도를 더 흔들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도 우리 마음속의 회의와 주저가 더 두려운 것임은 알아야 한다. 신념과 노력의 최선을 다 할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신시대를 맞이하고는 또 건설할 한 사람이 된 것에 대하여 광영과 책무를 느껴야 한다. 우리의 전진은 실로 여기에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경험 없음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다. 싱싱한 마음과 미지에 탐구와 같이 노력이 이제부터인 것임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도 우리의 잡지는 전진만이 약속되는 것이다. 오랜 진통과 여러 기관의 수고함을 힘입고 탄생된 잡지 『신시대(新時代)』가 제작에도 생산에도 부족함이 많음은 앞으로 완성시키려는 노력의 여지가 넓어진 만큼 도리어 기쁨도 되고 용기도 된다.

이제는 모든 것이 전진뿐이다. 보다 새롭고, 보다 아름다운 용감한 전진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다 같이 전진할 것만을 기약하고 동시에 전진할 것이다.

그리하여 영광스러운 새 날에 함께 우렁찬 만세를 높이높이 불러 황국의 대이상의 완성에 촉매를 들 것이다.

〈출전 : 「新時代辯 - 創刊辭에 대신하여-」, 『新時代』 第1集, 1941년 1월 1일, 318~319쪽〉

3) 10억 단결, 성전 완수에 - 지나사변 7주년을 맞이하며

노구교(蘆溝橋)에서의 총성 한 발에서 발단된 지나사변(支那事變)은 이번 7월 7일로써 어언 만 7년의 기념일을 맞이한다.

당시 우리 측은 불확대 방침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화(戰火)는 마침내 전 지나에 파급하고 말았으니 이는 전혀 음흉한 미영의 모략에 빠진 항일도배(抗日徒輩)의 도량(跳梁)⁹²⁾에 인하여서였다. 그러나 참다운 형제국의 우의(友誼)와 동아 영원의 평화를 기망(企望)하는 황군의 정로(征路)에 전과(戰果)는 크게 빛나게 되었고 사변의 추이에 따라 고노에(近衛) 성명·왕정위(汪精衛)씨를 중심으로 하는 신생국민정부의 남경환도·국민의 자주독립·일화(日華)공동조약 등으로 -제국의 이상에 어그리짐 없이 신질서는 착착 확립되었다.

전국이 태평양전에 돌입되자 제국은 대동아 10억의 평화와 공영을 위하여 결연(決然)히 동아침략을 기도하는 미영을 격멸하기에 매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에 동생공사(同生共死)를 □□하는 국민정부의 참전까지 보게 되어 사변은 비약적 전말(顛末)을 보게 되었으며 일화(日華) 양국민의 우의적 제휴는 한 층 더 굳어진바 있게 되었다.

이제야 대동아전은 중대한 결전 단계에 부닥쳤다. 제국은 아니 공영권 내 국민은 일치단결하여서 어떻게든지 이 전쟁을 싸워 이겨야만 한다.

92) (어떤 부정적(否定的)인 사람이나 세력(勢力)이)거리낌 없이 함부로 날땀.

이때에 있어서 아직껏 완미(頑迷)하기 짝이 없는 중경(重慶) 일파의 귀족 미영의 주구(走狗)가 되어 동아에 반역적 행위를 계속하고 있음은 실로 가증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제국의 대륙작전은 추호도 지나 민중을 적으로 함은 아니요, 오직 영미의 마수에 협력하는 불순분자(不純分子)를 응징함에 있음은 다시 말할 것이 없는 일관하여 오는 방침이다.

이제 7주년기념일을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 국민은 결승에 각오와 결의를 한층 맹게 함과 동시에 중경(重慶) 일파가 맹성일번(猛省一番) 동아 본연의 자태에 돌아서길 바라 마지않는 것이다.

〈출전 : 「十億團結 聖戰完遂에 -支那事變七周年을 마치하여-(社說)」, 『新時代』 제4권 7호, 1944년 7월 1일, 9쪽〉

4) 나아가자!! 일억특공대

적은 드디어 레이테만, 딘도로 섬을 거쳐 루손 섬(呂宋島) 한 귀퉁이로 상륙하여 왔다. 전선은 점점 늘어나 필리핀 제도(比島)가 온통 일미(日米)⁹³⁾결전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필리핀 제도(比島)란 이번 전쟁에 단단히 한 몫 보는 데이므로 루손 섬의 싸움이 대동아전쟁에 승리를 거두느냐 꺾박을 치느냐가 달려 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이야 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 넘기지 않으면 우리는 여태 헛 애를 쓴 것이 된다. 총후국민은 적이 루손 섬에 상륙했다는 소리를 듣자, 절치부심, 그 어떤 곤란이라도 돌려치고 적을 때려 부술 각오를 했다. 그러나 전선(前線)보도는 나날이 가슴이 뜨끔뜨끔 할 뿐이다. 적이 산파비안을 중심으로 하여 다리를 놓느라고 기를 쓰는 동시에 후속부대를 긴가엔 만(灣)으로 날라 오고 자 날뛰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비행기가 달린다는 소리를 듣는다. 과달카날 섬(島)이래, 우리는 절호의 기회를 맞으면서도 비행기가 없어서 공수 방관하고 있다는 전선의 호소를 몇 번이나 들었는가. 황군의 신취(神鷲)는 능히 비행기 한 대로서 군함 한 척을 무찌르고 있으나 이렇듯 용감무쌍한 우리 황군일지라도 비행기가 없으면 맨 주먹으로 대들 수는 없다. 이 난국을 타개할 열쇠는 결코 전선에 있지 않고 총후(銃後)에 있다. 총후 1억 동포가 특공정신으로 신취(神鷲)의 날개로서 필리핀 제도의 하늘을 덮지 않으면 안 될 때다.

그러면 총후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땅한가. 무엇보다도 비행기를 들입다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직접 비행기 생산에 종사하는 산업전사는 물론 어떠한 일에 종사하는 이일지라도 1분 1초를 아껴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에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와 동시에 우리 일상생활을 전력화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전력 증강에 이바지 하며 1억 특공대의 총진군을 개시할 때는 왔다.

그러면 일상생활을 전력화하는 방도는 어떠한가. 그것은 우리 마음 하나에 달려있다. 예를 들면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쌀을 1작씩만 더 절약한다면 1년에 250만 석이 된다. 이것은 250만 석의 쌀을 증산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닌가. 250만 석의 외미를 실어 들여오던 배를 달리 이용하여 만약 철광석을 날라 들여온다면 고사포(高射砲)면 2단 4천 문, 전차(戰車)면 5천4백 대, 배면 27만 톤을 만들 수 있다 한다.

93) 일본과 미국.

그리고 만약 전국 남자가 양복 옷저고리 한 벌만 새로 만들지 않는다면 비행기 한 대치의 재료인 알루미늄을 만들 수 있는 전력이 절약될 것이요. 전국 라디오 청취자가 하루에 한 시간씩만 라디오를 켜지 않는다면 일 년 동안에 비행기를 2천5백 대 만들어 낼 수 있다 한다. 하고 또, 석탄은 비행기 한 대를 만들어 내는데 약 2백 톤이 든다는데 이 석탄을 중간에다 두고 비행기 생산과 일상생활과의 관계를 숫자적으로 본다면 하루의 생산에 있어서 연탄(煙炭)을 매 호에 한 개씩만 절약한다면 64대, 맥주 한 병을 절약하면 14대, 가스를 하루 쉬는데 122대의 비행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설탕은 항공기용 가솔린의 원료가 되고 우유는 목재기에 없을 수 없는 접착제 카제인이 된다.

전국 남자가 바르고 있는 포마드를 집어 치운다면 1년에 2천만 톤의 식물성 기름을 전력화 할 수 있다 한다. 소금으로부터 나오는 쓰디쓴 즙이 주리로민보다도 가벼운 막네네의 원료로 되고 다른 성분인 가성 소다는 비행기 제조에 필요한 약품이 된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전력 증강에 쉽사리 공헌할 수 있는 것들이 수도룩하다. 동기는 소극적이 되고 결과는 적극적인 것이니 무심히 태워 물은 담배 한 개, 소홀이 꺼버린 성냥 한 개비에도 전쟁을 더디게 만드는 요마가 깃드는 것이다.

우선 이기고 나서! 이것이 우리 살림살이의 길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옷치레, 배부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모든 개인적 욕망은 우선 이기고 나서 볼 일이다.

나아가자 1억 특공대! 말로만 들던 적(敵)은 우리네 대문간 까지 닥쳐왔다. 언제 우리 머리에 폭탄을 내려뜨릴지는 모른다. 우리 1억 특공대는 한 덩어리가 되어 돌파하자.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날이 이 전쟁이 끝나는 날이다. 우리는 죽어도 이겨야 한다.

〈출전 : 「나아가자!! 一億 特攻隊(卷頭言)」, 『新時代』 제5권 1호, 1945년 1월 1일, 10~11쪽〉

5) 숙망의 징병제 실시되다(권두언)

5월 9일 이날로 2천 4백 만민의 숙망(宿望)은 이루어졌다. 성국 이래의 대건설전(大建設戰)인 대동아 전쟁에 명예있는 제국 군인의 일원으로 용약(勇躍) 뛰어 나갈 날이 왔다. 이제 참된 신민이 된 것이다. 천추에 빛날 무훈을 세워 홍은(鴻恩)에 보답할 길이 열린 것이다. 앞으로는 황민(皇民)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금도(襟度)⁹⁴⁾를 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하여야 되겠다.

〈출전 : 「宿望의 徵兵制 實施되다(卷頭言)」, 『新時代』 제2권 6호, 1942년 6월 1일, 15쪽〉

94) 다른 사람을 포용할 만한 도량.

6) 병제 70주년과 조선징병제

무릇 무위도식(無爲徒食)으로 세월을 송영(送迎)하는 자에게 근근 일일이라도 이것을 허송하자면 극히 장구할 것이나 촌음(寸陰)이라도 애석히 하여 사업에 골몰하자면 시간의 부족을 의외에 통감하게 되는 바이다. 고성(古聖)도 세월은 '여류수재(如流水哉)'라 하였지만 연년세세(年年歲歲) 우리의 경험을 소급(溯及)하여 비추어 보면 금년 같이 빠른 해도 일찍이 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덧없이 흐르는 광음(光陰)의 시속을 뒤 모르겠느냐마는 이제 새삼스럽게 그것이 상기된다는 것은 우리 생활이 노력의 1년이었다는 것을 시사(示唆)⁹⁵⁾하는 것이다.

과거 1년 우리는 공고(鞏固)한 결의와 심심(深甚)한 활동 중에 그 지성(至誠)을 다 바쳐 왔다. 과거 1년을 회고할진대 대결전체제 속에서 오직 성전의 완수를 기필(期必)하고 지나온 노력의 1년이었다. 1억 국민이여! 명기(銘記)하라. 12월 8일 이날을 숙원(宿怨)의 구적(仇敵) 영미(英米)에 대한 선전의 대조(大詔)⁹⁶⁾를 배수(拜受)한지 이래 만 1년 어능위(御稜威)와 충용무비(忠勇無比)한 황군장령의 역전분투(力戰奮鬪)로 세계의 지도는 변경되고 있어 황국의 전도(前途)는 양양(洋洋)히 전개 되려 한다. 대조를 배수한 그 순간부터 1억 동포의 가슴(胸) 속에도 필승의 통렬한 직관과 심각한 결의가 약동하는 가운데 전 생활의 초점을 오로지 미영 격멸에 두고 전 국민이 일체가 되어 진력을 다 해 왔다.

그것은 물론 송고무비(崇古無比) 우리 전통정신의 발로이지만 특히 금차 대동아전쟁이 황도 일본의 대도의를 세계에 현양(顯揚)하고 만방 도민에게 각각 그 자리를 얻게 하는 팔굉위우(八紘爲宇)의 대이상을 사강(四疆)에 떨치는 성전(聖戰)인 동시에 대동아의 해방전이라 1억 국민의 노력과 결의가 철석과 같은 바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금년 생활은 성전완수를 목표로 하고 일심전력의 봉공을 다해왔고 또 이후에는 더욱이 이와 같은 정신이 빛날 것이라 믿는 바이다.

대동아전쟁에 있어서의 황군의 혁혁한 전과는 어능위하의 일선 장령의 분투와 노력이 큰 바가 있는 것은 누누이 설명할 바도 없거니와 더 나아가서는 금일 정강(精強)의 기초가 되는 병제발포 상시의 건군의 의의를 탐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치 금년의 1872년 징병제 발표 이래 70년에 해당하는 해다. 멀리 일·청(日·淸), 일·러(日·露)의 양대전역(兩大戰役)을 비롯하여 근자(近茲)에는 만주사변(滿洲事變)·지나사변을 거쳐 금차 대전 등 미증유의 국난에 조우할 때마다 충성용무(忠誠勇武)의 황군의 진가를 발휘하고 항상 경이적 전과를 나타내는 것도 실로 우리 징병제의 진가를 발휘한 것이며 국민일체의 우리 제국 전통정신으로써 팔굉위우의 대이상에 매진하고 있던 것도 그의 발현이다.

우리 제국의 병제는 만방에 관절(冠絕)⁹⁷⁾한 국체에 기인하여 임금을 모시는 국민개병(國民皆兵)의 진의에 의하여 건설된 것이다. 실로 유구 3천년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 하에 연면(連綿)하게 계속해 내려온 숭고한 국민도위가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의 홍업(鴻業)을 베풀게 되자 아국 본연의 자태를 발현한 것이 곧 1872년의 징병제 발표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이 그 근본에 있어서 타국에 견주어 볼 수 없는 지고지대(至高至大)한 병제(兵制)이므로 금일

95) 미리 암시하여 일러줌.

96) 조칙, 조서, 임금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

97) 가장 뛰어나 견줄 사람이 없음, 으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뛰어난.

과 같은 필승 일본의 현상을 □성해 내인 것이다. 적국 미영(米英)등은 당황(唐慌)하게 금차 전쟁을 맞이하여 근근히 징병제도를 채용하고 또는 징병하기 위하여 강제발록제(強制發錄制)를 채용하게 된 것에 비하면 우리 제국 병제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여야 될지 감격 특히 무량한 바가 있다. 이제야 말로 대동아전쟁은 바야흐로 본격적 단계에 들어갔으니 1억 국민의 진충봉공(盡忠奉公)의 대정신 하에 총력을 집결할 필요가 금일보다 더할 바 없다. 70년 병제의 묘(妙)를 무쌍(無雙)히 발휘시킬 때가 오고 만 것이다.

이때 우리 반도에 징병제가 시행되며 반도 동포도 역시 황군의 일원으로서의 영예에 욕(浴)하게 되었으니 성은에 감읍하여 마지않으며 박두한 1944년도 실시기를 앞에 두고 우리 병제의 진의를 체득하여서 성지(聖旨)를 받들지어다. '임금님'을 섬기며 '몸'을 바치고 '나라'를 위하여 '나'를 희생시키는 마음이나 '중(衆)'과 행동을 같이 함으로써 '욕(慾)'을 억제하는 '열'이나 이 모두가 우리에게서 얼마나 결핍하였던가. 이와 같은 정신의 함양은 인류에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수양의 길이며 또한 나 개인의 인격을 향상시키는 데도 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으니 만약 불연(不然)하다면 제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고 과학이 정비되었다 할지라도 어찌 국가의 융성을 바랄 수 있겠으며 지도자로서 자처할 수 있으랴. 따라서 병합 이래 역대 총독의 통리(統理)하에 다년 황국신민으로서 수련에 노력해온 조선동포가 황군 요원이 되는 광영을 입게 된 것은 일본적 정신을 최종적인 형태에서 체현시킬 기회를 파악한 것이니 제도 실시 후의 성적(成績)이 양호(良好)할진대 그 전도는 실로 괄목할 만한 것이 있다고 확언한다.

끝으로 우리 병제의 정신은 '권리'의 주장, '의무'이행도 아니며 다만 '멸사봉공(滅私奉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재삼 제언한다.

(출전 : 「兵制七十週年과 朝鮮徵兵制(社說)」, 『新時代』 제2권 12호, 1942년 12월 1일, 19쪽)

7) 장정의 길, 순충봉공(殉忠奉公) 있을 뿐 - 징병제도실시기념일에 제하여

국민 총돌격의 의기 불타는 가열(苛烈)한 전국(戰局)하에 반도민중은 광영과 감격에 넘치는 징병제 실시기념일을 맞이하여 성전완수의 신념을 한층 굳게 맹세하는 바이다.

작년 8월 1일 반도에 마침내 징병제가 실시되었을 때 우리의 감격, 그 환희는 얼마나 하였었던가. 오랫동안 문약(文弱)에만 흐르던 반도 민중이 용맹하게 황위선양(皇威宣揚)의 총검을 잡게 되는 감격이며, 폐하의 적자(赤子)로서의 자격을 완미(完美)하게 된 감루(感淚) 넘치는 최고 최대의 환희인 것이다.

실로 과거 1년 동안 2천6백만 반도민중은 이 감격과 환희 속에서 살아왔으며 이 영예로운 징병실시의 역사로 하여금 유종의 미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주(集注)하여 온 결과, 반도 장정은 징병검사도 순조로이 진행하여가 만반의 용의(用意)⁹⁸⁾로써 마침내 광영의 첫 입영도 머지 않은 날로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전국(戰局)은 처참가열(悽愴苛烈)을 극(極)하여 더욱 긴박성을 띄우고 있다. 이때에 있어서 입영을 앞둔 반도 장정의 의기는 모든 감격과 환희를 충성의 불덩이로 뭉쳐 폐하의 고굉(股肱)으로서 순

98)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음. 또는 그 마음.

충봉공(殉忠奉公)할 단심(丹心)을 연마함에 용왕매진(勇往邁進)함이 있을 뿐이오. 전 민중은 모든 힘을 다하여 이에 보조를 맞춰 협력하는 각오를 다시 명심하는 바이다.

〈출전 : 「壯丁의 길 殉忠奉公있을 뿐 -徵兵制度實施記念日에 際하여-, 『新時代』 제4권 8호, 1944년 8월 1일, 7쪽〉

7. 『춘추』의 선전 취지

1) 청년조선의 영예 - 자라가는 육군지원병제도

5회째의 입영

청년조선의 영예와 감격의 표상인 육군지원병훈련소에서는 지난 11월 27일에 제5회 수료식을 장엄하게 거행하였고 이번 수료생 1천여 명은 29, 30일 양일(兩日)에 원기왕성하게 각 부대에 입영하였다.

이 지원병제도는 미나미(南) 총독 시정의 대영단(大英斷)과 총후조선의 열성에 의하여 그 성과가 점점 양호하여 가는데 작년도 모집 인원은 3천명이 있음에 대해 응모자 8만 5천명 이라는 초기록을 보였고 그 중에서 2천명을 엄선하여 제1기생으로 1천명을 훈련시킨 것이다. 이 1천명은 4개월 동안 경성부와 양주군(楊洲郡) 노해면(蘆海面)에 있는 지원병훈련소에서 심신 양면으로 맹훈련을 받았고 수료식 당일에는 지축(地軸)도 흔들리게 씩씩한 분열식(分列式)과 목검의 황국신민 체조를 실연하여 청년 조선의 기업을 올리고 동양수호의 신념을 굳게 하였다.

앞으로 이 지원병제도의 더욱 확충이 기대되는데 젊은 건아(健兒)들의 쟁선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원병제도는 어떤 것

조선통치사상 획시기적인 사실의 하나는 육군특별지원병 제도의 실시다. 그러면 이 지원병제도는 대체 어떤 것인가. 여기에 그 개요를 소개하여 앞으로 입소자 혹은 부형들에게 예비지식을 삼고자 한다.

이 지원병제도는 총독부 정치시정 이래 29년 만에 조선 동포의 적성(赤誠)이 표현된 것이므로 연령 17세 이상의 남자로 육군병지원자훈련소를 나온 자를 육군특별지원병으로 하여 제국 육군의 현역 또는 보충 병역에 편입시켜서 군무에 복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원병이 되자면

육군지원병은 만 17세 이상의 남자이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자는 우선 육군병지원자훈련소에 입소시켜서 일정한 훈련을 받게 한다. 입소는 채용 적격자에 대해 각 도청과 조선군에 2차의 전형을 마친 후에 허가한다. 이에 채용하는 적격조건은 연령 만 17세 이상, 신장 155cm 이상으로써 체격

은 갑종(甲種), 또는 제1을종(乙種), 소학교 4년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지조(志操)가 견고하며 가계(家計)가 그다지 곤궁하지 않는 자임을 요한다.

지원병훈련소

이 훈련소는 육군특별지원자에 장래 군대생활상 필요한 예비훈련을 시키는 관립 훈련소로서 경성부 외 양주군(楊州郡) 노해면(蘆海面) 공덕리(孔德里)에 설치되어 있다. 종래 생도를 매년 6월과 12월에 입소시켜서 전후기생(前後期生)으로 나누고 수료와 동시에 전기생(前期生)은 현역 보병에 후기생(後期生)은 보충병으로서 고사포대(高射砲隊), 경중대(輕重隊) 등에 교육 소집시키고 병종(兵種)은 체격과 자질에 의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훈련 기간은 전기 후기가 다 6개월이 있으나 1940년도부터 채용인원을 일약 3천명으로 증가하고 1기 천 명씩 3기에 나누어 훈련시키기로 되었기 때문에 훈련기간, 4개월로 되어 있다.

훈련의 일과

훈련생은 엄숙한 입속식에서 분골(粉骨)하여서 충절을 다하고 훈련에 정려(精勵)할 뜻(旨)의 선서를 마치고 훈련생활에 들어가는데 그 생활은 병영생활과 다름없고 규율있는 단체생활을 통하여 정신의 수련, 육체의 단련을 다하고 다른 날 황국의 군인으로서 완전히 그 임무를 다하도록 지도한다. 규율이 바른 단체생활은 교련에 의하여 훈치되는 것이므로 교련이 중시되는 것은 물론이나 학과도 게을리 하지 않아서 고등소학교 정도를 기준으로 국어⁹⁹⁾의 충실과 정신훈육에 중점을 두고 완전한 황국신민육성을 기하고 있다.

지원병의 최고 오장(伍長) 신정재식(新井在植)군의 영예

본적을 강원도(江原道) 영월군(寧越郡) 상동면(上東面) 녹전리(碌田里)에 둔, 현재 ○○부대 특별지원병 신정재식구명(舊名) : 신재식(辛在植)은 11월 1일부로서 조선에 지원병제가 실시된 후 처음으로 오장(伍長)이 되었다. 동군(同君)은 1920년 7월 29일에 출생하여 향리의 소학교를 졸업 후 가사에 조력하다가 지원병에 지원하여 재작년에 훈련소를 졸업하고 현재에 이르렀다. 재소(再所) 중에는 모범생으로 동료의 존경을 받았고 함경도 □□□□에도 선발되어 일신을 국가에 바쳤던 것이다. 그 가정에는 부모형매(父母兄妹) 9인으로 그 부친도 부락에서 모범인물로 존경을 받고 있다 한다.

〈출전 : 「青年朝鮮의 榮譽 - 자라가는 陸軍志願兵制度 -」, 『春秋』 제2권 新春號 朝鮮春秋社, 1941년 2월, 32~34쪽〉

99) 일본어 실력을 뜻함.

2) 선만일여(鮮滿一如)의 기본방침

선만일여(鮮滿一如)의 이상실현에 한뜻으로 매진하고 있는 미나미(南) 총독은 4월 9일 만주국을 정식으로 방문하고 관동(關東) 매진(梅津)군사령관과 장(張)국무총리와 격의 없는 의견교환을 전후 5차에 걸쳐 행한바 마침내 미나미(南)·매진(梅津)회담의 내용은 지난 22일 만선(滿鮮) 양 당국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이번 회담은 1936년 10월 29일 미나미 총독과의 우에다(植田) 전 군사령관과 도문(圖門)회담에 의하여 수립된 선만일여(鮮滿一如) 방침을 재차 강화 조장한 것으로 그 내용은 선만일여 강화조장책으로써 기본 방침으로 하고 다시 지도요강을 설정한 후 실시방침을 착착 실현하는 삼단계로 된 것이다.

그 중점은 제2. 요강 중 ①과 ④항으로 이는 무엇보다도 주목된 바 미나미(南), 매진(梅津)회담의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회담 내용 전문(全文)

1. 기본방침

동아공영권확립의 근간인 일본·만주·지나 일체의 중추인 일(日)·만(滿) 일덕일심(一德一心)이 국시(國是)에 기반하여 선만일여의 관계를 강화조장하는 데 있다.

2. 지도 요강

① 만선일여의 정신은 제1차 도문 회담 이래 만선간의 국방·행정·경제·산업·교통·무역 등을 조장하여온 성적을 비추어 금후 더욱 이것을 강화 조장 하는 것으로 한다.

② 만주 측에서는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조선통치의 근본 방침을 존중하여 이에 전폭의 협력을 함과 동시에 조선 측에서는 만주국의 일덕일심의 건국정신, 민족협화의 지도를 존중하여 이에 전폭의 협력을 하기로 한다.

③ 일본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만조선인은 황국신민인 본질을 기초로 하고 선량한 만주국 인민인 교양을 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가) 인정, 풍속, 습관이 다른 전통을 급격히 변경하지 않고 점차 선도할 것.

(나) 청소년 훈련, 학교생도의 연성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에 삼투(滲透) 시킬 것

④ 조선과 만주 간에 안건 처리에 있어서는 선만일여 정신에 즉하여 각 문제마다 실제에 즉하도록 협의 해결한 것으로 한다.

⑤ 조선과 만주 간에 상호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다.

⑥ 선동적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반도의 황국신민화에 대하여 방해를 가하고 또 만주국의 민족협화의 지도를 파괴하며 총후 교란을 기도함과 같은 사상의 동향에 대하여서는 엄중히 취체(取締)¹⁰⁰하기로 한다.

100) 단속.

3. 실시 대책

- ① 조선과 만주간의 안건의 현지 처리를 위하여 간담회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적의(適宜)의 조취를 강구할 것.
- ② 전 항목적 달성을 위하여 인사교류에 관하여서도 고려를 할 것.
- ③ 조선과 만주 관공리와 민간 유력자의 상호 실지(實地) 시찰과 격의없는 간담에 의하여 개인적 접촉(接觸)을 될 수 있는 한 많게 하고 현지의 실정에 대하여 상호로 인식을 깊게 할 것.
- ④ 매년 교호(交互)로 조선만주경제 교육 개척 등 각 부문에 공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연대를 도모하고 선만일여의 기본 방침 달성에 유감없도록 할 것.
- ⑤ 상호로 관련 있고 또는 장애에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지체 없이 상호 통보 할 것.

〈출전 : 「鮮滿一如의 基本方針」, 『春秋』 제2권 5호, 1941년 6월〉

3) 조선청년의 나아갈 길, 각계인사의 제언

오늘 전시 하에 있어서 조선청년에 무엇을 기대하는가? 어떤 훈련이 필요하며 무엇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또는 조선 청년에 특별히 부탁할 말은 무엇인가? 여기에 몇 분 선배의 지도 원리를 전하여 조선 청년의 분발을 촉구하는 것이다.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사상을 가지라

연희전문학교장 이동치호(伊東致昊)¹⁰¹⁾

우리 반도청년이 확실히 인식하고 각오할 것은 반도 민중의 운명인 것이다. 이 민중의 운명은 일본 제국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조선청년들에게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은 훈련방면일터인데 이 훈련에 대해서 선결문제는 전도가 양양한 청년으로서 전진할 목표와 방향을 확인하고 우리도 일본 청년들과 같이 살아도 제국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제국을 위하여 죽는다는 확고 부동한 각오와 결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요령이 미정하여 갈팡질팡 방황하는 훈련이 부족한 점을 먼저 우리는 반성하여 확고한 목표를 세운다면 지금까지의 결점은 없어 질 줄 안다. 일본에 가서 유학하는 반도학생이 약 1만 8천여 명이나 된다는데 들리는 소식이 허송세월하여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 경찰 당국에 신세를 끼친다고 하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조선학생들의 소질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표가 미정되어 방황하고 있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 도전(途前) 참으로 인식한다면 확정된

101) 윤치호의 창씨명.

목표 하에 수양은 자연 따라올 것이다. 인간에게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물론하고 훈련에 필요한 것 인즉 석금(昔金)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건전한 사상은 훈련의 표어(標語)라고 해오는 것이다.

이 전시 하에 처한 훈련의 표어도 역시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사상일 터인즉 좀 더 그것을 강조하여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건전한 신체라 하면 보신(保身)만으로 오해하는 이가 있으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제1선에서 분투하는 용사들과 같이 근로하는 정신으로서 어느 방면으로나 막연한 생각만을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실천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 한다. 다시 말하면 신동아 건설에 위반(違反)되는 사상은 청산해야겠다.

예를 들면 민족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향락주의라든지 도개심(盜開心)을 철저히 버리고 즉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기를 바라는 것이며 이상(以上)도 말했지만 우선 확고한 방향과 목표를 세워 방황하지 말고 건전한 심신으로 근로하는 훈련을 하기를 특별 부탁하는 바이다.

명확하고도 정확한 점을 배우라

경성제대 총장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

인간의 각 방면이 인간 그들 길을 지지해 나가는데 다 필요하듯이 각각 자기의 맡은 바 직무 그 직분에 각자가 충실한다는 것은 한 사회를 원활하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부분이나 고저(高低)를 물론하고 다 필요한 것이 하나도 버릴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이 전시 하에 있어서는 기왕에 가지고 있는 눈과 귀가 더 잘 보여야 되고 더 잘 들어야 될 것이겠다. 즉 역할을 더 잘해야 되겠다는데 불과하다. 더욱이 조선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물론 30년 전의 청년과 현재의 청년과는 너무도 차이나는 발전을 보이고 있어서 감탄할 만큼 잘들 하고 있으나 어느 일부를 보면 그저 노라리 식으로 아무 의식도 없이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가끔 호텔 같은데 식사를 하러 가보면 거기 앉아 식사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조선청년들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골프장 같은데도 거의 조선 사람들이 회원이 많으며 자동차를 타지 말자는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톱 타고 다니는 일부의 청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물론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일 터인데 그렇게 자기의 안일과 향락을 위하는 돈이라면 좀 더 의미 있게 쓰는 것이 더 가치 있지 않을까 한다. 무의식적으로 무의미하게 돈을 쓰는 것보다 정 쓸데가 없다면 비행기 만드는데 현금을 한다든지 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사용을 하는 연각(練刻)도 했으면 좋겠다.

때론 대학에서 보면 학과(學科)하던가 여러 방면에는 조선학생들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유머스러운 일은 학교명령으로 삭발(削髮)을 해라 할 것 같으면 일본학생들은 순응하고 있는데 조선학생은 멀지 않아 결혼을 하겠으니 못 깎겠소 하는 등의 구실로 명령에 정정당당히 순응하지 않고 모발 그 물건에 애착을 가지는 경향이 보이는데 물론 이것은 일반 조선청년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의 예를 들어 본 것인데 즉 일본청년들의 명확한 점, 정확한 점에 아직도 좀 못 미치는 점이 있다고 본다. 그런 까닭에 모든 것을 보며 현재 참으로 잘들 해 나가고 있는데 좀 더 의미 있는 세월을 보내며 현재의 노력을 좀 더 강조해 가라고 부탁하고 싶다.

청년의 긍지를 가지고 철한금인(鐵漢金人)이 되라

중동(中東)학교장 최규동(崔奎東)씨 드림

궁지와 정당한 자존심을 가지라.

대체로 요새 청년들을 가만히 보면 문약(文弱)에 흐르고 있는 감이 있다. 우선 신체부터 약하다. 예를 들어 보면 때로 몇 백 명 학생을 세워 놓고 몇 시간 강연을 계속 하려고 하면 졸도하는 학생이 수도룩 하는 것을 보게 되니 몹시 애처로운 일이다. 우선 문약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느낀다. 옛 시에 ‘백련차신성철한(百鍊此身成鐵漢) 삼함기구학금인(三緘其口學金人)’이란 구절이 있는데 즉 백번 단련한 이 몸이 쇠몸을 이루어야겠고 세 번 입을 봉했으니 금으로 만든 사람을 배워야겠다는 것이 이 전시하의 청년에게 주고 싶은 말이다. 백번이라도 신체를 단련하여 쇠같이 강한 몸을 만들어야겠고 입은 함구를 하여서 실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을 가지고서 봉사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조선청년들이여 사내스럽자’는 것이다. 풀이 죽고 어깨가 쳐지지 말고 긍지를 가지고 자기 검토를 자기가 해서 정당하게 솔직하게 자존심을 가지라는 것이다. 야비하고 그 천박한 것 적은 것을 문제시하지 말고 좀 더 큰 것 사내스러운 것에 착안하여 특별히 이 전시 하에 조선청년들은 용기를 가지라고 부탁하고 싶다.

노무(勞務)는 국민의 의무다

국민총력연맹 오천교원(烏川橋源)¹⁰²⁾

재래의 조선청년들에 비하여 최근에 와서는 조선청년들도 훈련방면에 있어서 매우 좋아졌다.

일반 훈련방면에 있어서 사실 감격할 만큼 진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전시 하에 있어서 더욱이 인적자원을 풍부히 가져야할 모든 점으로 보아서 보다 더 규율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시기인 만큼 인고단련(忍苦鍛鍊)의 훈련이 계속 돼서 진보해야 할 것이다. 훈련에 있어서는 일정한 통제와 규율 하에서 첫째 극기의 정신과 둘째 적극적 진보성이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 훈련의 구체적 방면인 실천에 있어서는 종래의 노무(勞務)에 대한 관념을 다소 정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무는 천한 사람 아랫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건강한 사람은 다 노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념을 가져야 되겠다. 흔히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정신과 육체를 그리 분리할 수 없는 상 싶다. 정신노무를 하는 사람도 팽이와 호미를 쥐고 땅을 파보는 육체노동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노무자가 다 되어 버리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공익상 노무를 당할 때는 도피하지 말고 자진해서 충심(衷心)으로 일하는 각오를 해야 되겠다. 노무는 국민으로서의 공민으로서의 의무인 것이다. 일의 종류는 귀천이 구별이 없다. 자진해서 해야 될 것을 각오하는

102) 정교원의 창씨명.

동시에 실천해야 되겠다.

비단(非但) 훈련방면뿐만 아니라 조선청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좀 더 충심으로 진실로 아무 일에도 충심으로 할 것을 부탁해 마지않는 바이다.

〈출전 : 「朝鮮靑年の 나아갈 길, 各界人士의 提言」, 『春秋』 제2권 9호, 1941년 10월〉

4) 병역, 국어, 생산(권두언)

지나사변에서 대동아전쟁으로 동아의 전국이 확대된 후 충용한 제국장병의 분투선투(奮鬪善鬪)에 의하여 연일(連日) 연야(連夜) 혁혁한 전과를 거두어서 그 종국적 목표적인 동아 내지 세계 신질서의 건설이 실현되어 가는 것은 자못 경하스러운 일이며 한편 이 대동아전쟁과 함께 세계 전쟁의 일환(一環)이 이 되어 있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더욱 심각 격렬한 중에서 점차 승리를 얻고 있는 연방 독일과 이탈리아에 대하여 적잖이 감사하는 바이다.

그러나 적 미영은 금일까지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만큼 아직도 상당한 전력, 국력을 가지고 있어 그를 철저히 격멸 굴복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가져온다고 할 수 없는 터이니 동서(東西)에서 일본·독일·이탈리아는 기타 연방과 함께 합심 협력하여 적을 포위하고 혹은 분단(分斷)하고 혹은 제압하여 그들을 격파한 후에 비로소 최후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는 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군관민이 물심양방으로 총동원하여 모든 것을 국가에 바치고 모든 것을 전장에 보내는 길이 있을 뿐이겠다고, 또 현재도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터이지만은 금일 조선이 당면한 긴급한 과제로써 중점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먼저 국어의 보급, 징병제의 취지철저, 생산력의 확충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 국가의 국력과 전력(戰力)은 그 국민의 지식과 기능에 비례되는 만큼 국민의 교육보급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원칙론이 되겠거니와 동일한 국민으로서 그 국어를 해득(解得)하여야 하겠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현금 조선에는 아직도 초등 교육이 보급되지 못한 관계로 전 인구의 약 70%가 문맹이요, 80% 이상이 국어를 해득하지 못할 터이니 앞으로의 학령 아동의 국어해득은 머지않아 실시되는 의무교육으로 해소될 문제이거나 취학의 기회를 놓친 성인층의 국어해득은 위정당국의 권도적(權度的) 시책과 각자의 자진한 수습(修習)에 의하여 적어도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문맹을 하루 속히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 국어보급은 징병제의 전제도 되는 것이니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고서 어찌 영예스러운 제국의 군인이 될 수 있으랴. 우리가 대망하던 조선의 징병제도 드디어 오는 해부터 실시되게 되었으니 1944년이야말로 역사에 빛나는 영광스러운 해다.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한 해 앞두고 그에 대한 각오와 준비가 철저하여 모처럼 실시되는 징병제를 더욱 빛나게 하여야 할 것을

다 명심하여야 하겠다. 무릇 병역이라는 것은 국민된 자의 의무요, 또 가장 광영스러운 일인데 이런 의무와 광영이 조선 동포에도 돌아오게 된 것은 오직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지를 받자온 것이니 이 성운에 보답하는 길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또 튼튼히 하여 병역에 복무함으로써 충용을 다하는 것 뿐이다. 조선에는 오랫동안 병역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부모들은 병역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있을지 모르나 이들은 먼저 숭고한 병역의 의무를 깨닫고 각 가정마다 건병건민(健兵健民)을 육성할 것이며 더구나 병(兵)에 징집될 자는 진충보국(盡忠報國)에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전선(前線)의 장병들은 나무 열매를 따고 풀뿌리를 뜯어서 적어도 독이 들지 않은 물건이면 다 주워서 굶주림을 견디고 해수(海水)를 마셔서 염기(鹽氣)를 취하였다. 또 용수(榕樹)¹⁰³에다 총검을 찔러서 혹은 '정굴'의 갈(葛)¹⁰⁴을 군도로 끊어서 거기서 나오는 물로서 목을 축이고 여러 주야(晝夜)를 보낸 사람도 있다.

이것은 지난 2월 10일 의회에서 보고한 남태평양 작전경과의 1절이다. 전선장병의 신고(辛苦)가 이리 하거늘 충후에 있는 자 온갖 물자를 절약하려니와 온갖 생산에 힘써서 한 개의 무기와 한 가지의 군수품이라도 더 만들어서 전선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전쟁에서는 장병의 충용한 정신력이 근원이 되지만은 이 정신력을 충분히 발휘함에는 경제력도 그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도조(東條)내각 총리대신은 진두(陳頭)에 서서 초중점의 결전경제체제를 강화하고 실시에 옮기고 있으며 고이소(小磯) 총독도 부임 이래 각 부문의 생산력 확충을 강조하고 벌써 각종 시책을 단행하고 있는 터이다. 돌아보면 조선에는 농(農)·공(工)·광(鑛)·수산(水産)·임업(林業)의 자원이 풍부도 하려니와 작금 근대적 개발에 의하여 약진적으로 발달되어 가는 터이니 여기에 인적 자원을 동원하여 전시생활에 필요한 생산증강에 나아간다면 세계에 부를 자랑하던 미영(米英)도 굴복하고 말 것이다. 바라건대 지금에 국민된 자 전선장병의 신고를 생각하고 이 중대 시국을 돌파하여 미영의 야망을 중도에 파쇄(破碎)하고 세계의 신질서가 건설되는 날이 하루라도 속히 오기를 기약하여야 하겠다.

〈출전 : 「兵役 國語, 生産(卷頭言), 『春秋』 제4권 3호, 朝鮮春秋社, 1943년 3월, 16~17쪽〉

5) 학도의 출진에 입하여(권두언)

조선에도 내년도부터 징병제를 실시한다는 시정사상(施政史上) 획기적 법령이 발표되자, 이 땅의 방방곡곡에 감격의 물결은 넘쳐 흐른 것이 이미 오래된 일이다. 제국 국민인 조선청년으로서 '추(醜)한 방패(御楯)'가 되지 못함은 천추의 한일 터인데 징병제 실시로 말미암아 무상(無常)의 영광에 욕(浴)할

103) 뽕나무과에 속하는 아열대성 낙엽 교목.

104) 칙을 말함.

수 있음은 물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귀중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다는 이 위대하고도 엄연(儼然)한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였던가. 이 감격이 그칠 줄 모르는 중에 다시 특별지원병제실시로 인하여 징병적령에 벗어나 이 광영에 욕(浴)할 기회가 없던 우리 학도들까지 출진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영광의 균점이라고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우일지 모르나 현재 학업에 정진하고 있다는 데에 미련을 두고 주저준순(躊躇浚巡)하는 학부형과 학도가 혹은 있을까 두려워하는 바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국민으로서 민족으로서 생을 영위하고 또한 확고(擴古)의 우리 이상인 팔굉일우(八紘一宇),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위해서는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싸움의 승리자가 되자, 매일 보도되는 전승보(戰勝報)에만 도취되어 일 각이라도 방심을 해서는 아니 된다. 학문과 개인의 행복도 국가와 민족이 건전유지 되고서야 비로소 운운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학업을 일시 버리기는 하나 후일 위대한 승리자로서 다시 책상을 대할 때의 감격과 환희를 지금 상상이라도 해보라. 어찌 용약(勇躍)지원의 굳은 결의가 용솟음치지 아니할 것인가. 그리고 부모된 사람으로서도 자기 아들이 국가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는 인생의 최대의 의무와 영광을 수행했다는 것과 이러한 국민총동원의 결정(結晶)으로 우리 민족의 생활권이 확립되고 세계의 지도자가 될 것을 생각해 보라. 어찌 내 아들을 전진에 세우기를 주저할 것인가. “이 어버이에 이 아들” 얼마나 아름다운 사실이나.

특별지원병제의 취지를 이해하는 자 미련을 가질 리 없을 것을 확신하고 학도의 총진군보(總進軍譜)가 고막(鼓膜)을 울릴 날을 기다리는 바다.

〈출전 : 「學徒의 出陳에 立하여(卷頭言)」, 『春秋』 제4권 10호, 1943년 11월, 19쪽〉

6) 학도의 총 출진보

10억 민족의 신망(信望)을 지고

경성제대 山南知資

세계를 황화(皇化)하려는 것이 일본의 이상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모조리 황화하려면 송고한 황군의 실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적 미영(米英)은 병력의 충실과 무기의 확충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압하고 격쇄(擊碎)함은 세계 황화를 위한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지난 10월 2일에 학도들에게도 동원령은 내렸습니다. 법문계(法文系)의 일본인 학도는 전부 전열(戰列)에 달리고 있는데 어찌 우리들만이 그대로 학원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들도 특별지원병이 되어 동아시아 민족 10억의 절실한 신망을 지고 세계의 결전장에 뛰어 나설 날은 왔습니다. 오랫동안 짐승과 같이 취급 받아 오던 동아 모든 민족을 미영(米英)의 구속으로부터 해방하고 다시 그들과 손을 마주 잡고 나설 날은 왔습니다. 우리들의 나갈 길은 명확합니다. 세계의 결전장을 향하여!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실현

경성 법전(法專) 夏山正義

현재 나의 형이 황군의 일원으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집에 남아서 늙은 부모나 도우면서 집일을 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은 이제 맹렬한 반공작전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戰局)은 더욱 중대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자기 한 개인이나 한 가족에 고착하여 운운할 때는 아닙니다. 오직 전쟁 목적을 위하여 총을 잡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내선일체(內鮮一體)는 애국심과 도의심(道義心)에서 우러나서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현하기에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동아전쟁에 있어서도 내선일체가 되어 적 미영(米英)을 격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적 격멸을 위하여 내지인 학생들과 같이 총을 잡고 제1선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하여 이 성업을 완수하면 내선일체는 자연스럽게 실현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정심(征心)은 철석(鐵石)과 같다

보성전문 松原寬

지금 일본 출신 장년학도들은 읽던 책을 접어놓고 일제히 군문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히 바라지도 못하고 있던 영예의 출진 명령이 뜻밖에 우리들 반도 학도들에게도 내린 것입니다.

우리들 앞에도 오랫동안 장 속 깊이 간혀 있던 날 짐승 앞에 무한히 큰 대공(大空)이 열리는 듯이 눈부신 재생의 길이 열렸거늘 무엇 때문에 한시각인들 주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할아버지는 방에서 돌아갔었지만 나는 소년 항공병이 되어서 하늘에서 죽겠습니다.’ 이것은 열 세 살 먹은 손자가 할아버지의 장례 때에 한 말입니다. 중대한 결전의 모습은 이런 순진한 동심에까지 철석과 같은 결의를 갖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철모르는 어린이 말 가운데서 우리들은 무엇을 느끼는가. 우리들이 출진할 때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부모님의 자애(慈愛)이며 조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외아들인 나로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어머니는 평시에도 아들이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차마 막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조국을 위하여 전장으로 가는 중대한 길을 어찌 막을 수가 있으랴. 나는 주저 없이 외칩니다. 우리들이 갈 길은 오직 하나 정전(征戰)의 대도(大道)뿐입니다.

방관은 불허(不許)

연희전문 松江嘉城

마침내 우리가 일어설 날은 왔습니다. 꺾연(蹶然)히 일어서서 세계 창조의 대 사명을 완수할 날이 왔

습니다. 우리는 현재 용약(勇躍) 교문을 등지고 성전(聖戰)의 제1선으로 달려가 뚫어오르는 젊은 피로 대지를 붉게 물들이며 귀축 미영(米英)을 마음껏 무찔러 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41년 12월 8일 선전(宣戰) 대조(大詔)가 환발(渙發)¹⁰⁵⁾된 이래 충용하기 짝이 없는 황군장병의 용전분투(勇戰奮鬪)로 대동아건설은 바야흐로 이루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도 적입니다. 그들은 물자와 생산력을 믿고 온갖 힘을 다 기울여 총 반공(反攻)을 꾀하여 이제야 남쪽 전선에는 처참가열(悽愴苛烈)한 결전이 벌어지고 있음은 여러분이 다 아는 바와 같습니다. 세계 신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1억 국민이 3천년의 빛나는 역사를 걸고 싸움을 하고 있는 이때 우리들 반도의 학도들만이 오직 적령기를 지났다든 그 한 가지 이유로 한가로이 방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분연히 쫓기할 때가 왔습니다. 특별 지원병임시채용규칙발포에 따라 우리도 일본 학우들과 함께 황군의 한 사람으로서 용맹히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씩씩하게 전선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창조하자

혜화전문 武山忠治

황기(皇紀) 2603년 10월 20일 마침내 우리들의 앞에는 새로운 여명의 날이 왔습니다. 학도 임시특별 지원병령! 조국을 위하여 나를 바칠 새 날이 온 것입니다. 역이란 배우는 것이 아니고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힘차게 역사를 창조할 황국의 용감한 청년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환경에 얽매인다는 것은 우리들의 죽음보다 몇 만 배 부끄러운 치욕입니다. 대동아전쟁은 엄숙하기 그지없는 대현실입니다. 우리는 청년의 힘찬 투지로 어디까지나 이 현실을 뚫고 나가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세계에는 이르는 곳마다 청년들이 조국을 위하여 총과 칼을 잡고 싸움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반도학도들도 빨리 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총 자루를 힘있게 잡아 숙적 미영(米英)의 귀축(鬼畜)과 같은 심장을 마음껏 찢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후배에게 수범(垂範)할 때

명륜전문 岩本壯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비상시국 아래 나라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 말을 할 것도 없이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싸우고 또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감정의 동물입니다. 굳게 결심을 하고서도 자칫하면 약한 인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아직도 결심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선에도 『삼국사기(三國史記)』를 보면 용감한 명장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들 용감한 조상들의 피를 받아

105) 임금의 명령을 세상에 널리 알리던 일.

왔습니다. 그 증거로 이미 수많은 지원병들이 제1선에서 터럭 같이 가볍게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 가운데 흐르는 용감한 피로써 후배에게 모범을 보이며 성전의 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성은 드디어 출진케 되었다

성대 예과 柳井哲

나는 지난 명치가절(明治佳節)의 3일을 기하여 육군특별지원병 임시채용에 황군의 한사람으로서 전열에 끼여주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일본의 학우들이 징병연기가 폐지됨으로 지금까지 연마하던 학업을 던지고 순국(殉國)에 불타는 열성으로서 출진하려고 합니다. 이제 출진하는 일본인의 형들에 끼어서 지금까지 책상을 마주 놓고 형설(螢雪)의 길을 닦던 우리 반도인 학도들은 이 전진에 참가할 수 없게 되어 밤낮으로 비판하고 있던 바 이제야 우리들도 손을 마주잡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동아전쟁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빨리 귀축(鬼畜) 미영(米英)을 격멸해 버리는데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영미격멸에 총출진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출전 : 「學徒의 總出陣譜」, 『春秋』 제4권 10호, 1943년 11월, 20~23쪽〉

7) 최남선(崔南善), ‘성전(聖戰)’의식에의 투철

거국취진(擧國就陣)의 선두로 청년학도의 연신(挺身)을 보게 되었다. 진실로 당연한 의무요, 두 번 없을 번듯한 걸음이지마는 이것이 일사(一死)를 필정(必定)하는 일이고, 젊은이 특유의 생활의욕에 대한 적극적 제약인 만큼 일변의 대오(大悟)에 이르기 갖기에는 말 못할 고뇌를 치르는 것이 사실인 양하다. 말하기 어려운 이 고뇌를 몰래 하소연 하러 오는 청년을 많이 만나 보고서 한 가지 고개를 숙이고 어설프게나마 손목을 잡아끄는 것이 근래의 일사무(一事務)이다.

진심의 비오(秘奧)를 피력하는 말인 만큼 다만 형식적 관념론으로써 임할 수 없음은 물론이요, 더욱 이론과 주의로부터 오는 심각한 갈등에는 우리의 둔도(鈍刀)로써 결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찍 신라(新羅) 석일(昔日)의 국민동원강행기에 당시의 청년심리를 대표하였다 할 귀산(貴山), 추항(籌項) 두 사람이 일세의 고덕(高德)인 원광법사(圓光法師)에게 가서 이에 대한 필요를 물었을 때 법사가 세속오계(世俗五戒)를 말하고 특히 ‘임전무퇴(臨戰無退)’ 일조를 강조함에 시대 청년의 심저(心底)가 이에 일침에 탁 터져서 아무 지의(遲疑)도 없이 제시광난(濟時匡難)의 대업으로 치진(馳進)하였다. 뒤에 보면 ‘임전무퇴(臨戰無退)’라는 그 구어가 진실로 평범하여 기이한 것 없지마는 당시 청년들에 대한 ‘막망상(莫妄想)’의 통봉(痛棒)¹⁰⁶으로는 이보다 더 적절한 것이 없었던 것이다.

청년학도가 와서 문의하는 조목은 다종다양(多種多樣)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종합하여 보면 시국의 진상(眞想)에 대한 의식분열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이 나의 죽을 때냐, 죽을 일이나, 일체를 다 바치고 선선히 눈을 감을 절대경이나 아니냐에 대한 미혹이 그네들의 가슴을 혼란시키고 있음을 간취(看取)할 수 있다.

비교적 죽음에 대한 외포(畏怖)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죽음에는 양심적 만족을 가져야 하겠다는 의념(意念)이 매우 강렬하다. 일사를 결정하는 마당에 '죽는 보람'을 요량(料量)해 봄은 생명의식의 엄숙한 표적으로서 그것을 칭양(稱揚)은 할지라도 결코 비의(非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까지 훈련 또 제시(提撕)에는 이 점에 있어서 꽤 큰 소홀이 있지 아니하였는가를 생각하게 함이 있다.

나는 그네들에게 대하여 임시(臨時) 임시(臨時)하여 다소의 광설(廣舌)을 허비하기는 하지마는 주로 그 행동의 양심성을 감발(感發)하자면 영혼의 어느 모를 어떻게 따라야 할까를 생각하였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子)가 '성전(聖戰)' 의의를 투철시킴에 있었음을 알았다. 성전이란 말은 유행어가 되다시피 상기되지마는 선전대상 된 이들의 이에 대한 감수(感受) 실적은 그리 명백하지 못한 혐(嫌)이 있다. '성전(聖戰)'임을 용인하지 못함에 온갖 미장(迷障)이 나는 것이니까 이 점을 일□ 맹괄(一□猛刮)함이 물론 가장 유효한 대증□(對症□)이었다.

만주사변(滿洲事變)으로부터 지나사변 내지 대동아전쟁의 일련적 전개는 진실로 '당유불능무(當有不能無)'의 역사적 귀추(歸趨)요, 바꿔 말하면 곧 절대한 천명(天命)의 밖에는 없다. 고금(古今)의 온갖 인연적 약속이 겹치고 쌓여서 마침내 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것이다. 그런데 이 계기를 가지고 세계 역사의 합리적 전환이 행하려 하며 대동아의 해방이 실현되려 하며 인류의 생활이 도의(道義)의 위에 건설되려 하며 신황(神皇)의 대도(大道)가 팔굉(八紘)에 광피(光被)되려 하나니 이러한 것을 '성전(聖戰)'이라 이르지 아니하면 다시 무엇이라 일컬으랴. 그야 순연(順緣)으로 이름 받는 이도 있고 역연(逆緣)으로 이를 당하는 이도 있어서 '□계감촉(□際感觸)이 각기 달라 서로 같지 못함(各異不相同)'을 면할 수 없지마는 세계의 일물(一物)치고 이 성전의 대파(大波)에 혼동(掀動)되지 아니할 것이 없고 마침내 결과에 함욕(涵浴)하지 안할 자가 없을 줄을 깨달으면 누구든지 이를 순응하고 이를 협동하는 이외의 다른 일이 무엇이라.

원래 천운(天運)과 공리(公理)와 대세(大勢)의 외에 따라 각 개의 자유란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운(運)과 리(理)와 세(勢)일진대 이 앞에서는 각 개적 이유로써 하는 반항이 절대로 허락되지 아니한다. 오늘 날 대동아인으로서 이 성전에 참가함은 대운(大運)중의 대운(大運)임이 다시 의심 없다. 어떻게든지 참가하고자 마는 최후 명령을 받으면 천하에 이 이상의 우망(愚妄)이 다시없을 것이다.

한 청년이 1-2뿐 아니었다. '성전(聖戰)이다' 하는 일념과 함께 대장부의 의기를 나타낼 때가 시방이다 하는 결심을 그대의 미우(眉宇)에 볼 때에 눈에서 더운 물이 솟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새삼스레 '성전 막의(聖戰莫疑)'의 일구(一句)를 제거(提舉)하면서 아울러 옛 원광법사의 '임전무퇴(臨戰無退)'의 4자까지를 진두(陳頭)의 청년학도에게 선물하고 싶다.

〈출전 : 崔南善, 「聖戰意識에의 透徹(出陣하는 靑年學徒에 告함)」, 『春秋』 제4권 11호, 1943년 12월, 19~20쪽〉

106) 좌선할 때 쓰는 방망이. 스승이 마음의 안정을 잡지 못하는 사람을 징벌하는 데 쓰는 방망이.

8) 오무라 겐조(大村謙三), 징병과 지원병

1. 역사적 필연적 숙명

고이소(小磯)총재는 지난 8월 1일 조선 징병제 실시에 즈음하여 반도 청년 일반의 분기를 요망하는 그 열렬한 방송 중에서 “내선은 ‘동근동조(同根同祖)’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면 옛날부터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누구나 아는 스사노노미코토(素戔鳴尊)가 아들인 이타케루노미코토(五十猛命)와 함께 신라의 소시모리(曾尸茂梨)¹⁰⁷⁾로 간 이야기¹⁰⁸⁾라든가, 이즈모(出雲)의 구니히키(國引) 전설¹⁰⁹⁾, 또 조선 측에서 이야기하자면 신라 제3대의 탈해왕과 재상 호공(瓠公)이 내지로부터 도래한 사람이라는 정설 그 밖에 신대 이후 내선 간에 공통된 각종 전설을 비롯하여 아직도 남은 풍속, 말, 체질, 지하에서 발굴되는 유물 등을 종합해서 생각할 때, 내선 동근동조설이 상당히 강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늘날의 상식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상대에는 그 경륜이 조선에 미쳤던 것, 또 삼한의 귀화민이 줄줄이 계속해서 내지의 황민이 되어 긴키(近畿)지방 명족의 약 3분의 1을 이들이 차지하고, 동국지방으로도 왕성하게 식민되었다는 것 등은 역사상 명백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세 이후 조선이 많은 대륙 정정의 영향하에 처하면서 이렇듯 밀접했던 내선관계가 메이지(明治)에 이르는 6, 7백년 사이에 희박해 질 수밖에 없었던 결과, 마치 전혀 다른 민족인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민족이나 문화가 그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외관 내용이 어떻게 변해 가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알고 오늘의 조선을 대하면, 1910년 메이지천황의 천황의 계책에 의해 이루어진 한국병합이라는 것은 완전히 부자연스럽게 떨어져 있던 두 나라가 원래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환원되어 일체가 된 것으로, 이것은 바로 진의에서 출발하여 하늘의 뜻에 따라 역사가 필연적인 숙명의 귀결에 도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시국 하에서 조선 동포의 왕성한 의욕을 반영하여 일시동인의 성지에 따라 징병제가 실시되는 것에도 또한 분명히 신의 뜻이 작용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바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역사에 나타난 내선 동근동조의 사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예를 들면 스이닌(垂仁)천황대에 대가라국(지금의 경상북도 고령군)에 국호를 미마나(任那)로 하여 일본 부를 두고 많은 일본인이 관리로서 미마나국에 들어와 그 땅에 오래 거주하고 있었다든가, 또 오진(應神)천황대에 백제로부터 아직기, 왕인 두 박사가 내지로 건너와 조정에 논어와 천자문을 바치고 한학 전래의 유래를 만들어 자자손손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사실을 돌이켜 보면, 내선인의 선조는 결국 같으며 전혀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 진다.

그러므로 우리 조선인이 가진 그 피 속에는 내지인의 혈조가 흐르고 있으며, 내지인의 피 속에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조선인의 혈조가 흐르고 있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의 사실로

107) 일본 측에서는 서라벌로 추정.

108) “일본서기”.

109) “이즈모(出雲) 풍토기”에 나오는 이야기로 신라의 여분의 땅을 끌어와 이어 붙였다는 전설.

관찰하면 내선의 융합은 상고 2천년의 옛날부터 완성되어 있던 것이지 오늘에 이르러 내선일체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까의 방송 요지에도 있듯이 덴치(天智)천황 이래 메이지 초년에 이르기까지 피아의 친밀은 단절되면서 조선은 그 사이에 지나의 세력 하에 들어가 오랫동안 대륙문화에 지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극히 최근까지 내선 사이는 전혀 생소한 타인처럼 생각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징병제 실시를 계기로 하여 내선 불가분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매우 깊이 반성하여 옛날의 친밀한 관계로 환원된 것은 우리 모두가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내선은 같은 정을 받아 태어난 형제 동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징병제 실시의 의의도 여기에 있다.

2. 반도는 원래 문약하지 않았다

또 고이소 총재는 같은 날 방송에서 “조정외의 방패, 국가의 간성이 되는 경우에 다만 한 가지 식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 전통 중에 상무의 기풍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즉 조선의 역사와 전통 중에서 특히 이조기 오백년간은 유교를 국교로 삼은 관계로 유명한 석학이 나타나 문교가 흥했던 반면에, 사람들은 서서히 문약의 폐단에 빠져 ‘사적 쟁투에는 용감하지만 공직에는 비겁하다’라고 평해지는 습성에 길들여지고, 또 지나의 ‘좋은 철은 못은 되지 않고, 어진 사나이는 병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식으로 병을 멸시하는 관념이 유교를 통해서 조선 사회에 전해져서, 우리나라의 빛나는 국민개병의 본지를 과연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하여 우리도 일단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의 동향을 검토해 보면 과연 내선동원이라 불리는 피의 흐름에 수긍되는 점이 있습니다. 옛날 신라 청년들도 내지인과 마찬가지로 대군시대에는 화랑도라는 것이 있어서, 마치 내지의 무사도와 같이 사직을 지키는 청년자제가 문무의 도를 힘써 연성하고 이에 힘을 쏟은 적이 있었다는 것을 돌이켜 보고, 조선인이 반드시 문약만을 전통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긍지를 가지고 징병제를 맞이하려는 청년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조선도 삼국시대 이전에는 그 세가 왕성하여 반도로부터 대륙지방에까지 무위를 떨친 사적도 있어서 결코 문약이 그 진정한 전통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 과거 5년간 실시해온 지원병제도의 성적으로부터도 엿볼 수 있어서, 혹은 높고 큰 중심을 향해서 자신을 귀일하고 온몸의 감격으로써 일에 임하는 경우 조선인 청년도 역시 당당하게 사지를 밟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훌륭한 무사로서의 본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반도는 이조 오백년간 문약정치의 전통을 이어받아 일반 사회에서도 ‘못 먹는 자가 병(兵)이 된다’라든가 ‘병(兵)은 인간쓰레기’라는 등으로 병역을 무턱대고 멸시하는 사상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이조시대의 병(兵)은 거의 최하급 층의 인간들뿐이었고 양가 자제들은 □□로 병(兵)이 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대저 당시를 조용히 관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생각도 무리가 아니다. 조정에서는 평화가 오래 계속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유교를 극도로 장려했다. 그 때문에 문예는 왕성하게 번성하고 여러 방면에서 석학들이 봉기했으며, 특히 ‘과거’라는 시험제도를 창설하여 문에 뛰어난 자에 한하여 국가의 관리로서 이를 등용했기 때문에, 민중은 자연스러운 추세로 문에 열광적인 노력을 기울여 부지불식간에 무

는 내버려져 돌아보지 않게 된 것이다. 또 이를 돌아보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무인을 멸시하고 천시했던 것이다. 그래서 무를 직으로 삼았던 병사들은 당세에는 뜻을 얻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어찌 할 바를 모른 끝에 살기 위해서 약탈, 강도, 협박 등을 자행하면서 양민을 괴롭혀 이로 인해서 사회 질서는 어지러워졌다. 즉 병(兵)이 도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따라서 양민들의 병(兵)에 대한 공포심도 크고 병(兵)을 보기를 마치 승냥이나 늑대와 같이 멸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병(兵)을 멸시하는 기운은 이때 처음으로 반도 사회에 일어난 것이다. 병(兵)은 즉 도적이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양가의 자식은 결코 병(兵)이 되지 않는’ 풍습이 생겼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무적 기상은 결코 반도인의 소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지도성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지당할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반도에도 많은 상무적 사실이 역사에 확실히 나타나 있다. 삼국시대 당과 신라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국력이 점차 쇠퇴해 가던 백제는 아베노히라후(阿倍比羅夫)¹¹⁰⁾가 이끄는 일본 원군과 협력하여 당군과 하쿠손코(白村江)¹¹¹⁾에서 자웅을 결했으나 패배, 백제는 결국 성문을 열고 적에게 항복했다. 그 때 적병으로부터 오욕을 받을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 백제의 삼천 궁녀들은 새하얀 조선 버선을 신은 채 자작나무 무성한 낙화암의 정상에 서서 차례차례로 백마강에 몸을 던져 한 줄기의 물거품과 함께 사라졌다. 이 순결하고도 고상한 궁녀들의 죽음이야 말로 전통을 자랑하는 일본의 아이즈(會津)의 부인들에 비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즈의 부인들도 적이 성하로 공격해 들어오자 모든 가족 일동이 백의로 갈아입고 불전에 모여 자살했다. 조선 부인들도 이미 오랜 옛날부터 일본 부인이 지녔던 훌륭한 상무적 소질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조시대의 태조대왕은 어릴 적부터 무에 뛰어나 활의 명인으로 성망이 높았다. 점점 자라면서 그 상무적 기상은 여지없이 발휘되어 결국 고려조정에 발탁되면서 사방에서 일어나는 동란을 진정시키고 또 북방의 만주족 및 도이(刀伊)¹¹²⁾의 침입을 막았으며 한 때는 세력을 북방에까지 신장시킨 일조자 있다.

또 극히 최근의 예를 들자면 제일선에서 활약한 지원병들의 무용이다. 이미 이인석(李仁錫), 이향수(李享洙) 두 상등병의 혁혁한 무훈은 모두 잘 알고 있는데, 이인석 상등병은 내가 일찍이 북지 산서전선에 출정했을 때 같은 중대 계다가 같은 소대에 있던 둘도 없는 전우였다. 우리 소대가 산서의 절이 있던 고지에서 적의 우세한 습격을 받았는데, 적이 던진 수류탄 파편에 사망자가 속출하고 피아의 총포 소리가 시끄러운 가운데 우리가 늠름한 용기를 떨쳐 일으켜 처절한 전투의식과 열렬한 적개심으로 가슴을 꿰고 있을 때, 이인석 상등병도 혼신의 용기를 떨쳐 적과 맞대결을 연출하며 분전하고 있었다.

“이인석! 위험하다. 머리를 숙여라.”

미야케(三宅) 분대장이 부르는 비장한 소리가 들렸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 자식 죽여 버리겠어.”

하면서 총신이 녹을 정도로 사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 때 적이 던진 수류탄 소리는 비할 바 없이 처절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수류탄이 파열하는 소리라기보다도 절이 있던 고지 전체가 화약고로 되어 있어

110) 원문에는 阿曇比羅夫로 되어 있으나 이는 아베노히라후(阿倍比羅夫)와 아즈미노히라후(安曇比羅夫)를 혼동해서 쓴 것으로 보이며, 일본 측 기록을 따르면 당시 왜군을 이끌고 있던 지휘관은 아베노히라후였다.

111) 현재의 금강 근교.

112) 고려시대에, 지금의 중국 헤이룽장성과 러시아 연해주 근방을 점거하던 여진족.

서 그 화약고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듯한 큰 굉음이었다. 결국 이인석군은 수류탄 파편에 좌대퇴부 부상을 당해 장렬귀신도 올게 할 정도로 훌륭하게 전사했는데, 굉음, 신음 소리, 병사들이 쉴 새 없이 들락날락하는 아비규환 속에서 용맹 과감, 목숨이 계속하는 한 적과 교전한 이군의 그 무사다움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이군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바야흐로 최후의 호흡을 거두려 할 때 곁에 있던 당시 중대장인 다케하나(竹鼻)대위님이 이군을 꼭 껴안고

“상처는 깊지 않다. 정신 차려라.”

하고 격려하자

“예, 괜찮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체념한 중대장님은

“뭔가 남길 말은 없는가?”

하고 물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전장에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아 성전의 중도에 죽는 것이 무엇보다도 유감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완전히 기절해서 인사불성이 되어 버렸다. 잠시 지나서 창백해진 양 눈을 뜨고 고통을 참으면서 용기를 고무하여 혼신의 힘을 내서

“천황폐하 만세”

라고 외쳤다. 물론 그 소리는 모기가 우는 정도의 작은 소리였다. 그러나 죽어가던 이군으로서는 온 힘을 다해 소리를 내어 외쳤음에 틀림없었다. 생사지경을 넘나들면서 낸 이 외침이야말로 삼천년의 전통을 이어온 우리 일본 군인의 최후를 장식하는 외침이었다. 이인석 상등병이야말로 순충지성(純忠至誠)하고 용감한 병사였다.

이외에도 지원병들의 수많은 무용담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진남(晉南)숙청전에 참가하여 여러 산하의 싸움터를 전전하며 혁혁한 무훈을 세운 전남 담양군 출신의 김용주(金容柱) 같은 이는 중상을 입고도 굴하지 않고 최후까지 부대와 함께 싸웠다. 중대장이

“그런 몸으로는 안 된다. 야전병원으로 물러나라.”

라고 권해도 전혀 듣지 않고

“상처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후방에 물러나면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힘을 내어 몰려오는 적병과, 계속 내리는 진남의 호우와, 그리고 진흙의 바다와 싸우면서 수 백리 산길을 괴로운 가운데에서도 진군을 계속하면서 상처를 치료했다고 한다.

또 살아서 금치훈장을 받은 백승길(白承吉)(송원승길(松原承吉)), 장송주(張松冑)(동원휘선(東原輝善)) 양군을 비롯하여 비록 금치훈장은 받지 못했지만 훌륭한 무훈을 세워 명예로운 상이군인이 된 심봉환(沈鳳煥)(전남 장흥군 출신), 반병석(潘柄錫)(충북 음성군 출신), 오정식(吳丁植)(충북 영동군 출신) 등의 지원병들은 포연 가득한 전장에서 적진을 탈취하거나 침병으로서 척후 임무를 완수하여 우리 주력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었으며, 혹은 기습 작전에 참가하여 적에게 섬멸적 타격을 주는 등 용전분투하여 훌륭한 공적을 남겼다.

이는 주로 현저한 것을 예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전장에서 활약한 지원병들 모두가 곤고결핍(困苦缺乏)을 견디면서 끝까지 잘 싸워 왔다. 우리 중에서 비겁하고 미련을 남긴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것은 필경 내선동원에 의한 상무적 소질이 반도 청년의 그 혈조 속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인은 반드시 문약하지는 않다'는 것을 사실로써 명백히 증명할 수 있다. 뜨거운 피가 끓는 젊은 반도 장정들은 지금이야말로 어떤 올바른 지도하에 스스로를 귀일하고 하나의 고상하고 커다란 목표를 향해서 고유의 상무적 기상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3. 병역은 국민의 숭고하고 지순한 최대의 의무

황군은 신병(神兵)이다. 왜냐하면 천황 친솔 하에 세계의 부정을 징계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의를 옹호하여 국위를 안팎에 떨쳐 팔굉일우의 대정신을 현현하기 위해 신의에 따라 생긴 군대이기 때문이다.

황군은 외국 군대와 같이 민권주의 혹은 물질주의를 중심으로 편성된 것과는 근본적으로 그 취지를 달리 하고 있다. 그들은 대군을 위해, 조국을 위해 신명을 바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의무 관념에 사로잡혀 어쩔 수 없이 싸우고 있는 것이다. 약한 적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강하지만 일단 이빨이 먹히지 않는 강력한 적에 부딪히면 또한 터무니없이 약하다. 그들은 전장에서도 좀 위험하다 싶으면 포기해 버리고 백기를 들거나 또는 양손을 들어 아무렇지도 않게 추태를 청천에 드러내며 투항해 온다. 그리고 이를 치욕이라고 생각하기는커녕 '할 수 있는 데까지 했다. 이 이상은 어쩔 수 없다'고 당연하게 생각한다. 우리로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병역은 군신일체의 아름다운 우리 국체를 연원으로 하고 있어서 위로는 천황을 우두머리로 받들고 밑으로는 일개 병졸에 이르기까지 맥락을 일관하여 폐하의 고굉(股肱)으로서 전 심혼을 기울여 국방의 대임에 임해왔다. 따라서 거기에는 공격 전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배개를 나란히 하여 모두 죽든지 두 가지 길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황군의 전통적인 위대함이며 다른 모든 외국의 군대와 다른 점이다.

바다에 가면 물에 잠기고 시산(屍山)에 가면 잡초 무성한 시체
대군의 곁에서 죽으리 결코 뒤돌아보지 않으리

이와 같이 건국 당초부터 일본 병사는 모든 것을 대원수 폐하에게 바치고 한 번 죽어 군국에 몸을 바칠 각오로 봉공의 성을 다했기 때문에 유사 이래의 외전에 필승 불패의 영예를 오늘날까지 이어 왔다. 이와 같은 영예 드높은 황군의 일원으로 가담하여 국방 일선에서 일하는 것은 청년의 최대의 영광이며 꽃이다. 이 선발에서 빠지는 것은 최대의 치욕이며 국민으로서 그 이상 불명예는 또 없을 것이다. 군인에게 내리신 칙유 중에도

“짐은 너희 군인의 대원수이다. 그러므로 짐은 너희를 고굉으로 의지하고 너희는 짐을 우두머리로 받들으므로 그 친밀함은 특히 깊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계셨으며 또,

“우리나라의 존엄함 위세를 떨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너희는 짐과 그 근심을 함께 하라. 우리의

무가 양양되어 그 영예가 빛나면 짐은 너희와 그 명예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충절, 예의, 무용, 신의, 검소의 5개조의 성훈을 내려 간곡히 가르쳐 주고 계신다. 황공 하계도 폐하로부터 이와 같은 고마운 직유를 받든 것은 우리 군인들뿐이다. 따라서 신명을 국가에 바쳐 대군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동양 도덕의 본원이며 국민의 숭고한 의무이다. 빛나는 역사를 가진 세계무비의 황군 중에 그 한 병원으로서 반도 청년도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초망(草莽)의 민초가 부르심을 받아 폐하의 고평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영예로운 일인가. 몸이 떨리는 기분이다.

오늘부터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군의 보잘 것 없는 방패로서 나갑니다. 우리는.

존엄한 위세에 거스르는 것은 결코 이를 용서하지 않으며 일곱 번 다시 태어나 적을 쳐부수는 불멸의 투혼과 충성을 다하여 아무것도 뒤돌아보지 않고 대원수 폐하의 말 앞에서 반도 청년은 생긋 웃는 얼굴로 죽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또 병역에 따르는 근본이념이다.

‘활은 손에 들고 칼은 허리에 차고 아침에 지키고 저녁에 지키고 대군의 문을 지킬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으랴’

자칫하면 일부에서는 병역을 타산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의무 관념에 근거한 권리의 뒷받침을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으나 이는 커다란 잘못이다. 그것과 병역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존재이다. 피로써 조국에 몸 바치는 이 숭고하고 지순한 국역의 의무를 타산적 견해로 더럽히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반도 청년은 입영하여 그저 폐하의 고평이 되는 것과 금지훈장 혹은 정훈장(精勳章) 이외에는 그 대상물로서 아무것도 바라서는 안 된다.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반도인이 우리나라의 병역의무가 얼마나 신성하고 명예로운 일인가를 하루라도 빨리 이해 납득하고, 전통적인 ‘병(兵)을 멸시하는’ 생각을 깨끗이 청산하여 결눈질도 하지 않고 오로지 병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4.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병영 생활

징병검사 결과 장하게도 합격의 영예를 안은 반도 장정들은 일본 남아로서 숙원이 이보다 더한 것은 없을 것이다. 어엿한 남자가 아니더냐. 징병검사에는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 조선에도 ‘남자는 죽더라도 전쟁에 가서 죽어라’라는 속담이 있듯이 만약 선발에 빠지는 일이 있으면 이는 청년에게 최대의 치욕이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하튼 합격의 영예를 안은 장정들은 합격한 그 날부터 이미 자신의 몸은 대군에게 바친 소중한 몸이다. 즉 자신의 몸이면서 자신의 몸이 아닌 것이다. 만약 몸을 훼손하여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단지 한 가문의 굴욕이라고 하기보다도 대군에 대해 진정으로 죄송스러운 일이다. 항상 심신을 단련하고 모든 준비를 갖추어 강건한 육체와 견고하기가 철과 같은 의사를 가지고 입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의 모든 하나하나의 자기 동작에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매우 엄격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요는 합격해서 입영할 동안에 부절제한 일만 없으면 되는 것이다.

이야기가 옆길로 빠졌는데, 부르심을 받아 입대를 명받은 장정들은 필연적으로 일정 연한 동안 입영

생활을 해야 한다. 그보다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가 있다. 입영 생활이란 무엇인가? 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화기에애한 군인의 가정생활이라고 나는 대답할 수 있다.

군대 내무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병영은 고락을 함께 하고 생사를 같이 하는 군인의 가정이며 병영 생활의 요는 기거하는 동안 군인 정신을 함양하고 군기에 익숙하게 하여 견고한 단결을 완성하는데 있다.”

눈을 돌려 우리 인류의 사회생활 상태를 가만히 응시해 보면 거기에는 형언하기 어려운 여러 모습들이 있어서 바로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귀영화, 귀천빈고가 자연히 나뉘어 웅장한 건물에 살면서 매일 안일한 꿈을 꾸는 호걸지사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날그날 입에 풀칠하는 게 고작이라서 적빈에 급급한 사람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즐겁게 웃고 지내는 사람도 있으며 같은 인생을 괴로움을 겪으며 울면서 지내는 사람도 있다. 또 관리가 있고 상인이 있으며 농민도 있고 시정아치도 있는 등 여러 가지이다.

그런데 이것이 군대 내 즉 병영 생활이 되면 완전히 그러한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잘 것 없는 방패로서 한번 영문을 통과해 병영에 들어오면 지위나 신분 여하를 따지지 않으며, 또 대신, 대장의 자식이든 시골 농민의 자식이든 전혀 그러한 것과는 관계없이 고로신산(苦勞辛酸)도 안일쾌락도 모두 함께 하며, 국가라는 하나의 커다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 나라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같이 하는 것이다. 저 사람은 대신의 자식이라서 라는 따위의 일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군대 내에서는 음식물이라든가 혹은 금전 등을 자기 집으로부터 송부하게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물론 경제적인 것을 고려했기 때문인데, 그 주된 것은 음식물이라든가 금전 등을 얼마든지 보내도 상관없는 유복한 집에서 온 병사는 그렇다 쳐도 그런 반면에 그런 것들을 용이하게 보낼 수 없는 빈곤한 집에서 온 병사들의 입장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금하지 않고 마음대로 보내게 놓아두면 부잣집 자식은 기뻐하겠지만 유복하지 않은 집안의 자식은 자신의 가난을 오랫동안 탄식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되면 이미 거기에는 틈이 생겨 고락을 함께 하고 생사를 같이 해야 할 병영 생활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군대는 여기까지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이상 이야기한대로 병영 생활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병사끼리의 의사 충돌이라든가 이해관계라든가 혹은 인간의 본성인 욕망적 심리 등이 일어날 리가 없고 청렴결백하다. 엄격함 속에도 화합일치의 협동심이 생겨 견고하기가 철과 같은 대단결을 이루어 마치 한 가족처럼 화목해 지는 것이다. 한 개인의 가정을 예로 들어 보아도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등의 구별은 있지만 거기에 통하는 애정은 단 하나이다. 부모로서는 특별히 형이 귀엽다거나 혹은 동생이 특히 귀엽다는 등의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다. 애정은 형제자매 모두 같다. 병영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념이며 병영 내에 있는 장교, 하사관, 고참병 등은 초년병 입장에서 보면 각각 장교는 조부 또는 부친에 해당하며 하사관은 모친에 필적하고 고참병은 형남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사관이나 고참병이 초년병을 교육하는 것도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형이 자기 동생을 기르는 것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이러한 생활이 하루 이틀 지나 오래 계속되는 동안에 자연히 군인정신을 체득하게 되고 군대의 모든 규칙에 완전히 익숙해지면서 단결은 더욱 굳건해져 간다. 이것이 병영 생활의 본의이다. 이로써 군기가 엄정하고, 순식간에 말레이반도를 석권하였으며, 하와이 진주만두에서 미국 해군을 일거

에 물리치고, 네델란드령 동인도, 버마감정전(勦定戰)을 통해 대동아 지역으로부터 미영 세력을 완전히 구축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용장무비, 질풍신뢰와 같은 황군이 나날이 육성되어 가는 것이다. 즉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황군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 병영 생활에서 배양된다. 애투섬¹¹³⁾ 투혼도 이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요컨대 병영 생활은 처음에는 다소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은 지금까지의 방임 생활로부터 갑자기 규율 바르고 엄격한 생활환경으로 변했기 때문으로 무리도 아니다. 그러나 점차 익숙해지면서 고통감은 사라지고 유쾌해 지는 동시에 칠칠치 못한 생활이 오히려 괴롭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5. 조선인 의식을 버려라

입영 전후에 반도 청년은 완전히 조선의식을 버리고 일본인 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내선인의 혼화(混和)는 유구한 2천 년 전 옛날에 이미 완성된 것으로 극히 최근의 내선 일체라는 것은 떨어져 있던 양자가 손을 잡고 역사적 이념에 근거하여 그것을 철저히 실천에 옮긴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여기에 형제가 있다. 그 형제가 어릴 때 서로 헤어져 그 후 여러 해가 지나 각자가 어른이 되고 우연한 기회에 양자가 다시 만나 감개무량해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선 관계도 조금도 그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조선은 내지의 조선이며 조선인은 내지인 속의 조선인이다. 오늘날 큐슈(九州)인이 있고, 홋카이도(北海島)인이 있고, 시코쿠(四國)인이 있듯이 그 중에 조선인이 있는 것이다. 제군은 이 이념을 확실히 납득하고 입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정 이래 30여 년, 황도문화에 의해 반도는 약진 또 약진하여 오늘날의 대반도를 건설할 수 있었다. 천황폐하의 존엄한 위세 하에 우리 반도인의 생명, 신체, 재산은 완전히 보증되고 이조시대의 극히 악랄했던 제 투쟁, 계급제, 착취 등은 모두 타파되었으며 관민은 협화하여 엄숙한 법규 하에 사회 치안은 유지되어 확실히 왕도 낙토를 쌓아올렸다.

산업, 교통, 교육 등은 급속한 진보를 이루고 위생 설비는 정비되었으며 병합 전 감소 추세에 있던 조선의 인구도 병합 후 일약 증가하는 숫자를 보이고, 민둥산은 푸르게 무성해 졌으며, 강도의 출몰로 변변히 가족 여행도 못했던 것이 오늘날의 이 평화롭고 안락한 현상에서는 도저히 짐작이 가지 않을 것이다. 이조시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조선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 반도 동포는 성은의 고마움에 감사 감격하고 어디까지나 천황폐하에게 귀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일본과 함께 살고 일본과 함께 죽는 것 외에는 길은 없다.

〈출전 : 大村謙三, 「徵兵と志願兵」, 『春秋』 제5권 2호, 1944년 2월, 76~86쪽〉

113) 알류산 열도의 니어 제도의 최서단에 위치한 섬(Attu Island)이다. 일본이 점령했을 때는 아스타 섬(熱田島)라고 불렀다. 2차대전 중 일본군과 미군의 격전지가 되었다.

9) 대화일치로 미영 격멸 “고이소 내각과 아베 총독을 환영함”(권두언)

7월 18일 일 도조(東條)내각의 총사직이 결행되자 3일 만에 후계 내각으로서 조선총독 고이소 구니아 키(小磯國昭) 육군대장과 요나이 미쓰마사(米內光政) 해군대장에게 조각(組閣)의 대명이 강하되어 대화일치(大和一致)의 협성 내각이 성립되었다.

이번 도조내각의 사임은 -초비상시에 처하여 난국 중의 난국을 돌파함에는 넓게 인재를 구하여 강력한 내각을 출현하게 하고 인심을 더욱 일신(一新)하여 거국전쟁완수에 매진하려는 그 이유가 있다.

회고하면 도조내각이 대명을 배수한 이래 만 2년 10개월 동안 전시내각으로서 미증유의 비상시국을 담당하여 대본영(大本營)¹¹⁴⁾과 긴밀 일체 하에 전쟁완수상 최선을 다하여 절대 불패의 태세를 확립하였고 내정(內政)으로는 전시행정특별안을 시행하여 전쟁지도의 일원성 확립, 생산행정의 일원적 강화 등의 대책으로서 중대 시국에 대처해 왔다. 외정(外政)으로는 일(日)·만(滿)·중(中)의 체맹(締盟), 또는 수상이 친히 지나, 만주, 필리핀 제도(比島) 등 각국을 방문하여 공영권 제국과 친선을 공고하게 하는 동시에, 공영권건설을 위한 공약을 단행하였고, 일방(一方) 일본·독일·이탈리아 추축(樞軸)의 강인(強韌)한 태세 하에 세계 신질서의 화근인 미영(米英)을 격멸함에 전력을 기울이려 끝까지 발전적이고 건설적이고 적극 비약적이며 전력의 저하를 지체를 초래하지 않음에 있었다.

그러므로 신 연립내각은 보다 더 강력할 것은 물론이고, 제국의 부동한 결의를 더욱 더 강화할 것은 확신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이제 바야흐로 사이판 섬(島) 침구(侵寇)와 함께 적 공세는 한층 가중하여 전국은 중대한 단계에 이르렀다.

이때에 1억 국민은 신 강력내각에 대해서 절대의 신뢰를 가지고 필승의 신념으로 전력의 확충 추진에 매일 전사의 결의로 사투가 있을 뿐이다.

더구나 고이소(小磯) 신 수상은 그 처음 성명에 있어서 이 미증유한 국난을 돌파함에는 다만 국민이 대화일치(大和一致)하여 총력을 당하여서 적 미영의 반공을 격쇄(擊碎)하는 것 뿐이라고 단언하였다. 대화일치라는 것은 말로써 내각이 벌써 인화(人和)를 말하는 것인데 이번의 고이소, 요나이(米內)협력 내각이 벌써 인적 화합을 의미하거나와 앞으로 이 화협(和協)내각의 지도 밑에서 전 국민이 화합하여 총력전의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여야 하겠다.

이번 고이소 내각이 성립되는데 따라서 후임 조선총독에는 아베(阿部) 육군대장으로 결정되고 오랫동안 조선의 조선인에 친해온 다나까(田中) 정무총감은 내각 서기관장으로 부임하고 그 후임에는 역시 우리 조선과 인연이 깊은 엔도 류사쿠(遠藤柳作)씨가 친임 되었다. 이 비상한 결전 하에 있어서 조선의 군사, 정치, 경제, 문화상 지위는 자못 중요성을 가하고 있는 이때에 총독, 총감의 경질(更迭)을 보게 된 것은 그것이 제국의 더 중대한 정치적 요청에 의한 것으로 군정 양면에 장로(長老)인 아베 신총독과 중앙정계의 중진(重鎮)이며 외지행정에도 다년간 경험이 풍부한 엔도 정무총감을 맞이한 조선은 참으로 안도와 기대가 커진 것을 느끼게 한다. 여기에 새삼스럽게 신총독과 신총감의 열력(閱歷)과 인품을

114) 태평양 전쟁 때에, 일본 천황의 직속으로 군대를 통솔하던 최고 통수부(統帥部).

운운할 것은 아니고 오직 총독정치 이래 처음으로 맞이한 원(元) 수상의 신 총독 시정에 전 노력을 경주(傾注)하여 전쟁을 완수하는데 우리의 책무가 있고 신구(新舊) 총독을 영송(迎送)하는 의의가 있는 것이다.

아베 신총독은 그 제1성(聲)에서 ‘인(人)’을 말하고 다음으로 ‘성(誠)’을 들었다. 그리고 노력과 인내를 요청하였다. 그렇다. 무슨 일이고 모든 것은 사람이 한다. 사람이 첫째다. 그리고 성(誠)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성을 가진 사람이 노력하고 인내하면 못할 일이 없다. 고서(古書)에도 ‘성자천지도야(誠者天之道也) 성지자인지도야(誠之者人之道也)’라 하였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도 있다. 국민 된 각자가 다 성실히 노력하고 인내한다면 대동아전쟁의 중대 시국을 무난히 돌파하여 미영(米英)의 침공을 넉넉히 배제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아베 신총독이 앞으로 실시할 여러 가지 당면시책을 신뢰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2천6백만 조선민중은 하나 빠짐없이 개심(開心)·세심향성(洗心向誠)을 보이기를 바라는 바이다.

〈출전 : 「大和一致로 米英擊滅 “小磯內閣과 阿部總督을 歡迎함”(卷頭言)», 『春秋』 제5권 4호, 1944년 8월, 12~13쪽〉

8. 『동양지광』의 선전 취지

1) 박희도, 창간에 즈음하여

천지가 한번 돌아 세월이 이에 바뀌어, 길조 넘치는 황기(皇紀) 2,599년의 신춘을 맞이하여, 『동양지광』 창간호를 제공하기에 즈음해서, 삼가 성수무강(聖壽無疆)과 황실이 더욱 번창하시기 경하드리며, 정전(征戰) 전후 3년, 만리 적지에 간 군대를 육해공 삼도(三道)를 제압하여, 혁혁한 무훈을 이룩해가고 있다. ‘황군’장병의 무운장구(武運長久)를 기념하여 그 노고에 대해 만강의 감사를 바치며, 아울러 목숨을 버리고 군국을 위해 순직한 호국의 충훈영령에 대해 새삼 심후한 경조(敬弔)의 뜻을 표합니다.

되돌아보면 제국이 지나대륙에 병사를 움직이고 나서 이미 1년 남짓, 지금은 존엄한 위세 하 ‘황군’의 무위는 저 중원(中原)을 제압하고, 후방의 결속 또한 나날이 공고(鞏固)를 더하여, 동아신질서의 재건, 장기건설의 대 사명을 향하여 순조롭고 당당한 보무(步武)를 진행하고 있고, 동양인의 동양을 현현(顯現)하는 역사적 신단계에 오르는 날도 또한, 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 조선인에게는 사변 진전에 따라, 한층 더 그 중요성을 배가함과 동시에 반도 동포에 의해 발휘된 애국의 언동과 정열은, 예전 우리들의 지도자에 의해 제창된 소위 ‘내선일체’의 영역을 초월하여, 내선일체의 결실을 구현화해 가고 있는 것은 우리들도 감명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차제에 반도 2천만 동포의 심흉(心胸)에 일본정신을 투철히 하고, ‘황도’ 정신을 양양하며, 폐하의 뜻 덕이로서, ‘황국’ 일본의 공민으로서, 예외 없이 국체의 존엄을 체득하고, ‘황국’ 일본의 대사명을 운봉

(運逢)하며, '황도'의 선포, 국위 선양에 정진하고, 그럼으로써 동양의 평화는 원래 소위 팔굉일우의 일대사상을 펼쳐, 세계인류문화의 발달과 그 강녕 복지증진에 공헌하는 것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생각건대 이 대의(大義)를 이해하고, 이 이념을 체득할 때, 몇 사람이 일본국민으로서의 영광과 긍지를 느껴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의미에 있어서 예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내선일체라는 일 표어가, 이미 진부한 과거의 유물 취급을 하는 것처럼, 현재 빈번히 제창되어져 가고 있는 '내선일체'의 슬로건도 또한, 마찬가지로 진부한 표어의 잔해로써 취급당하는 영역에까지 강행되어, '내선인'의 뇌리로부터 두 개의 대립된 민족의 존재를 연상시키는 것 같은 관념을 불식해버리고, 단적으로 '내선'의 차별적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 '일본정신'의 네 자에 의해 표현될 때까지 이르게 해야 하고, 현재의 '내지인', '조선인'이라고 칭하는 말을 단순한 지방적 칭호로써만 존재할 때까지 도달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조선인 스스로 자진해서 진심으로 일본 국민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하며, '내지인' 측은 그렇게 되도록 조선인의 유도(誘導)를 맡지 않으면 안 되고, 서로에게 이 자각이 하루라도 신속해지면, 반도인은 하루라도 빨리 일본국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사변에 즈음해서 조선 동포가 발휘한 애국의 적성(赤誠)과 정열을 가장 유의의하고 가장 의의있고 성숙시키도록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내선융화' 내지 '내선일체'라고 하는 듯한 표어를 하루라도 신속히 초월하도록 수양정진함과 동시에, 선각 식자는 다같이 이 유도의 대임(大任)에 협력 매진해야 됩니다. 더구나 이것은 초조해 하지 말고, 허둥대지 말고 미리 장기 건설의 각오로써 목적의 피안까지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재능이 없고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뒤돌아보지 않고, 충충한 근심·걱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이번에 동지와 함께 단연코 일어나 '동양지광사'를 세우고, 기관지로서 월간 『동양지광』지를 발간하기에 이른 것도, 필경 내선일체 구현에 대한 일본정신 양양의 한 수양도장을 제공한 것에 불과합니다. 바라건대 우리들의 미의(微意)를 헤아려, 고처대국(高處大局)에 서서 본지의 건전한 성장과 우리들의 사명 달성에 만복의 지지를 부여해주시를.

1939년 1월 원단
동양지광사 박희도

(출전 : 朴熙道(東洋之光 社長), 「創刊に際して(卷頭言)」, 『東洋之光』 창간호, 1939년 1월, 2~3쪽)

2) 윤치호 최린 김시권 이범익 등, 본지 창간에 대하여

■ 본사 고문 윤치호(尹致昊)

인류는 유사이래, 6천여 년의 문화를 갖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 최근 수백 년간에 있어서의 과학

적 발명과 기계적 진화는, 옛 사람이 몽상조차 할 수 없었던 최고도에 달하여, 우주신비의 열쇠는 인간의 손 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 정신적 방면에서는 도의적 관념과 미풍양속의 현저한 진보는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옛날에 뒤쳐져 있다. 봐라, 인간사회 도처에 증오와 시의(猜疑), 쟁투가 널리 가득 차 있다. 그와 같은 정신계의 암흑상태를 타개하지 못하면 인류의 진정한 행복은 기대할 수 없다. 이때를 맞이하여 우선 내선일체의 실천 강화를 지향해서 월간 『동양지광』이 발족한 것은 생간전대 의의 있는 기획이라고 믿는다.

이 잡지가 이윽고 조선의 사상계를 풍미하여 일본정신 향상의 일단에 이바지할 것을 기념(祈念)하며, 그 만전의 발달을 바라는 바다.

■ 매일일보 사장 본사 고문 최린(崔麟)

시대는 움직이고 있다.

그것은 일시의 망설임도 의심하여 주저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급 템포의 움직임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관념도, 사상도, 신념도, 시대와 함께 걷고, 시대와 함께 진보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야흐로 '대일본제국'이 일세일대의 성업으로써 동야 영원의 화평을 확립하기 위해서, 정의의 말을 전지나의 들판에 달려 이에 1년 남짓— 이 동안 수많은 충용무쌍의 존경스러운 희생자를 내었다고 할 지라도 목적은 혁혁한 성과로서 이루어졌고, 더욱 신단계에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들 국민은 이곳에 유연한 조국주의로 일치협력의 진(眞) 정신을 고양함과 동시에, 씩씩하게 총을 들지 않은 전사의 한 명으로서, 더욱 더 최후의 목적달성으로 매진하기 위해서 온 몸을 떨고 있는 것이다.

즉 시대와 함께 걷고, 시대와 함께 진보해 가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고, 영예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열혈의 무사 박(朴)군이 유연한 일본정신으로 되돌아가서, 여기에 실질적 내선일체 실천운동에 몸을 던져 반도 대업의 지도자임을 지향한 것은 실로 의의 심원한 바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우리들은 시대의 종소리의 아픔에 기원하며 당당히 정의의 진군보(進軍譜)를 연주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행히 여러분이 보다 좋은 반주자가 되어, 우리들 동지의 이상달성으로 일비지력(一臂之力)¹¹⁵⁾을 빌려주신다면 다행히 더할 나위 없는 바이다.

■ 경상남도 지사 우에 하야세(上瀧基)

팔굉일우의 황도정신을 널리 아세아에 빛을 썩우게 하여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것은, 이번 성전 종국의 목적에 있고, 한 마디로 상징하면 『동양지광』이라 할 수 있고, 사장님 귀하의 열의로써 찬연히 빛날 것입니다.

115) 한 팔의 힘이란 뜻으로 보잘것없게나마 남을 도와주는 조그마한 힘을 이르는 말.

■ 강원도 지사 김시권(金時權)

우리 제국이 동양평화건설을 위해 응징의 군대가 나아간 것이 불과 1년 남짓으로, 세계전 사상 비유할 데 없는 혁혁한 전과를 거두어, 바야흐로 신무(神武) 조국의 이상인 팔굉일우의 도의정신을 동아 천지에 선양하고, 황도(皇道) 신질서 건설을 보이는 것은 일억 동포의 감격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능위가 그렇게 시킨 바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먼곳에 보낸 군대 빈틈없는 요새에서 혹서와 험준한 상황을 극복하고, 용맹 과감한 '황군'장병의 절대적인 노력과 넘치는 후방국민의 참된 정성의 결정이고, 이 위대한 단결과 '황군'의 무위는 점점 더 중외로 선양되어 세계열강으로 하여금 다같이 경탄시키고, 특히 노골적으로 장정권(蔣政權)을 지지하는 제삼국으로 하여금 망연하게 한 것은 실로 통쾌해마지 않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참가한 용사의 용기와 노고를 생각하면, 만강의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바쳐마지 않고, 불행히 적진에 쓰러지고 창과 화살에 부상당한 장병에 대해서는 충심으로 애도의 아픔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전국의 대세를 달관해보면 장정권은 무한삼진(武漢三鎭)¹¹⁶의 공략에 의해 한 지방정권의 여천(餘喘)¹¹⁷으로 몰락에 이르렀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으로써 즉시 사변의 종결이라고 사유하는 것 같은 경우는 대단히 경솔한 생각입니다. 항일 잔당이 존재하는 한 끝까지 이를 단속 격멸하기 위해, 또한 장정권의 잔해를 파악하여 배후의 제삼국의 책모(策謀)를 절대 배격함은 물론이고, 더욱이 신흥 지나의 장기 건설을 완수하고 동양 영원의 평화를 확립하는 것은 우리들 일본 국민에게 부하된 일대 책무임과 동시에 일대 영예라고 믿습니다. 즉 시국은 장기 건설의 신단계에 들어가, 일본국민은 새로운 책임이 가중한다.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반도는 제국의 대륙정책에 있어서의 전진병참기지로서, 획기적이고 새로운 의의의 중대한 사명을 부하하기에 이르러, 이 구현에 관해서는 금후 한층 더 언론기관의 활동과 협력에 의지하는 바 간절합니다. 이에 반도 2천만 민중의 '황도' 정신을 양양하고 내선일체 실천을 기하는 대 이상 하에, 잡지 『동양지광』을 발간하기에 이른 것은 국가를 위해 진정으로 경하해마지 않는 바입니다.

금후 본지가 그 중요한 사명의 수행에 따라 점점 더 내선일체의 심화에 기여하고, 나아가서는 반도의 개발에, 또한 문화 향상을 초래하는 효과가 많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경영의 임무를 맡은 각 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함과 동시에 더욱 사(社)의 초석의 용창을 도모하여 문장보국의 사명달성에 매진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 경성철도주식회사 사장 우시지마(牛島省三)

제국 미증유의 의의를 갖는 성전은, 무한삼진의 함락을 계기로 더욱 신 단계에 들어간다. 이때를 맞이하여 보다 강한 내선일체의 실천을 강조하고, 그 지도 언론기관으로서 『동양지광』이 태어난 것은 실

116) 중국 호북성 남동부에 위치한 양자강과 한수(寒水)가 만나는 무창(武昌), 한구(漢口), 한양(漢陽)을 지칭한다.

117)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나 아직 죽지 않고 겨우 부지하고 있는 목숨.

로 시의에 적합한 의의있는 계획이라고 믿는다.

다행히 그 역할을 담당하는 여러분이 각자 전선에 있는 각오로 불요불굴(不撓不屈),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용왕매진(勇往邁進)할 것을 열망하고, 한마디 발족의 기쁨으로 삼는 바이다.

■ 연길(延吉) 만주국간도성장(滿洲國間島省長) 이범익(李範益)

동아협동체 신질서건설의 성업을 수행 중인 오늘, 본지의 탄생을 보는 것은 실로 다행스럽고 기뻐해 마지 않는 바로서, 박사장 이하 동인 여러분의 분투와 사운(社運)의 진전을 기원하며 축사로 대신한다.

■ 중추원 참의(中樞院 參議) 장직상(張稷相)

정신총동원의 일원으로 가담하기 위해 빛나는 탄생을 본 것은, 봄맞이와 함께 축하할만하다. 『동양지광』이 실로 오리엔탈 라이트로서의 효과를 보이고, 나아가서는 서구에까지 그 빛을 미치고, 특히 영국의 암영(暗影)을 거둬버릴 때까지 강력한 신장(伸長)을 기원해 둔다.

■ 경기도 참여관 윤태빈(尹泰彬)

건곤일전(乾坤一轉) 이에 전첩에 빛나는 1939년의 신춘을 맞이하여, 삼가 성수의 무궁과 '황도'의 융창을 빌어드리는 것은 저의 최고의 광영이라고 하는 바입니다.

바야흐로 지나사변은 이에 제삼국을 관여시켰습니다, 그 동안 '황군'의 무위는 질풍迅雷(疾風迅雷)의 대륙을 석권하여, 중요지역은 거의 이를 공략하고, 절대적인 전과를 거두어 세계를 아연케 하고, 갱생신 지나의 건설에 일 신기원을 계획하여 국위를 온 세계에 선양할 수 있었던 것은 실로 감격해마지 않는 바이고, 이것은 물론 대원수 폐하의 능위가 그렇게 하게 한 것은 물론입니다만, 또한 우리의 충용(忠勇)하기 비할 데 없는 '황군'의 정예가 일역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참된 정성에 불타올라, 모든 곤고결핍(困苦缺乏)에 견디고, 육지에서 바다에서 또한 하늘에서 분전역투할 수 있었던 덕택으로 그 노고에 대해서는 충심으로 감사의 정성을 바치고, 또한 군국을 위해 순열하신 존경스러운 당국의 명령에 대해서는 경건하게 경도(敬悼)의 뜻을 표하고, 명복을 빌어마지 않는 바입니다.

한편 반도에서의 후방의 활동을 보면, 사변 발생을 계기로 하여 동포는 갑자기 '황국신민'인 자각에 철저해지고, 열렬한 애국의 참된 정성으로 타올라, 일체의 정폐(情弊)를 일소하고 모든 상극(相戾)을 해소하고, 2,300만의 동포 숙연하게, 내선일체의 강한 대 시행 하에 대동단결하여, '황군'의 환송영은 물론 국방헌금, 군수 기재(機材)의 헌납 등을 시작으로 하여 출정군인가족의 위문, 상병(傷病)군인의 위안 등에 지성을 피력하고, 자진해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참가하며, 정신력의 경장진작(更張振作)과 함께 각자 생업(生業)보국에 매진하여, 생산 확충·소비절약·자원의 양호(養護)·저축의 장려 등 적어도 시국 난 극복에 관한 모든 활동은 국책에 순응하여 일상생활 구현에 힘쓰는 등 물심 양 방면에 걸쳐 그 활동이 실로 왕성하고, 미담이 도처에 나타나 일일이 거론할 수 없고, 특히 통치 사상에 일 신기원을 계획하는 교육령의 개정과, 지원병제도의 실시에 아울러, '황국'신민의 자각과 애국 정성은 한층 고조되

고 실로 내선일체가 되어서 대륙으로의 전진기지인 반도의 중대사명의 수행에 매진해가고 있는 것은 실로 감격해마지 않는 바입니다.

사변은 무한삼진의 공략과 장정권의 함락에 따라 새로운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만, 그는 연패의 고배에 지금 더욱 폭력을 악화시키고, □□의 고경(苦境)에 신음하면서 헛되이 믿기 어려운 제삼국에 의존하여 장기항전에 광분하고 있으며, 한편 단말마(斷末魔)의 지나를 에워싼 국제간의 동향 작위(作爲) 또한 복잡 미묘하고 시국의 전도 또한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신 단계에 대처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어서 세계에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고, 실로 '황도' 아시아의 장기건설을 이루어, 만민공영의 국시(國是)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제국은 금후 또한 수많은 시련과 난관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맞이하여 경성에서의 「동양지광사」는 반도 2,300여 만 동포의 심흉(心胸)에 일본정신을 투철하게 하여, '황도정신'을 양양하고, 내선일체의 실천을 위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할 마음의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동지가 서로 도모하여 빛나는 1939년의 신춘를 기하여 월간 국문잡지 『동양지광』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정신을 양양하고 시국 난 극복에 매진하는 기의를 얻은 계획으로서, 국가를 위해 경하해마지 않음과 동시에 삼가 그 용창을 기원해마지 않는 바입니다.

생각건대 해마다 꽃 모양은 닮았다고 할지라도, 신춘의 감회는 각자 달라야 하고, 우리 국운의 진전은 순간이라도 정돈(停頓)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하 우리나라는 미증유의 중대시국에 직면해 있습니다만, 내외의 정세는 이상과 같고, 더구나 신춘과 함께 더욱 언제까지나 오랫동안 발랄한 것이 있는 것은 실로 환희해마지 않는 바입니다. 저는 광휘 있는 신춘 벽두에서, 여기에 삼가 '황운(皇運)'의 □영을 빌어드림과 동시에, 시국의 추이와 책무의 중대함을 감안하여 성지(聖志)를 받들고, 국책 선을 따라 일로성전(一路聖戰)의 목적관철에 매진하고, 따라서 팔광일우의 천업(天業)을 부익(扶翼)하며, 국운의 흥륭에 공헌할 것을 기하는 바입니다.

이에 조금 연두 소감을 피력하고, 귀사의 번영을 충심으로 축복드리는 바입니다.

■ 함경북도 참여관 이성근(李聖根)

신 동아건설, 장기 성전 하에서 '황도' 정신을 양양하고, 내선일체의 실천을 사명으로 하는 귀지의 창간을 맞이하는 것은 극히 시의에 적합하고, 국가 사회를 위해 실로 경축해마지 않으며, 바라건대 사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동인 여러분 점점 더 결속을 굳히시어, 귀지 대 사명달성에 매진하실 것을 한 마디 무사(蕪辭)¹¹⁸⁾를 진술하며, 만강의 축의를 표한다.

■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교육과장 조선청년단 단장 김대우(金大羽)

바야흐로 새로운 동야의 건설을 담당할 일본은, 그 국민생활의 전 분야에서 새로운 창조의 시대에 들어가, 이 의미에서 진정한 전쟁이 지금 시작되었다고 말해야 하겠지만, 조선의 민중이 이 성업의 반을 지고, 그 사명을 체득하여, 힘을 다해서 '황국신민'으로서의 중책에 임해야 할 식견, 실력을 쌓는 것

118) 겸사말로 난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말을 의미.

은 목하의 신 단계에서의 최 긴급급무와 같이 여겨진다.

이때에 즈음하여 박희도씨는 동지와 서로 얘기하여 동양지광사를 창설하고, 씨가 몇 해 전부터 포회(包懷)한 시중(時中)정신, 즉 바른 덕은 후생(厚生)의 길을 설득하고, 사회교화의 일각을 담당한다고 하는, 실로 동인(同人)을 위해서 또한 사회일반을 위해 동경(同慶)해마지 않는 바이다. 씨의 넘치는 열성, 장한 위력, 비범한 체력으로 반드시 씨로 하여금 소지를 관철시켜, 동양지광으로서 사회의 목탁이 되어, 반도의 여론으로 하여금 '황도'정신으로 귀일시킬 것을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이에 약진의 출발에 임하여 귀사의 창설을 축하하고, 귀간의 『동양지광』이 동아와 함께 점점 더 흥륭발전, 크게 사회교화를 위해 공헌하실 것을 바란다.

■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간사 현영섭(玄永燮)

반도출신의 신흥 일본청년의 일원으로서 여러 선배에 끼어 한마디 축사를 드립니다.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¹¹⁹⁾은 동양은 하나라고 했지만, 저는 세계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일본의 이상과 동방의 정신으로써 더욱 서구가 가르친 과학의 힘으로써 백인의 동양에 있어서의 야심을 좌절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로써 동양과 서양과의 필연적 결합을 보는 것입니다. 세계문화의 순화(醇化)를 위해서야말로 우리들은 소비에트나 영미불과 전쟁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인류의 광명을 비추기 위해 동방의 이상을 높이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선전(宣傳)에 속아 타고르翁¹²⁰⁾조차도 일본의 이상을 오해하고 있는 이 때, 일본 및 동양의 진정한 정신을 세계에 선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긴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 『동양지광』의 발간을 본 것은 하나의 커다란 기쁨이자 희망입니다.

동양의 광원(光源)은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바라건대 『동양지광』은 우수한 일본문화와 청명심(淸明心), 넘치는 순수한 일본정신을 동양천지 및 전 세계에 선전하여 해명 받고 싶습니다.

조선은 일본국민이 완전히 됴에 따라 역사적 갱생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사변에 즈음해서 보여진 그 열정, 더욱이 이를 지속강화하고, 또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의식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지도이론의 구명확립에 대해서도 「동양지광」은 적지 않게 기여 공헌 해주실 점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잡지 『동양지광』은 반도를 비추고, 일본을 비추고, 그리고 전 아시아를 비추며, 더욱이 전 세계를 비출 빛이 될 것을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 중앙조선협회 주사 나카지마(中島司)

'황도정신'의 양양, '내선일체'의 실천이라는 빛나는 목표 하에 『동양지광』이 창간된 것을 진심으로 경축드립니다. 조선이 어둡다고 일본이 밝다고 하는 도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서로 힘을 합하여

119) 미술평론가. 동경미술학교 교장 등을 역임.

120) 인도의 시인, 사상가. 동서 문화의 교류에 힘쓰고, 인간의 존엄과 세계 평화를 호소했다.

조선을, 반도를 가장 명랑쾌조의 장소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축하말씀에 불과합니다.

■ 경성보호관찰소 관찰사 율전□□(栗田□□)

동양지광의 탄생은 '황도'정신을 양양하고, 동아의 신질서 건설을 위해 실로 경하해마지 않으며, 이 건전한 발전을 빌며 삼가 축의를 표합니다.

■ 동경 전경기공립중학교장 와다 히데마사(和田英正)

귀사가 더욱 융창하시길 축하드리며, 말씀드리자면, 소생 이번에 퇴관(退官) 후 봉직하던 조선을 떠나 놓고 있는 몸이 되어 있는 동안, 모처럼의 권고가 계셨지만, 다른 기회에 드리고 싶고, 먼저 위 승낙을 얻고 싶습니다.

■ 청주공립중학교장 泉正次郎

삼가 아웁니다. 군국다사(軍國多事)하고, 국민정신총동원 실천 양양을 외칠 때, 귀사의 탄생 의의 깊은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삼가 전도(前途)를 축하드립니다.

■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사무이사역 본사 이사 방태영(方台榮)

이번에 귀하가 기획하신 『동양지광』 간행은 그 취지에서, 그 의의에 있어서 때마침 소자의 사전 소회(素懷)와 일치해서 실로 유쾌해마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길 더욱 멀고, 임무 더욱 무거운 이 대사업을 달성하는데 깊이 자중자애(自重自愛)하시고 건투 있으시길 빕니다.

■ 북만(北滿)호텔에서 김사연(金思演)

멀리서 귀하의 청안(淸安)을 축하하고 아울러 사업의 흥륭을 기원합니다.

■ 경성 동일은행(東一銀行) 대표이사회장 민규식(閔圭植)

감사에 넘치는 '황군'의 고귀한 분투와 희생에 의해서, 전과는 착착 이루어지고, 바야흐로 시국은 동아장기건설에 들어갔지만, 이 대이상을 구현하는 것이 '황국' 일본의 사명이고, 호국영령을 안심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만사를 제쳐두고서라도 우선 국민정신의 귀일(歸一)을 도모하고 역조심(億兆心)을 하나로 하여, 안에서는 인고(忍苦)를 단련하고, 밖에서는 '황국'과 함께 하지 않

는 열강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때를 맞이하여 귀사가 신춘을 기해서 언론잡지 『동양지광』을 간행하여, 일본정신의 양양에 임하시는 것은 가장 시의(時宜)에 적합하고, 의식을 깊이하는 것이라 믿으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부디 제국홍룡을 위해서 또한 동아영원의 평화건설의 선진으로서, 그 계(界)에서 군림하실 것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무사(蕪辭)로써 축사를 대신합니다.

■ 대동(大同)광업주식회사 사무이사 이성환(李晟煥)

박사장이 『동양지광』을 주보(週報)로써 발간한 것이 1920년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집필자는 일기당천(一騎當千)¹²¹⁾의 선비였지만 그 논리는 예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때의 기세로써 이번에는 『동양지광』을 발간하신다고 하길래, 실로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시세(時勢)도 크게 변해서 조선은 이미 신동양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므로 『동양지광』은 동양 전 지역에 각 민족의 공동운명의 개척을 위해 힘찬 지도자의 반려가 될 수 있도록 세력과 분투를 행해 주십시오. 이것이 귀지 발간에 대한 제 기도입니다.

■ 본사 이사 한백하(韓百廈)

우리 제국이 미증유의 난국에서 일어나 더욱 공고한 후방의 결속을 필요로 할 때, 실로 내선일여(內線一如)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 웅대한 이상 하에 동양지광이 탄생한 것은, 실로 경하해마지 않는 바다. 동아영원의 평화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민중 각자가 이 대 장거(壯舉)에 진심된 협력과 이해로 함께 대성할 것을 천희만망(千希萬望)하며 축사로 대신한다.

■ 경성 의학박사 박창훈(朴昌勳)

삼가 동양지광 창간을 축하드린다.

■ 경정부 원남정(苑南町) 66-31 김예현(金禮顯)

성전 이에 제3년, 뒤돌아보면 우리 '황군'은 문자 그대로 파죽지세(破竹之勢)로서 제1년에는 북지(北支), 제2년에는 중남지(中南支)의 요지 대부분을 점거했듯이 세계 전사(戰史)에 미증유의 전적을 거둔 것이다. 그렇지만 장정권(蔣政權)의 개멸(皆滅), 모두 멸하여 전 지역의 치안, 신 지나의 건설 등 사변의 전도는 지금 더욱 요원해지고, 제3년의 오늘부터 드디어 비상시의 본줄기로 들어간 것이다. 이로써 국민, 특히 병역의무에도 참여하지 않은 2,300만의 반도동포는 남보다 갑절 후방의 직책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를 맞이하여 반도동포의 심흥에 일본정신을 사무치게 하고, '황도'정신을 양양시키려고 하는 대 사명으로써 『동양지광』을 창간하게 된 것은, 실로 시의에 적합하고, 반도 장래의 일대광명으로 경하해마지 않고, 바라건대 각별한 고안하에, 유종(有終)의 미과(美果)를 거두시기를.

121) 말에 탄 한 병사가 천 명의 적을 상대로 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것.

■ 경성 본사 이사 박창서(朴彰緒)

춘추필법(春秋筆法)¹²²⁾ 개조동양(改造東洋)

■ 황해도 군수 신익균(申益均)

근축동양지광창간(謹祝東洋之光創刊)

■ 반도제작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본사이사 최관호(崔觀鎬)

선각지도의 길을 가는 것에는 항상 가시밭 길이 있습니다. 특히 언론으로서 이를 지도하려면 그 임무 더욱 무겁고, 험준한 난관이 있다고 각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건강, 귀하의 정열을 가지고 하면 반드시 이를 극복하여 동양지광 간행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는 것이라 믿고, 여기에 쌍수를 들어 축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경성 유억겸(兪億兼)

도의(道義) 신세계의 건설, 동아 신질서의 국책 시행을 위해 '황군'장병이 지나의 해육공(海陸空)에서 전전(轉戰) 분투할 때, 우리 반도에서는 후방의 봉공으로써 일본정신의 철저, '황도'정신의 양양, 내선일체 실천의 3대강령을 사의 방침으로 정하여 박희도씨 외 뜻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도모하여 「동양지광사」를 조직하고, 그 기관지로서 『동양지광』잡지를, 빛나는 1939년의 신춘을 기하여 세상에 공간(公刊)하는 것은 실로 시의를 얻은 기획이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언론은 국가사회의 여론의 어머니라면 항상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의 방침을 충실히 지키면서 지(智)·인(仁)·용(勇)의 삼덕을 궁행(躬行)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국가사회에 비익(裨益)을 부여할 것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 모토야마(元山港外) 조선총독부 영흥(永興)학원장

아부성지조(阿部成之助)

내선동포휴직무이(內鮮同胞休職無二)

근기동양지광사용창(謹祈東洋之光社隆昌)

■ 봉천시 사회교관 주사 조원환(曹元煥)

홍아정책의 기지 대 경성에 박희도씨 주재하에 『동양지광』이 탄생합니다. 우국(憂國)의 열사로서 우

122) 춘추와 같이 비판적이고 엄정한 필법을 이르는 말. 대의명분을 밝히어 세우는 역사 서술방법.

리들이 항상 경모(敬慕)하지 않을 수 없는 북수(北水), 신기루(蜃氣樓) 제형(諸兄)이 들어가 이를 돕는다고 하니, 내선일체의 완성에 공헌한다는 취지에 흔희작약(欣喜雀躍)¹²³⁾해마지 않습니다. 내선일체는 단지 내선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실로 우리의 숭고한 '황도'원리의 구현화로써 우리의 대륙정책의 목적달성도 실로 이 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귀지의 힘센 빛은 반드시 내선일체, 아니 명실상반(名實相伴)의 내선일체를 완성하여, 따라서 신흥만지(新興滿支)에 모범을 보임과 동시에 이리, 여우같은 제국의 사범도장이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 김포군 관사에서 군수 권갑중(權甲重)

월간국문잡지 『동양지광』이 창간됨에 즈음해서, 축사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에게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바야흐로 제국은 도의세계건설을 위해서 보무(步武) 당당하게 나아가면서, 동양인의 동양을 현현(顯現)하는 역사적 단계에 오르는 날도 아마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요전 날에 우리 반도는 제국의 대륙정책 수행상 한층 그 중요성이 배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애국제언(愛國諸彦)의 진책(盡策)에 따라 「동양지광사」를 조직하시어, 이 땅 2,000여만 동포의 심흥에 일본정신을 투철하게 하고 '황도'정신을 양양함으로써 내선일체를 실천상 구현하게 하기 위해 피와 살의 굳은 신념 하에 빛나는 1939년의 신춘을 기해서, 힘찬 제일보를 내디디는 취지, 국가 장래를 위해 동경(同慶)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사의 왕성한 발전과 동인제언(同人諸彦)의 건투를 빌며 축사를 드립니다.

■ 마산공립중학교장 사카타(坂田政次郎)

삼가 아뢰입니다. 우리 대일본제국의 도의적 세계건설의 성전하에 있어서, 일본정신 현양(顯揚)을 위해 잡지 『동양지광』발간의 취지, 실로 경하해마지 않고 이에 축의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중앙불교전문학교장 강전준웅(江田俊雄)

이번에 『동양지광』이 발간되게 된 것은 반도문화 향상 상에서 크게 축하해야 합니다.

“빛은 동방에서”라는 널리 세계에 알려진 말이다. 아세아를 변혁하는 것은 대일본입니다. 그러므로 대일본은 세계를 변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책무지위가 중대한 때이므로 동양지광의 출현을 거듭 축하합니다.

■ 한성(漢城)상업학교장 김주익(金周益)

축창간

123) 너무 좋아서 기뻐 날뛰다는 의미.

■ 경성보육학교장 독고선(獨孤璇)

동양지광이 나온 귀사의 탄생은 귀하의 열성인 권력에 기대하는 것 많음과 동시에, 잠든 반도동포에 대한 시대의식 각성으로의 경중이자 복음(福音)이기도 합니다. 귀지의 앞 길에 많은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경성 서대문경찰서 고등계 주임 슈토(首藤胖)

축동양지광창설

동양인의 신 동양건설은 내선일체에 있고, 내선일체의 □관은 동양지광사의 발전에 기대합니다. 마땅히 사장 이하 일동의 건투를 빕니다.

■ 경성도청 촉탁 오오야(大宅義一)

삼가 답장을 올립니다. 빛나는 신춘을 맞이하여 잡지 『동양지광』의 창간의 낭보에 접하여 경하해마지 않음. 따라서 반도동포에게 일본정신을 철저파악하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게 된 취지, 실로 목하의 급무로서 또한 급속히 목적 달성되어야 할 입장의 것은 없습니다. 자칫하면 너무 딱딱한 기사로 충만되어 국어국문에 숙련되지 않은 반도 독자에게 물리기 쉬운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바, 노련 국전(老練菊田)의 축사를 비롯하여 외우(畏友)¹²⁴⁾의 여러분이 편집국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삼가 듣고, 적재적소를 얻은 바, 충심으로 성공을 확신하며 장거를 축복하는 바입니다. 삼가말씀올림.

■ 광주 아사히(旭)고등여학교장 장웅진(張膺震)

근축(謹祝) 『동양지광』 창간

■ 동성(東星)상업학교장 장면(張勉)

현재 우리나라는 미증유의 대 사변에 즈음하여, 특히 우리 반도 2,000만 동포에게 시국에 관한 정확한 인식을 부여함과 동시에, 장기전에 대처하는 각오와 결의를 촉구하기 위해 당당한 진용(陣容)으로써 귀지의 출현은 실로 동경(同慶)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발분, 발전하시길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 전남강진공립농업학교장 사이토(齋藤茂)

내선일체의 실천 요원의 불꽃으로 우리 전 반도에 넘칠 때, '황도'정신 함양에 투철하려고 뜻을 두신 동양지광의 발간을 경축하고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124) 아끼고 존경하는 벗.

■ 진남포(鎭南浦) 남일여관(南一旅館) 주인

전 조선지방행정 편집원 김봉한(金鳳翰)

만주사변을 계기로 오랫동안 혼돈된 상태를 지속해온 조선의 사상계는 겨우 정돈된 □운을 축성(促成)해가고 있었던 바, 이번 일지사변(日支事變)¹²⁵⁾을 구획으로써, 그 계에 일대혁명을 초래하여 변연한 종래의 미몽(迷夢)으로부터 각성하여 나이든 자도 젊은 자도 한결같이 '황국신민'으로서 내선일체로의 통제하에 두어지게 된 것은 시국의 부산물로서는 너무나도 커다란 수확입니다.

이와 같이 시국으로부터 온 당연한 귀결로서 우리들 조선민족은 당연한 대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고개를 숙여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덕의(德義)와 □도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에 선각자의 책무로써 후진을 위해서 신국면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귀사의 창립취지서를 본 것만으로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는 우리들이 아직 모두 모르는 바이지만, 국민정신총동원의 소리가 시끄러운 오늘날 이때, 특히 우리들 반도인으로서 도의세계의 건설에 매진하기 위해서 『동양지광』 발간이 계획된 것은 시의를 얻은 조치로서 실로 우리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바입니다. 조금 사적으로 흐르는 두려움이 없지는 않아도 동향(同鄉)의 박희도 사장과는 수십 년 전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고, 또한 본지의 편집자 신기루(蜃氣樓)씨와는 경성시절의 친분도 있고, 공사 방면으로 보아 「동양지광사」와 나와는 실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해야 마땅하고, 이런 의미에 있어서도 쌍수를 들어 축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단지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노파심에서 간절히 요망하는 점은, 근래 이런 종류의 간행물이 몹시 많고, 거의 우후죽순(雨後竹筍)이라고도 해야 할 이때, 특히 조선에서의 잡지경영은 난사(難事) 중의 난사라고 듣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사장님 이하 여러 선생님의 건투 분려(奮勵)에 의해 이해(利害)를 안중에 두지 말고 대처고소(大處高所)로부터 달□하여 오랫동안 간행을 계속하시어, 세상에 동양지광, 아니 세계지광을 발휘하여 일만지 제후에 참여하고 도의세계 건설에 매진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 경성 금택우암(金澤愚庵)

일본국체와 몰교섭(沒交涉)¹²⁶⁾인 국민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일본과 몰교섭인 세계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 및 동양의 과거, 현재, 미래에 무관심한 지금의 국제연맹이 일절 인식부족으로 정리된 것처럼 목하의 세계는 마치 일본을 모릅니다. 그 피상(皮相)은 보고 있어도 그 정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황도' 일본은, (1)적경(積慶)(사물을 베푸는 인덕), (1)중휘(中暉)(일을 해결하는 지덕), (1)양정(養正)(의를 끊는 정의 즉 용기의 덕)인 건국삼대강(建國三大綱)을 근본으로 팔굉일우 정신에 입각하고 있는 성스러운 국가입니다. 앞서 말하면 국체의 자각으로부터 진정한 일본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세계도 다시 시작하여 앞으로 알지 못하면 안됩니다. 세계의 어디에 '세계를 위해 세워진 국가'가 있을까? 우선 앞으로 음미하며 착수하는 것입니다. 사변 하에 있어서의 우리들은 우선 이번의 장기전이

125) 중일전쟁.

126) 거래 또는 교섭이 없음을 의미.

라고 하면 오히려 사상전에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세계에 당당하게 □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의미에서 『동양지광』의 탄생은 무엇보다 기회를 잡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함흥 매일신보지사장 박금(朴錦)

해가 나오는 쪽을 가리켜 동이라 합니다. 그 빛은 아침 햇빛으로서 그곳은 우리들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지구상에는 원래부터 동서의 구별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구별을 구획한 것은 인문(人文)의 덕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하기를, 동양지광이라는 것은 이것 즉 우리들 문화의 빛으로서, 천지창조의 옛날부터 아침 햇빛과 함께 우주를 적절하게 비취울 수 있는 것 반드시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한층 더 그 광도(光度)를 더하여 그 풍부한 은택(恩澤)을 인류에게 빛을 입히려고 욕심냅니다. 이것 어찌면 동양지광사의 이상으로서 목표가 될 것입니다. 삼가 귀지의 창간을 축하하고 아울러 툭툭히 살피고 헤아려 곳곳한 걸음으로 그 표적을 향하여 용왕전진(勇往前進)해마지 않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 경성 변호사 신태악(辛泰嶽)

동양인의 동양을 건설하고 대동문화를 양양하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에 우리들의 선배 박희도씨 주재하에 『동양지광』지가 발행되게 된 것은 실로 기뻐해마지 않는다. 장래의 건전한 발전을 축하하고, 삼가 사우제현(社友諸賢)의 건투를 빕니다.

■ 원산(元山) 이정진(李正鎭)

귀사 동양지광 창간호의 발간을 축하하며, 아침 해가 하늘에 높이 떠오르듯이 점점 더욱 더 발전, 국가사회를 위해 공헌하시기를 빕니다.

■ 중앙기독교청년회학교 홍병□(洪秉□)

축찬간

‘대동아건설’에 대해, 귀지의 위대한 사명을 기대 합니다.

■ 황해도 상천(償川)수리조합 이사 김종석(金鍾奭)

귀지의 발간을 축하하며, 병이춘추정필(併而春秋正筆)을 좌우명으로 하여, 현세의 목탁이 되시기를.

〈출전 : 尹致昊 崔麟 金時權 李範益 等, 「本誌の創刊に對する, 諸名士の祝詞」, 『東洋之光』 창간호, 1939년, 45~54쪽〉

3) 박희도(朴熙道), 희망과 신념을 가지고(권두언)

동양지광사장 박희도

△좋다 그것이 어떠한 성질의, 또한 어떠한 방향의 것이든 간에, 어쨌든 일정의 확고한 신념과 희망이 없는 국민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가장 비참한 운명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전 국민이 일제히 확고한 신념과 희망과 정열로 타오를 때만 그 국민에게는 발전과 번영이 약속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하등의 희망도 신념도 가질 수 없는 국민에게는 단지 비참한 패배와 멸망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조선의 민중은 어떨까. 그들은 과연 일정의 확고한 신념과 희망하에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불행히 나는 지금 또한 그것을 전적으로 긍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종래, 조선의 지식계급의 사람들은 자칫하면 민족주의적인, 혹은 사회주의적인 잘못된 경향으로 흐르기 쉬웠다. 그런데 이번의 지나사변을 통해서 위대한 교훈은, 무엇보다도 우선 첫째로, 그들의 그와 같은 잘못된 경향을 철저히 분쇄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조선민중의 행복이라는 것은, 단지 일본 제국의 충실한 신민으로서만 기대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명백히 지시한 것이다.

△마침 이때, 미나미 총독에 의해 제창된 '내선일체'의 표어는 그들에게도 또한 새로운 희망을 부여하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이미 지원병제도의 실시나 교육령의 개정에 따라 구체화로의 제일보를 내디디고 있지만, 필경 내선일체의 요점은 국민적인 의무와 권리에 있어서 '내선'인이 완전하게 일원화하는 것을 의미함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것은 조선인이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서 고민해온 모든 문제—민족적 차별의 문제나 식민지 문제 등을 일거에 해결하여 조선인의 생활을 '내지'인의 그것에까지 고양하게 하려고 하는 위대한 역사적 운동의 표어이다.

△이 운동의 흐름에 거스르는 것은 허용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여서만 조선 민중의 최대의 행복은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우선 '황국'의 충실한 신민으로서의 국민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의 확고한 신념과 정열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보다 좋은 일본을 만들고, 보다 좋은 동양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전 심신을 진심으로 군국에 바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출전 : 朴熙道 「希望と信念を持つて(卷頭言)」, 『東洋之光』 1939년 3월호, 1쪽〉

4) 박희도(朴熙道), 신동아의 건설과 우리의 사명(권두언)

장기 전쟁이 장기 건설의 신단계로 전입함에 따라, 동양 신질서건설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동양의 신질서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 즉 동양인을 위한 동양을 동양인 자신의 손에 의해 건설하고, 모든 공리주의적 구미적 제국주의를 우리들 동양사회로부터 결정적으로 배제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동양인이 오랫동안 회구해온 가장 숭고한 역사적 사명이다. 백인 제국주의의 동양 침략이

개시되고 이미 1세기 동안 우리들 동양인에게 부과된 이런 역사적 사명은, 적어도 뜻있는 동양인에게 는 일시라도 소홀하게 취급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 사명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적 조건이 우리들 동양사회에는 결여되어 있었다. 과연 우리 제국은 일청(日淸), 일로(日露)의 양 대전 역할을 통해서 당시 청국의 배후를 조종하고 있었던 구미세력이나 러시아의 남진(南進) 세력을 실로 완□ 없을 때까지 구축해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남쪽은 남양제도(南洋諸島)로 확대되고, 서쪽은 중앙아세아에 접해 있는 이 광대한 동아대륙을, 그러는 중에 포함된 각 민족이 공존공영을 원칙으로서, 동아 영원의 평화 이상 하에 재편성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제국에게 있어서도 결코 용이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지나(支那) 공산당을 앞잡이로써, 깊이 지나 민중의 생활에도 침투해 온 적색 제국주의나 장개석(蔣介石) 정권을 괴뢰로써 지나의 자산계급을 조종해온 영미의 침략세력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조건이었다. 그렇다, 그리고 이 제일 중요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지나사변이 관철된 것이고, 우리들은 바야흐로 과거 2년간에 걸친 선전의 결과, 지나 중원(中原) 땅 일대를 완전히 평정하여 동아 신질서건설로의 영예로운 임무에 착수한 것이다. 요전에 우리 제국이 기울여온 희생은 결코 극히 적은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고는 하나 금후에 부과된 우리들의 임무는 더욱 커다란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승리의 영예에 취하기 전에 금후의 임무의 중대함에 한층 스스로를 편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아신질서의 건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아협동체 조직은 성전의 개선 뒤에 철저히 관철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들의 가장 숭고 엄숙한 임무다.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제국이 유일 절대의 지도자로서만 달성될 수 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제국만이 구미의 제국주의를 배제하고 엄숙히 동아를 지킬 수 있는 유일의 강력적인 선진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제국의 지도하에 조직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동아협동체는, 단순한 일, 만, 지 삼국의 경제적 블록의 결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가 하면, 우리 제국에 의한 전동아의 식민지적 재편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숭고한 일본 정신의 선에 따른 우리 제국의 국책은, 이 경우에도 동아 각 민족의 공존공영만을 절대적인 기조로 삼는 도의적 정신에 입각한다. 일부 소수의 비국민적인 자본가로서, 이 경우 승리의 배후에 개인적인 공리를 탐욕하는 자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 국책의 근본사상인 도의적 정신이 이를 단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동아협동체의 이념은 동아 각 민족의 단순한 원자론적인, 혹은 국제연맹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지만 현대 독일에서 보는 것 같은 전체주의적인 동아 통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원자론적 연합은, 우선 첫째로 각 민족의 분립(分立)을 전제하는 것이고, 이러한 분립적인 민족주의 위에 입각하는 이상, 구미의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전 동아를 한 덩어리로 하는 협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 더욱이 혈통의 순수성을 요구하는 전체주의적인 민족주의는, 국내 문제와 달리 전동아를 문제로 삼는 경우, 혈통의 흐름을 달리하는 이민족의 병존을 인정하는 이상, 수많은 곤란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협동체의 이념은 우리 제국의 지도를 전제로 하는 동아 각 민족의 철저적인 협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협동은 단순한 협조도 아닌가 하면, 단순한 결합도 아니다. 협조 또는 결합도 각 민족의 개인주의적 분립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만, 우리들이 의미하는 협동은 동아 전체의 이익

을 절대적인 목표로 삼아 이 목표를 위해서 각 민족의 개인주의적 이익을 종속시키려고 하는 이념이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의 협동은, 단지 동아문제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국내 문제에서도 금후의 우리나라에 부과된 근본 원리며, 예를 들면 노자(勞資) 문제와 같은 경우도, 진실의 일본정신에 입각한 해결방법은 노자의 협조가 아니고 노자 일체다. 또한 내선(內鮮) 문제와 같은 경우도 “내선의 융화”의 표어는 ‘내선인’의 분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동아협동체의 이념에 입각하는 원리는 “내선의 융화”가 아니라 내선일체다. 이 일체 사상은 일본정신의 도의적 국가원리로부터 출발하였고, 이 이념하에 ‘내선인’의 개인주의적인 이익을 종속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반도의 민중이 금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받고 있는 내선일체 운동은 실로 도의적 정신에 입각한 동아의 개조— 즉 동아신 질서 건설운동의 가장 중요한 일익을 행하는 것이고, 미나미총독도 말씀하신 대로 “동양인을 위한 동양 건설의 핵심은, 내선일체의 완벽에 있는” 것임과 동시에, 이 내선일체의 대 조류에 편승하는 우리 반도 민중의 근본적 태도는 항상 이러한 협동정신에 입각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확고한 신념 위에 입각하여 ‘내선’ 간에 있어서의 모든 민족적 편견을 철저히 분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족적 편견을 분쇄하는 방법은 산업, 경제, 문화, 가정 등 인간생활의 모든 장면에서 내선인이 서로 최고의 국가적 이념 하에 한 몸을 희생으로 삼을 각오로 서로 결합하는 것이다. ‘내지’인이 자칫하면 반도인에 대하여 갖기 쉬운 도시국가적 우월감을 차제 나뭇잎이 티끌처럼 분쇄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조선인도 ‘내지’인에 대해 갖기 쉬운 모든 편견도 이번 기회에 결정적으로 배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또한 이런 내선일체의 근본이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많은 불복을 제창하고 있는 자가 ‘내선인’ 사이에 적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가 어떠한 근거 위에 입각하고 있던 우리들은 그들에게 대해 감연한 투쟁을 선언하는 것이다. 반도의 민중이 그 국민적인 의무 및 자격에 있어서 ‘내지’인과 완전히 일원화하려고 하는 이 팽배한 요망은 그들에게 부여된 가장 엄숙한 정치적 사명이고, 이 요망을 충분히 달성해서만이 전 동양인의 역사적 사명인 동아협동체의 이념도 완전히 관철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선일체에 불복을 제창하는 어떠한 ‘내지’인도, 또한 어떠한 조선인도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국의 원대한 이상실현에 장애를 행하는 자는 국가적 견지로부터 보아서 뿐만이 아니라 전 동아의 견지로부터 보아도 똑같이 역적이다.

우리들은 잠시라도 이 내선일체운동의 엄숙한 사명을 소홀히 해서 안 된다. 그것과 동시에 자칫하면 극히 저열한 무리 속에 나타나기 쉬운 정치 브로커— 즉 내선일체를 장사로 삼으려고 하는 더러운 인간들이 함부로 날뛰는 것도 우리들은 단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재차 강조한다. 내선일체운동은 우리들 동양인에게 부과된 가장 숭고한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익이다. 이 진영을 지켜라, 여기에만 우리 반도 민중이 전진해야 할 정치적 진로가 전개되어 있는 것이다.

〈출전 : 朴熙道, 「新東亞의建設と我等の使命(卷頭言)」, 『東洋之光』 1939년 4월호, 1~3쪽〉

5) 박희도, 혈서의 애국심(권두언)

동양지광사 사장 박희도

▲ 바야흐로 ‘내선일체’의 숭고한 표방은 ‘내선(內鮮)’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상적 문제로부터도 훨씬 심화하여, 실로 혼 혼해지는 감정의 화원을 나타내려고 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기 시작하고 있다.

▲ 이러한 역사적 대전환에 즈음해서, 조선지원병제도를 교육령개정과 함께 동시에 실시한 것은 국민 모두 경하해마지 않는 바이다. 반도의 국민도 지원병이 되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간성(干城)이 되어 국방의 제일선에 서려고 하는 그 의기 장하다고 할 만하고, 그 애국열 축하할 만하며, 황공하게도 천문(天聞)¹²⁷⁾에까지 상달(上達)되어 실로 공구감격(恐懼感激)의 극치다.

▲ 이 지원병을 둘러싼 아름다운 국민적 에피소드는 하나하나 들어서 말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그 타오르는 적성(赤誠)의 마음을 물들여 빛깔을 내어서 혈서의 ‘지원서’를 낸 기특한 얘기에는 머리가 숙여지고 가슴이 조여드는 강한 감명을 받는다.

▲ 금년도의 지원병 지원자 수는 실로 12,000명이나 되었다. 그 중에서 7,000명 정도는 뛰어난 적격자라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적격자의 1할미만 밖에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 미나미 총독 이하 본부의 간부 얘기를 비추어보면, 징병령은 아직 빠르고, 그 시기는 예정할 수 없지만, 이 지원병 성적 여하에 따라 그 시기는 결정되어 갈 것이라고 한다. 이 현실적인 과도기의 사정을 우리들은 완전히 동감하는 바다.

▲ 그렇지만 이러한 발연한 애국열을 본의 아니게 식게 하는 듯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으면 유감이다. 실제의 방법으로써 지원병의 수용 수를 최대한도까지 증대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다. 지원병에게는 연령의 제한도 있어서, 현재 타오르는 듯한 사람들이 2,3년 후에는 연령의 경계선으로 장지(壯志)는 ‘노쇠’하여 어떻게 할 수도 없게 된다. 거듭 말한다, 현재야말로 지원병의 수용 수를 가능한 한 대량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혈서의 애국심에 감격하여 소망의 일단(一端)을 표하는 바다.

〈출전 : 朴熙道, 「血書の愛國心(卷頭言)」, 『東洋之光』 1939년 5월호, 1쪽〉

6) 내선일체로의 문화운동(권두언)

◇내선일체의 운동이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그 구체적인 실천이 심화됨에 따라서,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위한 국민적인 문화운동이 비상하게 요구되어진다. 내선일체가 단순히 서로 외쳐서는 안 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은 결코 협의의 정치적인 슬로건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다. 아니, 그것이 정치적인 목표이기 때문이야말로 그 의미에 있어서도 그것을 위한 문화운동이 필요한 과제가 되어지는

127) 천자(天子)가 듣는 것, 천청(天聽).

것이다.

◇정치와 문화는, 그것이 하나의 위대한 국가적 이념으로 관철되고, 그 동일한 지도정신 하에 유기적으로 통일 조화되어 발전할만한 것이다.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필경하는 바, 일본정신의 일본 문화적 발양구현임에 틀림없고, 그 의미에 있어서의 국민적 문화운동은 동양문화의 신건설의 실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문화 운동을 통해서 전 민중의 국민적 계몽교화에 호소하는 중대한 사명이 있는 것이다.

◇현재의 조선민중은 지식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아직도 민도가 낮다고 일컬어지고 있고, 그것은 또한 사실 그렇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학적(敎學的)으로 평균 수준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이룬 다음에 문화적 활동의 톱니바퀴가 필요하다. 밖에서 우리들은 대중적으로 민중을 계몽하는 문화운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 문화활동은 물론 높은 창조를 위한 노작(勞作)과 다른 한편 낮은 민중으로의 교학적 실천의 두 개의 형태가 있을 테지만, 오늘 우리들이 문화운동에 기대하는 바는 그 후자 쪽에 보다 진력해야할 때라고 믿는 것이다.

◇문화인이라고 해도 그 의미는 광범하지만, 오늘날의 조선의 문화인은 그 질에 있어서도 양에 있어서도 어떻든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최근 그들은 상당한 세력으로써 국가적 문화, 예술의 사도로서 일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에게 적당한 기회와 기관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지도 조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문학·연극·음악·미술 부문을 동원시켜 그들의 기능에 따른 영향력을 직접 대중 속으로 보내는 것이다.

(출전 : 「內鮮一體への文化運動(卷頭言)」, 『東洋之光』 1939년 6월호, 1쪽)

7) 사변 2주년에 즈음하여(권두언)

노구교(蘆溝橋)¹²⁸⁾에 있어서의 지나(支那)병의 불법사격에 의해서 일지(日支) 양국 사이에 병화(兵火)가 벌어지고, 벌써 3년을 맞이했다. 이후 우리의 제국은 불확대방침을 원칙으로 일을 평온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미 제국주의나 적색 소비에트에 사주된 항일 지나의 폭력(暴戾)하기 짝이 없는 도전적 행위는 결국 사태를 하나의 세계사적 전쟁에까지 확대해 버렸던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제국은 전동아에 걸쳐 하늘에, 육지에, 바다에, 막대한 물질적인 또는 인적인 희생을 치러왔다. 말할 필요도 없이 제국성전의 목적은 일(日), 만(滿), 지(支) 삼국의 공존공영을 전제로 하는 동아 신질서의 건설에 있다. 그리고 이 건설 과정은 무한(武漢)¹²⁹⁾의 함락 이후 정부 성명에 호응하여 바야흐로 한 걸음 한 걸음 구체화해 가고 있다. 전쟁의 목적이 평화의 달성에 있고 파괴의 목적이 건설에 있는 한, 현 단계의 우리 대륙정책은 바야흐로 그 최후의 가장 긴밀한 목표를 향해서 돌진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 새로운 건설로의 착수는 다른 한편에서의 전쟁의 종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항일 장정권(蔣政權)을 최후까지 쳐부수고 더욱이 그 지주가 되어 있는

128) 중국 베이징이 용딩강 위에 세워진 다리로, 중일전쟁의 발단이 된 양국 군대의 충돌사건.

129) 1927년에 중국 우한에서 공산당과 국민당 좌파가 합작하여 세운 임시 정부.

모든 원장세력(援蔣勢力)을 결정적으로 지나로부터 완전히 구축해버릴 때까지는 전쟁은 여전히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동아 신질서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임무는 한편으론 전쟁, 한편으론 건설의 이중성을 갖지만, 때문에 그것은 한층 더 곤란과 복잡성을 갖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어떠한 곤란도 극복하여 소기의 성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변 2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감절의 용기와 결단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사변 이후 우리 조선의 민중은 후방의 활동에 모든 적성(赤誠)을 다하고 제국의 국책에 충실하게 협동해 왔다. 전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설의 경우에도 우리들은 황국신민으로서 국가적 임무를 한층 더 조직적으로, 그리고 충실하게 다하기 위해서 강고한 신념과 정열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출전 : 「事變二周年に際して(卷頭言)」, 『東洋之光』 1939년 7월호, 1쪽〉

8) 시국과 청년(권두언)

인생의 청년기는 힘으로 충만하고 희망에 넘치며 계획에 동경하는 아름다운 새벽녘의 각성기이다. 그와 같이 국가에도 청년기가 있고, 시대에도 역사에도 그것이 있을 것이다.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시대가, 하나의 역사가 커다란 전환을 시도하여 새로운 희망과 계획의 사명을 짊어지고 발전할 때, 우리들은 이러한 본질이나 상태를 청년국가, 청년시대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이다.

청년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혹은 희망과 계획이 풍부하듯이, 국가나 시대가 역사적으로 비약 전진할 때, 거기에 커다란 청년적 기백과 특권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어느 시대에도 청년이 국가사회의 미래의 주인공이고, 준비자임에는 틀림없지만, 청년시대라고 명명할만한 국가사회의 발전상태 속에서야말로, 청년은 청년다운 '행운아'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청년국가의 중건으로서 청년이 그 무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명예롭고 당연한 일이 아니면 안 된다. 오늘날은 비상시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것은 언어의 진실되고 전적인 의미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비상시국이란 결코 수동적인 또는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실로 주동적이고 건설적인 의미로 그렇게 취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국의 당위적인 세기성(世紀性)인 것이다.

오늘날의 청년일본의 흥아적(興亞的) 사명은 실로 건설적이고, 영웅적인 것이다. 그 사명을 실질적으로 완수하는 것은 명예로운 과제다.

지금은 때마침 청량한 아름다운 기후를 점쳐서, 대일본청년단이 경성에서 전동아의 청년을 모집시켜 그 청춘의 대행진곡을 연주하며 민족적으로 훈훈해지는 교환(交驩)¹³⁰⁾ 을 도모하게 되어 있다. 이 기회를 계기로 청년제군은 그 젊은 정열과 희망을 일환으로써 이 시국을 스스로 타개하고 건설하는 위대한 길을 진군해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시국이 청년제군을 부를 것이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청년은 그 청년

130) 서로 사귀며 즐거움을 나눔.

적인 생명의 능동으로서, 이러한 역사적인 청년일본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갈 만큼의 교양과 훈련을 체득해야 마땅하다.

〈출전 : 「時局と青年(卷頭言)」, 『東洋之光』 1939년 9월호, 1쪽〉

9) 대동아성전의 연두에(권두언)

유구 2,602년! 숭고한 영기(靈氣) 대동아의 천지에 평온하고 부드럽게 넘쳐 흐르고, 천업의 영광(靈光) 넓고 밝게 팔괘에 널리 빛난다. 이 무궁을 봉축하는 원단(元旦)의 한 때. 보천솔토(普天率土)¹³¹⁾의 국토, 억조인민이 공동 향유하는 것이며 지성지충의 호흡을 하나로 하여 오로지 황공하게, 성수만세(聖壽萬歲)의 수사(壽詞)를 받쳐 올린다.

과연 그렇도다 라는 말이 있다. 일 년의 계획은 원단에 있다고. 참으로 그럴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평범한 근하신년의 말을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 년의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오래된 말로서, 이는 너무나도 새로운 신년이 되었는데 말이다. 일 년의 그 뿐만 아니라 실로 세기(世紀)의 원단이 되었는데 말이다. 너무나도 깊은 슬픔이 되살아나고, 너무나도 커다란 기쁨이 솟아나오는데 말이다. 아, 숙연한 느낌 가슴에 있다.

‘대동아성전’의 연두를 맞이한 이 위대한 역사의 원단의 날. 일인 일가의 편안한 신년의 즐거움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되고, 일억 국가의 혹독한 운명의 아침을 기도해야 한다. 더욱이 아세아 십억의 동종생령(同種生靈)의 희망을 보아야 한다. 대체 무엇을 가지고 빌어야 할지, 무엇을 가지고 축하를 해야 할지. 아아, 하늘에 맑게 갠 대답이 있다, 영원히 기념해야 할 두 구절 앞의 저 세계의 진감(震撼)! 저 홍혈의 감격! 저 강철 긴장! 1941년 12월 8일을 새롭게 떠올려라.

그렇지만 깊이 있는 말이 되려나, 일 년의 계획은 원단에 있다고 우주성신(宇宙星辰), 역사인사(歷史人事), 모두 그 최초의 전조, 반드시 최후의 다행을 수복할 것이다. 저 선전의 날의 미명, 황천(荒天)을 뚫는 은은한 태평양의 포성이여. 무적의 바다독수리의 하와이 원정. 항항도도(港港島島)의 과감한 전격. 이미 미영 극동함대를 전멸시키고 무흔혁혁하다. 전례 없는 서전 대첩, 누군가 쾌재를 삼창해주지 않겠는가. 태평양의 고래 떼도 필시 만세의 수연(水煙)을 뿜어 올릴 텐데, 우리의 최후의 승리를 믿어주지 않겠는가.

뒤돌아보면, 우리들 동양인은 앵글로·색슨의 굴욕과 학대를 견딘 세월 오래고, 그 착취와 약탈의 압제에 신음한 것 또한 길다. 뿌린 죄업의 열매는 스스로 수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또한 오랜 사실을 매거(枚擧)하는데 방황하지 말고, 새로운 결의를 외칠 뿐이다. 이미 정의의 백인(白刃)¹³²⁾은 주홍색 칼집을 떠났다. 이 성스러운 최후의 심판 앞에 어느 귀신이라도 잘 울어주지 않겠는가. 전선의 경(卿)들은 악적(惡敵)을 잘 베어야 하고, 우리들 또한 후방을 굳게 지켜야 한다.

131) 온 천하, 전 세계를 의미.

132) 서슬이 시퍼런 칼.

바야흐로 신세기의 신화는 만들어져 가고 있고, 지상의 우리들 또한 새로운 역사의 창조의 깃발을 높이 올렸다. 이 세계평화로의 노래가 타오르자마자, 인류는 실로 두 개의 정사(正邪)의 진영으로 나뉘어져 일대결전을 이루려고 한다. 실로 장관이며 우리들 지금 그 전사(戰士)인 시대에 생을 향수하니 이 광영(光榮) 풍부하고 자랑할 만하지 않은가. 구주웅방(歐洲雄邦)인 독이(獨伊) 굳은 맹엄(盟嚴)으로 지키고, 동아의 태국, 프랑스령 인도네시아 또한 우리들과 손을 잡았다. 싸우는 것, 지키는 것, 그 최대의 사력을 다할 뿐.

그렇지만, 싸움에 극복하여 이기는 것, 또한 교만하지 않고 자신이 주마에 채찍질을 해야 한다. 적에게 이기는 것 더욱 자신의 마음 속 감정에 이겨야 한다. 내우외환과 함께 올 때, 우리들의 진정한 저력과 용기는 효과 백배가 될 것이다. 적어도 소아(小我)의 불만이나 마찰은 차제에 소리 높여 말해서는 안 되며, 일억일심(一億一心)이라는 그 진의의 단결에 철저히 않겠는가. 싸움은 바야흐로 한창이고, 그렇지만 장기전 각오도 없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시련의 폭풍우가 불더라도 단연코 뒤돌아보는 일 없어야 한다. 싸움에는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최후의 승리를 우리들의 머리 위에.

〈출전 : 「大東亞聖戰の年頭に(卷頭言)」, 『東洋之光』 1942년 1월호, 2~3쪽〉

10) 대동아전 1주년(권두언)

오로지 승리의 가도를 매진하면서 '대동아전'의 1년은 지나갔다. 우리들은 선전 조서가 환발(渙發)되고, 서전(緒戰)의 승리가 보도되어 잇달아 올리는 '황군'의 경이적 전과에 얼마나 경탄하고 감격을 계속한 것인가?

실로 이 1년간은 감격과 흥분의 1년이였다.

그리고 불과 이 일년간이라고 하는 짧은 세월 속에 얼마나 커다란 변화가 초래된 것인가? 저 풍부한 자원의 세계적 보고이자 남방의 제 지역은 우리나라 통치 하에 돌아왔고, 태평양 제공해권(制空海權)도 우리들의 손에 쥐어졌다. '황군'이 밖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있는 때, 국내에서의 전쟁의 성과도 또한 컸다. 우리들은 생산 확충을 위해 싸웠다. 미영적(米英的) 개인주의의 박멸을 위해 싸웠다. 국토방위를 위해 싸웠다. 결전체제는 급속히 정비강화되고, 국민의 각오와 결의는 1년 전의 그것에 비할 필요도 없다. 전선(前線) 후방을 불문하고 일년간의 성과는 멋지고 큰 것이었다.

성업(聖業)의 제일보는 강하게 내딛어지고, 동아백년의 대계는 그 단서가 이루어졌다. 조국의 대이상을 향해서 매진할만한 발판은 확고히 쌓아진 것이다.

그러나 '대동아전'의 1주년을 맞이하는데 즈음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승리의 찬탄(讚嘆)이 아니라, 미래의 승리를 위해서 한층 더 높여 서서 결의를 굳게 하는 것이다. 서전에서 쌓아진 발판에 서서 우리들은 이 승리를 최후의 선에 연결할 때까지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규모, 구상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이 대전은 장기전의 성격을 분명히 갖추고 우리들 앞에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이 대 국난을 타개하여 이 대 전쟁을 이겨내어 최후의 승리 획득을 지향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결속하고, 어떻게 결의하며, 어떻게 싸워야 할까는 어중간한 상상은 할 필요도 없다. 1년간의 비참한 패전에 의해 적은 일본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바꿨다. 그들은 방대한 군확(軍擴) 계획을 새롭게 세우고 엄청난 군비를 가지고 우리들을 위압하려고 한다. 양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질로 싸우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무리 적이 군비를 확대한들 문제는 아니지만, 적의 양의 확대 이상으로 우리들은 질의 강화를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적의 만(萬)을 우리는 일(一)로써 부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가능성은 과거 수많은 전쟁에서, 또한 작년 일년간의 싸움에서 충분히 증명되었다.

우리들은 단언한다. 금후도 승리는 우리들의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일억 국민의 결의와 각오가 뒷받침이 되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은 뒷받침하자. 일사순국(一死殉國)의 결의를 굳히고 완승의 날까지 싸워내야 하는 것을. 이미 이 결의 강하고 이 각오 견고하면, 우리들은 10년전쟁도 100년전쟁도 아무런 걱정도 없다. 적이 아무리 방대한 전비(戰備)를 가지고 달려들어도 우리들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일천억불의 군확비 아무것도 아니다.

과거에 싸우면 이겼던 것처럼 금후도 승리를 우리들에게 있게 할 것이다.

‘대동아전’ 제1년은 감격과 흥분 속에서 보냈다. 제2년은 침착하고 냉정하게 적을 응시하며, 우리들의 자세를 굳건히 하여 필승을 기해 나아가자.

〈출전 : 「大東亞戰一週年(卷頭言)」, 『東洋之光』 1942년 12월호, 4~5쪽〉

11) 교문을 나서는 학도에게

이 봄도 또한 많은 생도가 오랫동안 정든 교사를 떠나 사회로 나갈 테지만, 진중한 인적자원으로서 제군의 사회로의 보충은 국가로서는 새로운 힘의 증강이고, 개인적으로는 생의 전야(戰野)로의 출정이다. 오랫동안 학창에 틀어박혀 형설지공을 쌓은 것은 오늘을 위한 준비였고, 내일의 활동을 이루기 위한 수련이었다. 바야흐로 제군은 다년간 닦고 기른 힘을 실지로 시험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일보를 내딛는 것이다.

사회는 물론 학원의 연장이지만, 그것은 학창시절과 같은 무풍지대도 아닌가 하면, 특별히 어떤 울타리를 둘러친 온돌도 아니다. 거기에는 살기 위한 싸움이 있고 번민이 있다. 많은 폭풍우가 있으며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다. 이것을 잘 헤쳐 나가 밟고 넘어서 가는 자만이 인생에 승리하고 행복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제군이 항상 잇으면 안 되는 것은 눈을 목전만으로 향하여 먼 곳을 바라보지 않고, 항상 자신 개인을 위한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사회는 하나의 공동생활체이다. 모두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는 거기에 있는 것은 항상 충돌이고 투쟁일 것이며, 형제가 체내에서 서로 싸우는 중에 사회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몸은 침식되고 망가져 쓰러지고 궁극에는 자신을 파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눈을 항상 높은 곳에 두고 전체를 바라보며 국가사회의 공영의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방향을 정하도록 끊임없는 자신의 삶에 대한 비판과 행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날카롭게 방향을

판별하고, 용기로써 그 타성에서 뛰어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낡은 사회에는 여러 잔재가 편만해 있고, 그것은 또한 집요하게 약한 신병(新兵)을 에워싸는 것이다. 좋은 전통은 받아들이고, 낡은 허물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한층 더 필요하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는 건설되고, 행복의 증대는 오는 것이다.

바야흐로 국가는 어떤 숭고한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공명을 가져올 유일한 길이다. 이 길의 달성에는 제군의 힘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제군은 정열을 여기에 쏟고, 정의감을 여기에 불태우며, 그리고 그 선을 따라 돌진하도록 각오를 굳혀야 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직장, 어떠한 입장에 처하더라도, 이 커다란 목표에 자신을 관련시켜, 그 추진에 자신의 힘을 쏟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의 작은 움직임, 작은 각오의 여하, 그것은 즉시 국가의 흥망과 관련되어 있다. 국민의 진정한 이익은 항상 국가의 이익과 일치할 것이다. 그러므로 새롭게 사회로 진출하는 자는 항상 이 높은 곳에 눈을 향하여, 국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만이 바른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출전 : 「校門を出づる學徒に」, 『東洋之光』 1943년 4월호, 2~3쪽〉

12) 고이소 총독, 승패의 귀추가 분명해진다(연두소감)

조선총독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대동아전쟁’ 제3의 신춘을 맞이하여, 우리들 1억 국민은 전선도 후방도 한결같이 ‘대어능위(大御稜威)¹³³⁾를 받들어, 점점 더 필승의 신념을 새롭게 하고 훌륭히 적을 격쇄하여, 결전에 최후의 대승리를 얻음으로써 황조황종(皇祖皇宗)¹³⁴⁾의 신령에 응해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대동아 제 민족 국민으로서 각각 그 곳을 얻게 하려고 하는 팔굉일우의 대의명분은, 바야흐로 아침 해와 함께 찬란히 세계사 전환의 광휘를 띠며 편만(遍滿)과 농락(籠絡)으로써, 세계제패의 비망(非望)을 꿈꾸는 물력만능의 적의 깃발 색은 그러므로 점점 더 빛이 어둡고, 덧붙이면 태평양전선상에 매우 초조하여 저돌해오는 적의 대함거포(大艦巨砲)는, 선모용전(善謀勇戰)하는 ‘황군’의 감투(敢鬪)에 의해 추하게도 잇달아 사라져가고 있지만, 이것만을 보더라도 승패의 귀결은 이미 분명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적측은 기회만 있으면 일본의 물력이 최고조에 달하기에 앞서 전승(戰勝)을 획득하려고 하여, 올해도 반드시 초조, 무모한 결전으로 저돌 폭진해 올 것이라는 것,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만방에 이 유례없는, 일본 혼이 이미 자신에게 있고 그리고 정도탁발(精到卓拔)한 용병(用兵)의 묘술은 본디부터 ‘황군’의 독특한 장점이다. 만일 그 작전 자재(資材)에서 필적할만한 물력을 손에 넣으면, 도리에 어긋난 미영과 같이 오히려 개수일촉(鎧袖一觸)¹³⁵⁾이다.

133) ‘천황’의 거룩한 위덕, 위광을 일컫는 말.

134) ‘천황’ 역대의 선조.

한편 다시 우리 조선반도를 되돌아보면, 물려자원이 풍부한 천하제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개발증산에 종사할만한 노동력이 과다한 또한 '황국' 영토 중 실로 첫째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반도 민심의 심오(深奧)에는 전승파악의식이 갑작스럽게 팽배하게 발흥하기 시작했다. 전력증강의 구현 또한 기다려야 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되돌아보면 올해는 국운을 좌우할만한 결전의 해이다. 우리들은 후방 전승의 동인(動因)은 실로 조선으로부터 라는 각오로써 올해야 말로 혼자서 두 몫, 세 몫의 노력을 한 마음으로 생산증강에 기울여서 완벽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출전 : 朝鮮總督 小磯國昭, 「勝敗の歸趨明かなり(年頭所感)」, 『東洋之光』 1944년 1월호, 2~3쪽〉

9. 『반도의빛(半島之光)』의 권두언

1) 권두언

[1-1]

국제정세는 점점 더 긴박의 일로를 더듬어 가고 있고, 혹은 머지않아 더욱 절박한 사태에 직면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여겨지는 형세다. 이 비상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개인, 단체 할 것 없이 모두 이미 과거의 습관이라든가, 입장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속하게 이것들의 모든 집착을 말끔히 털어버리고, 자진해서 국책에 순응하여 이른바 신체제의 확립을 향해서 돌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회(本會)의 보급사업에서도 언론의 통제, 인쇄용지의 절약 등의 중요국책에 즉응하여 실로 시국 하에 어울리는 문화보국에 매진하기 위해서, 간행물의 폐합(廢合)을 단행하게 되었다. 즉 조선문잡지 『금융조합(金融組合)』을 폐간하고 『조합과 생활(組合と生活)』 및 『가정의 벗(家庭の友)』으로 통합하고, 새롭게 『반도의 광』 국문판 및 조선판을 개제(改題)하게 된 바다. 본지(本誌)는 실로 전시 하에 있어서 조합원의 연성교양(鍊成教養)뿐만 아니라, 가정부인의 계도(啓導)라는 중대사명을 짊어지게 된 것이다.

본지의 간행에 즈음해서는 그 내용의 충실, 쇄신(刷新)에 부단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금후 독자제현의 절대적인 애고(愛顧)와 후원을 희망해마지 않는다. 또한 본지에 대해서 특히 조선총독부로부터 제자(題字)의 휘호(揮毫)를 내려주신 것은 본지의 가장 광영으로 삼는 바이고, 이 책무가 점점 중하고 또한 크다는 것을 깨닫는 바이다.

〈출전 : 卷頭言, 『半島之光』 1941년 4월호, 1쪽〉

135) 감옷 소매로 한 번 건드린다는 뜻으로, 약한 상대편을 간단히 물리침을 이르는 말.

[1-2]

원전달웅□(遠田達雄□)

시국하에 있어서의 반도 민중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그 목표는 무엇인가? 그 대답은 극히 간단명료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들 반도 민중의 정열과 멸사봉공(滅私奉公)의 각오가 필요하다. 환언하면 반도 민중생활의 쇄신과 대어심(大御心)¹³⁶⁾에 봉공하여 모신다고 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의 쇄신에는 타오르는 듯한 정열이 필요하고, 멸사봉공에는 각자 그 직역(職域)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우리들은 직역봉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 번 더 깊이 음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직역봉공이란 각자 각각의 부서 부서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며 그 직에 힘쓴다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 대어심을 명심하여 지키며, 국가적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가적 행동이라고 하는 무엇인가. 어쩐지 확실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할 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극히 확실한 것이다. 즉 국가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직역봉공을 단지 그 부서 부서에서 힘쓴다고 하는 것만으로 해석할 수가 없고, 그 행동이 황국신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아무리 직역에 충실□□해도 황국신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사고방식을 하고 있으면 결코 봉공을 드린다고는 할 수 없다. 즉 개인으로서의 활동이 모두 국가적인 것, 전체적인 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대륙병참기지라는 커다란 성업을 짊어진 반도 민중은 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실로 황국신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국민이 되는 노력과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출전 : 遠田達雄□, 卷頭言, 『半島の光』 1941년 5월호, 1쪽〉

2) 모략에 걸리지 마라

지금의 전쟁이 총력전이라고 일컬어지지만, 그 의미는 후방의 국민이 가장 잘 인식하고, 또한 명심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이다. 무력전 외에 경제전, 사상전, 모략전 등이라고 가지각색으로 일컬어지듯이 전쟁이 커지고, 길어지면 질수록 저 수단 이 수단 모든 수단방법으로 상대를 해치우러 달려드는 것이다. 그래서 적이 어떤 방면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오더라도 거기에 지지 않을 정도의 주의와 결의가 필요하다. 그것이 총력전이다.

특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선전(宣傳) 능란한 적 미영(米英)의 모략인, 상대의 배후에 손을 써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마음을 교란시켜 결속을 흩뜨려서 이른바 후방의 전력을 무너뜨리려 달려드는 것이다. 전 해에 이탈리아가 완전히 걸려들었다. 이것을 생각하면 서로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이 혹독한 전시생활에 대한 불평 등이 조금이라도 마음 한 구석에 있다고 하면, 이윽고 거기가 적의 모략 입구가 되는 것이다. 이것에 이겨내기 위해서는 뭐라고 해도 빈틈없는 일본국민으로서,

136) 천황의 마음.

필승의 신념에서 생기는 부동의 철벽심으로써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출전 : 「謀略にかゝるな(卷頭言)」, 『半島の光』 1944년 7월호, 1쪽〉

3) 증산포진(增産布陣)

눈부시게 빛나는 햇살에 무럭무럭 자라는 짙은 초록의 벼, 상쾌하게 지나가는 바람소리도 지금은 전선(前線)에 울려 퍼지는 폭음, 합성의 메아리도 들려온다. 개인 날이나 굳은 날이나 오로지 한결같이 한 알아라도 많이, 하고 기도하는 마음은 그대로 증오하는 적 미영을 때려눕히고 쳐부수는 전쟁으로의 마음이다. 여기도 실로 적전(敵前)이다. 아무리 불길히 흑독하더라도 또한 어떤 재난이 닥쳐오더라도 단호히 싸워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겨내야 한다.

하늘을 상대로 하고 흙과 싸우는 농사의 고귀함은 천은(天恩), 지은(地恩)을 사람의 힘으로 두 배 세 배로 하는 점에 있다. 기후가 아무리 적당하고 순조로워도 농지가 아무리 상토(上土)라고 해도 근로(勤勞)가 없는 곳에 무슨 천혜(天惠)가 있을까. 자신의 전력을 다하고 다해서 또한 부족한 곳을 묻는 경지야말로 진정한 증산이 있고, 승리가 있다.

바야흐로 전국(戰局)은 중대 이상으로 중대해지기 시작했다. 이윽고 결실을 맺을 벼농사에도 거국적으로 필승필기(必勝必期)의 희념(希念)이 깃든다.

〈출전 : 「增産布陣(卷頭言)」, 『半島の光』 1944년 8월호, 1쪽〉

4) 비상의 힘

일본국민은 황실을 중심으로 우리러 맺는 두 개의 가족이다. 1억 모두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신의 자식이다. 그 관계는 무한(無限)의 커다란 힘을 발휘한다. 평소는 마음이 떠나 있던 사람도, 유사시에는 마음을 협력하고 힘을 합하여 난국에 임한다. 이것은 혈연이 갖는 그윽한 힘이다.

평소 들어올리지 못한 듯한 무거운 물건도, 여차해서 화재 등의 경우에는 정신없이 밖으로 들어내오며, 나중에 깨닫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나 하고 여겨질 때가 있다. 그것이 인간이 소유한 힘의 신비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도 적용된다.

우리들의 조국이 지금 희망의 기로에 서서 1억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평소의 마음가짐으로, 평소의 힘을 내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바야흐로 적은 우리 본토를 향해서 육박해 왔다. 더구나 그 기세는 강하다. 우리들은 지금이야말로 국난(國難)이 더하면 더할수록 서로 사이 좋게 지내고 서로 도와 철석(鐵石)같이 굳게 단결하여 적에 부딪쳐 이를 때려 부수지 않으면 안 된다. 평소 할 수 없는 것도

지금은 해치울 수 있는 것이다. 적을 격멸한 후, 뒤돌아보아 “어떻게 그 때는 그런 힘이 나왔을까” 하고 서로 이야기할, 힘을 지금 내자.

〈출전 : 「非常の力(卷頭言)」, 『半島の光』 1944년 9월호, 1쪽〉

10. 『라디오 강연강좌』 사례

1) 오다케 주로(大竹十郎), 지원병제도의 시행에 즈음하여

조선총독부 내무국장 오다케 주로(大竹十郎)

오늘은 진무‘천황’(神武天皇)¹³⁷⁾제의 가절(佳節)입니다만, 더욱이 우리 조선에서는 반도주민이 오랫동안 대망하고 있었던 육군특별지원병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 것이고, 실로 의의 깊은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원병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이 제도는 어떻게 시행되어지기에 이른 것인가 말씀드리면, 조선에 대한 취급을 순차적으로 ‘내지(内地)¹³⁸⁾와 똑같이 한다는 것은 ‘한일합방’ 당시부터의 이상이고, 소위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지(聖旨)는 다이쇼‘천황’(大正天皇)¹³⁹⁾의 조서(調書) 중에 명백히 제시된 황모(皇謨)¹⁴⁰⁾입니다. 따라서 역대 당국은 이 근본방침에 입각해서 예의경륜(銳意經綸)에 힘쓰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양 민족은 원래 동종동근(同種同根)이라고는 하면서 언어, 풍속, 습관 등을 전혀 달리 하는 것이므로, 모든 방면에서 이 이상을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일석일조로는 도저히 허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병역에 관한 제도와 같은 경우는, 직접 국가의 존망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므로, 신영토의 ‘신민(臣民)’으로 하여금 이에 관여시킨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진정 민족 동화의 결실을 거두어 조선 사람들이 ‘국어’도 말하는가 하면, 신사에도 참배하고, 교육도 보급하며 완전히 일본인이 된 후에야 비로소 생각할 수 있는 바라서 결코 일부 인사의 요망이나, 일반 민중이 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서 가볍게 허용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반도는 합병 이래 바야흐로 20년 하고도 또 8년이어서 이 동안 역대의 능위는 말할 필요도 없이 선현의 노력과 반도민의 자각 수양의 효과는 이번 사변에 즈음해서 출정군대의 송영, 위문에, 국방헌금이나 비행기 헌납에, 신사에서의 전첩(戰捷) 기원이나 봉고제(奉告祭)에 열렬한 애국심이 되어 샘물이 솟아나오는 것처럼 자연스런 형태로 아무 때나 도처에 뿜어나와서 이에 그 결과로서 지원병 제도의 탄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즉 본 제도는 반도민의 지성이 하늘

137) 일본의 초대 ‘천황’.

138) 구 일본제국의 지역개념으로 홋카이도나 오키나와 등 변방을 제외한 일본 본토.

139) 일본의 제123대 ‘천황’(1879~1926).

140) ‘천황’이 국가를 통치하는 계획.

에 통한 결과로서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럼 다음에 이 제도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채용되어야 할 인원 및 입영부대입니다만, 이것은 매년 조선군 사령관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육군대신이 상주재가(上奏裁可)를 거쳐 이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최초의 채용 수는 400명이고 그 중 200명은 보병으로서 12월에 입영하고, 100명은 치중병(輜重兵)¹⁴¹⁾ 특무병으로 하고, 100명은 고사포병 보충병으로서 모두 다음 해 6월에 입영 또는 소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영(在營) 기간은 보병은 약 2개년입니다만, 치중병 특무병 및 고사포병 보충병은 4개월 내지 2개월의 단기입니다. 또 지원자에 대해 어떠한 병종(兵種)에 편입되는 지는 군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제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선(內鮮)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려(聖慮)'에 입각하는 것이므로 그 채용된 지원병의 취급은 완전히 '내지인'과 똑같습니다. 즉 조선인 지원병만 특별한 부대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고, 징병에 따라 입영하는 '내지인'과 서로 같이 완전 동일한 부대에 편입되어져서 완전 동일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진급에 대해서도 또한 그 급여에 대해서도 결코 차별은 없고, 동일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재복무를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동일하고, 하사관 혹은 장병으로 진급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유사시에는 '내지'의 장병과 함께 국토방위에, 혹은 공성야전(攻城野戰)의 중임에 종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대한 후는 완전 '내지인'과 동일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지원병의 요건은 징병에 따라 입영하는 '내지인'을 표준으로서 결정되게 됩니다.

즉 그 요건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연령 17세 이상의 남자인 사항입니다. 17세 이상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몇 살이든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징병에 따른 '내지인'과 서로 같이 단체훈련을 받는 것이고, 그 '내지인'은 대체로 만 20세이므로 우선 20세 전후의 연령이 적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둘째로 체격 등위 갑종(甲種)인 사항입니다. 이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체강건이라는 사항으로, 가장 가까운 공의(公醫)든지 관공립 병원의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면 대개 판명이 됩니다.

셋째로 신장 160미터 이상인 사항으로, 그 이하의 신장이 작은 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넷째는 총독부 육군병 지원자 훈련소 과정을 수료한 자인 사항입니다.

이 훈련소는 이번에 새롭게 경성에 신설되었고, 지원병으로서 채용될만한 예정자를 수용하여, 입영 전 대개 6개월간에 걸쳐 그 심신을 단련하고 복역 상 필요한 훈련을 시행합니다. 이상 네 가지 요건을 요합니다만, 마지막 요건인 훈련소의 사항에 관해서 지금 조금 말씀드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소는 올해 6월부터 경성에 개설되었습니다만, 이곳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연령, 체격, 신장에 대해 방금 말씀드린 지원병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더욱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본적지 도지사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첫째로 학력에 대해 수업연한 6년의 소학교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는 '내지'에서 의무교육이 행해지고 있어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음에 가정 자산에 대해 본인이 없는 동안 일가의 생계 및 가사에 지장이 없는 자가 아니

141) 탄약, 식량 따위의 병참 물자의 운반·보급을 담당한 구 육군의 병과.

면 안 됩니다. 물론 본인에 대해서는 입영 후는 물론, 훈련소에 입소하면 훈련소 내에 숙박하게 되고 식량은 지급되며 모자, 양복, 구두 등은 대여되므로 특별히 대단한 비용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사상 견고로써 정신에 이상 없는 자일 것을 요합니다. 군인 생활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생사를 올타리로 자주 곤고결핍(困苦缺乏)에 견뎌야 하므로 상당한 맹훈련이 행해집니다만, 이를 극복할 정도의 굳센 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밖에 범죄를 범해서 중형에 처해졌거나, 본인 또는 친권자가 파산자로 복권을 얻지 못한 자 등은 자격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상과 같고, 방금 마침 제1회에 채용될만한 400명에 대해서 원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망자는 오는 4월 10일까지 본적지 소할(所轄) 경찰서에 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본적지 외에 거주하는 자 예를 들면 다른 도에 있다든가, '내지' 또는 만주, '북지(北支)'¹⁴²⁾에 있다든가 하는 사람도 물론 출원할 수 있습니다만, 모두 원서는 본적지 소할 경찰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제도 발표 이후 훈련소에 관한 규칙에 따르지 않고 총독부라든가, 혹은 육군이라든가, 헌병대, 경찰서 등에 원서를 내신 분도 모두 이번 규칙에 따라 다시 재 출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출원자에 대해서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 소할 도지사가 신체검사, 구두시험 및 소학교 졸업 정도에 따라 국어, 국사 및 산술 세 과목에 대해 학과시험을 행하고, 그 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해 6월에 입소하는 전기생과, 12월에 입소하는 후기생으로 구분하여 소요 수를 훈련소장에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 도지사로부터 전기생으로서 추천되어진 자에 대해서는 훈련소장은 6월 초순 신체검사를 행하여 채용자 200명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 채용자는 6월 15일에 훈련소에 입소하여, 11월까지 훈련을 받으면 그 졸업 전에 조선군 사령관은 거듭 신체검사 및 학과시험을 행하여 병적 편입 처분을 행하고, 이에 비로소 지원병으로서 보병 현역병에 편입되는 것으로 결정하면, 12월 10일에 소정의 연대에 입영하게 됩니다. 또한 후기생 200명은 동일 수속에 의해 12월 1일에 훈련소에 들어가, 다음해 5월까지 훈련을 받고 6월 1일에 입영 또는 소집됩니다.

우선 대체로 이상과 같습니다만, 금년은 생도모집 공시와 원서 마감 날짜 사이에 여유 날짜가 없으므로 지망자는 신속하게 경찰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조선에 본 제도가 시행되어진 것에 관해서는, 완전히 획기적 일대 영단(英斷)이 됨으로써, 내외 식자 사이에서는 이상한 관심을 가지고 이 실적 여하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일 조선신궁을 비롯해서 각 신사의 대전(大前)에서 엄숙하게 봉고제가 거행되었고, 도처에서 축하 모임이 아주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현재와 같은 사변 하에서는 지망자는 극히 근소할 거라는 예상을 하는 자도 꽤 있습니다. 단 저는 어디까지나 반도민 다년의 요망했던 점을 돌아보고 또한 이번 에 발로된 애국열을 헤아려서, 오히려 본 제도 시행이 늦어진 것을 증명할만한 사실이 잇달아 나타나 본 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다른 중요한 수많은 숙제가 순차적으로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본 강연을 끝마치겠습니다. (4월 3일 DK에서 방송)

〈출전 : 朝鮮總督府內務局長 大竹十郎, 「志願兵制度の施行に際して」, 『ラヂオ 講演講座』 제3집, 1938년 5월, 2~6쪽〉

142) 일제시대 중국 북부를 차별하여 쓴 말.

2)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綠一郎), 후방보국강조주간에 즈음해서 - 후방보국의 대입

정무총감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綠一郎)

1

오늘 경사스러운 ‘천장절(天長節)¹⁴³⁾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정신총동원, 후방보국 강조기간이 행해지고 ‘전선(全鮮)¹⁴⁴⁾에 걸쳐 각종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가 하에 이 운동이 행해지고 있음에 즈음해서 저도 한 마디 그 취지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사변(支那事變)¹⁴⁵⁾이 일어나고 어느덧 10개월을 경과했습니다. 요전 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황군’은 육지에, 바다에, 하늘에, 본래의 면목을 발휘하여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이 위대한 전과를 획득한 것입니다. 필경 이 전선 장사(將士)의 용맹과감, 유악(帷幄)¹⁴⁶⁾에 있어서의 작전 우수, 후방을 맡은 국민의 단결—그들 요소가 딱 일치한 결과에 의한 것이어서 그 커다란 힘의 원천이 하나로 ‘천황폐하’의 능위로 발하는 까닭을 헤아리곤 새삼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받았습시다.

바야흐로 ‘황군’의 접거지역은 ‘북지 오성(五省) 외에 ‘중지(中支)’의 삼성(三省)에 걸쳐 일본 전국에 더욱이 홋카이도를 합쳤을 정도의 넓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일본과 손을 잡고 만주국과 사이 좋게 지내며 동시에 동양 평화를 도모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세 개의 정권이 조직되어, 우리나라의 협력 하에 건전한 발육을 시작했습니다. 실로 동양의 역사가 여기에 일변하려고 하는 엄숙한 사실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이고, 진무 조국의 대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팔굉(八紘)을 덮어서 우(宇)로 삼고 싶구나」라는 말이 동아시아에서 생생히 실현하고 있는 것을 이 또한 커다란 감격으로써 마음에 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미를 갖는 바의 사변은 말할 필요도 없이 아직 진행 중도에 있는 것이고 이미 일단락 지어진 것도 아닌가 하면, 중국이 보이기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이를 전선에 관해 바라 본다면 ‘황군’은 황하 선과 진포(津浦) 철도를 진압함에 따라서 무한(武漢)¹⁴⁷⁾ 압박의 형태를 갖추고 전사(戰事)는 여기에 제1단에서 제2단으로 이행을 보이는 정세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한 상대방의 지나군은 이제까지의 전투로 도처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는 말씀드리지만, 더 상당한 병력을 거느리고 항전 태세를 계속하고 있으며, 장정권(蔣政權)의 재정 상태도 악화의 일도(一途)를 겪으면서도, 필사의 힘으로써 더욱 결사적인 항전을 계속해 가는 것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지나에 관계있는 제 삼국의 동향에 있어서도 유럽 정세의 변화에 따라, 과거의 어느 시기에 있어서 보 다도 표면 완화를 본 느낌은 있지만 2·3 방면으로부터 하는 무기 제공과 같은 경우 여전히 장정권 응

143)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의 ‘천황’의 탄생일을 일컬음.

144) 전 조선의 의미.

145) 중일전쟁.

146) 작전을 짜는 본영, 또는 참모.

147) 중국 양쯔(陽子) 강과 한수이(漢水) 강이 합쳐지는 곳에 있는 도시.

원 의도 하에 계속되어지고, 국가에 따라서는 장기전에 의해 일본 국력이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점차 감모(減耗)해 질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것조차 엿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 표면적인 면도 있는가 하면 이면적인 면도 있는 복잡한 국제적 동향에 대해, 우리들은 조금의 방심도 있어서는 안 될 시기입니다.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이러한 것들의 사정을 판단하여 국면은 바야흐로 완전히 장기전, 지구전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고, 이 시국의 단계에 임하여 우리들 국민이 다 같이 이 현실을 인식하여, 한층 커다란 각오로써 사태의 발전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자명한 바입니다.

2

그렇다면 여기에 말씀드리는 커다란 각오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의미하는가 라는 것이 됩니다만, 그것은 밖에서 싸우는 ‘황군장병’으로 하여금 실로 후고의 염려가 없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상태를 후방 국민 전체의 책무로서 유지하는 것을 완전히 달성해야 됩니다.

이미 세상 일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근대의 전쟁은 매우 거액의 비용을 요합니다. 비용을 요한다고 하는 것은 물자를 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무기탄약 종류뿐 만이 아니라 아마추어에게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듯한 종류와 양에 걸쳐 물품이 준비되고 또한 소비되는 것이어서, 사변이 한(限)한 다든가, 스테이플파이버¹⁴⁸⁾를 목면이나 모직물 속에 혼합시킨다든가, 철 그 밖의 중요 금속류나 가솔린 소비를 제한한다든가, 잇달아 통제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만일 국민 대중이 그와 같은 입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각 종류의 물자에 걸쳐 수입이 있음을 믿고 방종, 무반성한 소비로 흐른다고 하는 듯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분명한 대로 물가의 등귀를 초래하고, 국가 재정·국민 경제에 대해서 무척 유해한 결과를 미치는 것이어서, 그 심한 경우는 대전 후에 유럽 제국이 힘들어했던 소위 악성 인플레이션이 되어 국민 생활이 내부에서 붕괴하는 듯한 위험한 경우에 이른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독일은 구주대전 때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졌다”고 일컬어졌습니다. 전선에서는 항상 승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물자 결핍, 물가 등귀 때문에 국내의 사상이 동요하여 국력전에 지는 원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이 전선에서 싸우는 장사(將士)에게 후고의 염려를 없게 하고, 빈틈없이 안을 보호하는 임무는 주로 이런 의미에 관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경우 전 국민이 마음을 합해, 수입품이나 군수품 관계물자를 중심으로 소비 절약에 힘쓰고, 그리하여 군수 조달의 원활을 도모하고, 물가 등귀를 방지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다음에 이것을 금전 방면에서 생각해 보면, 정부는 금년 1년 동안에 대충 50억 엔의 공채를 내었고, 1개월 당 4억 엔이라는 현금이 여러 형태로 민간에게 흘러나오게 됩니다만, 국민소득이 되어야 할 그

148) 인조섬유를 짧게 잘라 양털이나 솜과 같은 모양으로 정제(精製), 방사(紡絲)한 섬유.

적지 않은 부분이 저축으로 향하지 않고 구매력이 되는 경우는, 거기에 물가 등귀와 공채 불소화를 함께 초래하게 되는 이치입니다. 지금은 군수품 관계의 산업을 중심으로 그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제계에는 활발한 경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 일면에는 염려해야 할 벼락부자 같은 풍조까지 발생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시국에 의해 급격하게 소득 증가한 사람들이 호운(好運)을 만나게 된 듯한 기분으로 점점 돈을 물 쓰듯이 쓴다고 하는 따위의 경박한 풍습이 생기면, 국가사회는 극심한 악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조선에서는 군수산업의 인기인 증공업이나 기계공업의 발달이 뒤쳐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전시경기 현상은 '내지'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그러나 지하자원 개발이 낡은 광산경기를 비롯하여, 총독부 예산의 팽창, 조선군 하에 있어서의 군수 조달 등 각 □의 사정에 따라서 시국의 호(好) 영향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시국 관계로 새롭게 소득이 증가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해 국민으로서의 진중한 고려가 바람직한 것입니다. 즉 내가 번 돈이니가 내가 마음대로 쓴다고 하는 듯한 개인 본위의 생각이 아니라, 만일 그와 같은 태도로 국민 누구나가 사치스러운 소비에 빠진다면 어떠한 결과가 국가사회에 이르고 나아가서는 전국(戰局)에 어떠한 작용을 미치겠는가를 숙려하여, 그 부분을 가능한 한 저축으로 향하는 것이 후방 국민의 마음, 해야 할 임무인 까닭을 알아 주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의 습관으로서, 한 번 높이 끌어올려진 생활수준은 훗날 그 부득이한 필요에 의해서라도 좀처럼 갑자기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주대전 후 불경기가 내습했을 때, 전쟁 벼락부자 일행이 하루아침에 몰락하여, 그 중에는 생활의 길을 발견하지 못해서 자살을 행한 사람까지 몇 사람인가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 시국에 혜택을 받고 있는 산업이 전후에 갑자기 위축되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부문(部門)의 여하에 따라서는 부진에 빠지는 것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국 하에서 호경기를 구가해 가고 있는 방면의 사람들에게는, 깊이 장래도 생각하여 사치스러운 풍습으로 흐르는 것을 피하고, 그 생활수준을 무턱대고 끌어올리지 않게 유념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봉급생활자를 비롯하여 시국에 의해서 조금도 소득을 증가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물가 등귀 때문에 사실 상 감수(減收)된 사람들도 적지 않게 존재하고, 이 사람들은 절약저축 따위는 아마도 인연이 멀다고 하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그 경우에도 더욱 한 걸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은 어떠한 시국인가,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을 보아도 국제관계를 보더라도 더욱 보다 중대한 사태를 대비해서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입니다. 평시가 아니고 전시입니다. 전장에서 밤낮으로 우리 장병은 위협에 몸을 드러내어 일사보국(一死報國)의 분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국민만이 평시의 소비생활 그대로를 지속하며 충분하다든가 부족하다든가 하고 있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마땅히 전장의 장병과 함께 난고(難苦)를 나누어, 이 성전종국(聖戰終局)의 승리를 제패하는 결의 하에 후방 국민의 당연한 임무인 소비절약과 저축에 힘써 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물며 이런 것들은 국민된 의무를 완수함과 동시에 그 사람 자신의 생활은 방만(放漫)을 정리하여 견실해지고, 불시의 경우에 처해 동요하지 않는 근거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시국 이후 국민의 애국심을 증명하는 바의 수많은 미담가화(美談佳話)가 우리들의 꺾불을 자극시켰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빈자(貧者)의 일등(一燈)¹⁴⁹⁾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행한 것이야말로 귀하고도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설사 얼마 안 되는 것을 절약해서라도 저축을 명심함이 애국의 길을 필적한다는 것을 일반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이상(異常)의 성적이 보여 지기를 저는 믿는 자입니다.

4

각자가 소득의 증가 부분이나, 소비의 절약에 따라 저축된 것이, 혹은 은행이나 금융 조합의 예금이 되고, 우편저금·간이 생명보험 등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공채 소화의 원천을 형성하게 되어, 그것이 혹은 병기탄약의 제조능력, 그 밖에 군수 관계의 생산력 확충 자금으로 변해서 전시 경제가 순조롭게 조달되게 되는 것이어서, 대장성(大藏省)¹⁵⁰⁾에서는 1년에 80억 엔을 목표로 국민저금의 장려에 착수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중 공채 소화에 약 50억 엔, 생산자금에 약 30억 엔이 돌려지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정부에서 방출된 거액의 돈이 한 번 국민의 품에 들어가서 그 대부분이 종래 이상의 구매력이 되지 않고, 저축의 형태로 중앙은행으로 환원되어 공채 소화에 향해진다고 하는 상태가 반복되어지는 한, 현재 정도 즉 1년에 5·60억 엔 정도의 전비(戰費) 지출은 그것이 몇 년 계속되더라도 우리 국방이 축날 걱정은 없습니다. 지나 측 또는 제 삼국은 우리나라 재정 경제의 평시에서의 상태로부터 관찰하여, 일본이 전쟁을 일년간 계속할 수 있는지 어떤지의 여부를 의심하여, 전국을 장기 소모전으로 유혹함에 따라 일본을 경제적인 고경(苦境)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것 같습니다. 즉 일본에서의 국민정 신총동원으로써 하는 재정경제의 전시체제가 어떠한 위력을 발휘하는가를 완전히 계량할 수 없었던 점에 커다란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우리 국민이 진정으로 거국일치, 정부 소정의 방침에 따라 절약 저축으로써 물건의 양질을 경계하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태도를 일관한다면, 장기 지구전은 우리나라에는 아무런 통양(痛痒)을 느끼지 못하고 곤란한 것은 지나 측이고 점점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에 반하여, 국민이 비상시 재정경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치·낭비의 풍습에 빠져 저축을 게을리 하는 경우는 물가 등귀를 초래하고, 해외 수출의 조건을 악화시키므로 국제 신용이 저하하여 현재의 환시세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중요 수입물자의 매입가격이 높아지는 결과, 국내에서의 노동 임금의 등귀와 함께 생산비가 높아 진다. 그것이 또한 과장된 물자 등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서로 순환적이 되어, 소위 악성 인플레이션을 이끌어오는 사정이어서, 지나 측이나 그 밖의 남을 해치려는 제삼국이 생각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요컨대 우리국민은 지금 신중히 분별해야 할 시기에 임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개 년 5·60억 엔의 전비(戰費) 지출은 몇 개년 계속되어도 아무런 두려워 할 바는 없지만, 단지 전 국민이 마음을 다잡아, 절약과 저축을 힘쓰지 아니하면, 생각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국민 경제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국민 각 가정의 단위로 성립되고 있는 이상, 이를 실행하는 것은 우선 가정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많은 가정에서 실행되는 것이므로 자신의 가정 한 집 정도가 무엇을 하더라도 대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식으로 무례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

149) 가난한 자의 정성어린 하나의 등은 부자의 허영에 찬 만의 등보다 낫다는 말.

150) 국가예산의 편성, 재무, 통화, 금융, 증권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의 행정기관.

는 사람들이 많은 때에는, 애써 국가를 안전하게 하는 취지를 달성함이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전 국민이 애국의 정성으로써 결부되어, 함께 마음을 합하여 어떤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영세(零細)한 것이 모여서 커다란 힘의 원천이 되는 까닭을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 후방 보국운동으로 지도자가 되고 또한 실행자가 되신 각 단체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바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관청이 일편의 명령을 내어 장려하는 것보다도 민간 식자 여러분들이 민중의 선두에 스쳐서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유의의하고 동시에 유효한가는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들 실행 요목은 결코 일시의 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이 주간으로써 기를 수 있는 생각 습관을 시국이 계속되는 한, 영구히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될 성질의 것이므로, 지도적 입장에 계시는 각 단체의 분들에게 있어서도, 금후에 일관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당국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입법 수단, 혹은 교화적 수단에 의해서, 반도에서의 경제태세의 만전을 기하는 것입니다만, 관민 단결하여 중대한 후방의 내용을 정하는 의재(意在)에 있어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점차 민간 측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추상적 제목보다 구체적 제목으로 이동하여 강조하고 계속되기를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제1 착수로서의 본 주간의 행사가 전조선에 걸쳐, 현저한 성적을 보일 것을 바라며, 또한 믿는 바입니다.

(4월 29일 관저로부터 중계)

〈출전 : 政務總監 大野綠一郎, 『銃後報國の大任』, 『ラヂオ講演講座』 제4집, 1938년 6월, 2~8쪽〉

3)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역사상으로 본 내선(內鮮) 관계

문학박사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1

이번에 총독부의 의뢰로 반도 각지를 순회강연하며, 어제 이쪽에 도착했습니다만, 총독부로부터 부여받은 강연제목은 「역사상으로 본 내선 관계」라는 것이었는데 전 이 제목을 받았을 때, 의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전에 재선(在鮮) 15년에 이르고, 이쪽에 있었을 때, 선배나 동료와도 서로 얘기하며 내선일체라고 하는 것이나, 내선융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창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대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한결같이 나아가야 한다고 한 적이 있고, 더구나 지금 또한 새롭게 이런 문제가 나에게 부여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이렇게도 여겨집니다만, 깊이 생각하면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사변에 조우하여, 동아 신 건설에 노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한층 내면적 결속을 필요강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총독부는 이러한 준비 하에 위와 같은 제목을 나에게 부여하셨을 것입니다. 즉 융화한 후에도 한층 더 융화하고, 일체가 된 후에도 더욱 일체의 강화발달을 구하려고 하는 공작임에 틀림없다고 이렇게도 생각한 것입니다만, 더욱 걱정이 된 것은 이쪽 반도의 역사교육의 현상, 즉 내선관계 역사에 대한 인식의 어떨까입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진전되고 있는 건가, 당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인가, 사변은 바야흐로 신 단계에 들어가고, 우리 일본의 지위는 한층 더 양양해가고 있는 동시에 역사교육 또한 신 전개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본 부(府)의 계획 중에 이와 같은 의미가 동반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여쭙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 한 가지 사항을 특히 우려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관찰 하에 부여된 바의 제목의 강연을 해온 것이므로, 내용은 극히 평범하고, 또한 새로운 학문상의 문제와 같은 경우는 한 가지도 문제 삼아 보려고는 하지 않고, 문제 삼은 것은 현 신 단계에 따라야 할 각오라고도 해야 할 방면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즉 제가 서술한 바의 재료는 학교의 학생 등이 교문을 떠나서 재학 중의 '노트'를 꺼내어 복습한다고 하는 정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습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논어의 서두에는 학이시습지불역열호(學而時習之不亦說乎)라고도 되어 있고, 대성(大聖) 공자(孔子)까지도 시습(時習) 즉 때때로의 복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잠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대개 오랫동안 다른 '코스'를 취한 바의 민족사회 융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교류를 필요로 하고, 그 교류의 정도에 따라 결과는 측도(測度) 되어집니다. 그러나 문화교류는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고, 쌍방이 갖는 바의 문화 포합(抱合)입니다. 한쪽 편으로부터만 흐르고, 다른 한쪽 편으로부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류가 아니라 오히려 역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왕왕이 인식됩니다.

'내선'의 문화교류는 어떠한 현상인가?, 그리고 그와 같은 역 효과적 불안은 없는 것인가?

저는 이런 점에 대해 반도 사회에는 상당한 걱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그것은 걱정 소위 오해입니다만, 그러한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어떤 작용에 의해서 생겼는지, 저로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입니다.

저는 이번 순회 중, 마침 총독부 당국에 의해 발표된 민사령 개정 건, 즉 조선의 성씨 개칭에 관한 '뉴스'를 읽고, 또한 그것이 어떤 형태로써 반도사회에 받아들여지게 한 것인가를 주시했습니다만, 이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총독부의 진심의 배려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는, 지금의 일본인은 황당하다, 뭐든 스스로를 좋다고 보고 타인을 나쁘다고 본다, 반도에 성이 있는 것은 고유하다. 오늘날 일본 씨명으로 따라 고유의 성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은 불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의 '황도(皇道)'라고 하는 것은 그런 편협한 것이 아니라고 듣고 있다는 이런 견해를 내리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물론 이 견해의 근거가 없는 것은, 이어서 진술하겠지만, 그러나 이 개정령 공포 당시의 당국 담(談)이라는 것을 신문에서 배견하자, 혹은 이런 오해, 제가 얘기하는 역 효과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여겨졌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본 부 당국은 조선 성씨는 고유의 것이 아니다, 지나(支那)의 모방임에 틀림없다, 이번 개정은 개정이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환원 즉 반도 사회인이 갖는 바의 고유의 것으로 환원하는 것이고, 그것은 마침 일본인의 씨명과 동일한 것이다, 일본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꺼이 개정을 강구(強求)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듯한 의미가 가해져도 괜찮은 것이 아닐까, 그런 해석이 당국 담으로서 부적당하면, 학자들을 동원해서 선전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인가? 반도의 사회에는, 역사적 착각이 다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날

의 성씨 상만의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들 일본인은 이 착각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없으면 자칫하면 불필요한 역 작용을 일으킬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강연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 성씨 환원 얘기는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반도에는 뛰어난 지지(地誌)가 있습니다, 즉 본국흥지승람(本國興地勝覽)¹⁵¹⁾이라고 하여, 현재로는 몇 개 정도의 복제품도 생겼습니다. 어느 분의 서재에도 갖추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펼쳐 읽어보면, 반도의 지명에 고유의 것과 개칭의 것 두 종류가 있고, 그것은 전 반도적이라는 것으로 주의되어 있고, 그러나 이 고유의 것과 개칭 그것과의 사이에는 전혀 별개의 표현이 있는 것에는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례를 들면 이 경성에 가까운 곳에 수원(水原)이 있다. ‘스이겐’ ‘스이온’이라고 읽혀지고 있지만, 이 「승람」에 의하면, 수원은 원래 고구려의 ‘매홀(買忽)’ 즉 ‘마이고홀(マイゴホル)’이었다. 이것을 의역하면 ‘수촌(水村)’과 ‘수역(水域)’이라든가 하는 것이고, 그들 한식(漢式)의 수원으로 개칭한 것입니다. 함경북도에 경성(鏡城)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승람」은 고유명으로서 ‘수즉고(水即古)’라고 하고 있고, ‘수즉고’는 즉 여진어(女眞語)의 ‘경(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경성’인 한식문자로 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저 한 예입니다. 이렇듯이 반도에는 도처에 이런 고유명이 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개칭하고, 오로지 한토(漢土) 즉 지나(支那) 식의 명칭을 채용한 것은 어떤 정세였던 것인가? 저는 이런 추세는 신라 통일 전후 즉 진(陳) 수(隋)로부터 당(唐)에 이르는 동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대충 1,200년 이전이래의 일입니다만,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지나 의존의 외교방침이 위에서 결정하여, 사회인의 사상도 일반적으로 이런 공기로 은밀하게 녹아들어 바꾸어 말하면, 한문화의 완전 포로가 된 결과인 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지금 이 성씨도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현상은 반드시 반도만으로는 한정할 수 없습니다. 반도의 북방, 지나에 인접한 민족에게는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즉 지나의 이십일사(二十日史) 중에 「위서(魏書)」¹⁵²⁾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방민족의 선비(鮮卑)¹⁵³⁾의 건국인, 이 위(魏)의 역사입니다만, 이 사서 속에는 ‘관씨지(官氏志)’라는 일편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씨지에는 선비 고유의 씨명과, 개칭된 한식의 성과의 대조가 신중하게 기록되어 있고, 더구나 그 개칭 연호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만, 조선의 오늘날의 성이라는 것도, 대개는 ‘관씨’였습니다. 단지 이쪽 문헌에는 아직 ‘관씨지’에 상당하는 것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만, 어쩌면 그것은 신라의 경덕왕(景德王) 대 무렵부터 토인활복(土人活服)으로 우선 행해지고, 나아가서 전 반도에 행해지기에 이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의 하나로서, 저는 일본서기(日本書紀)의 기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즉 고구려의 명재상 천개선문(泉蓋鮮文)의 읽는 법입니다만, 천개선문 즉 ‘가이소분’ 또는 ‘가이소문’은 이름이고, ‘천(泉)’은 성인 것, 말할 필요도 없지만, 「서기」는 천(泉)을 ‘센’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리’라고 읽고 있습니다. ‘이리’는 당시의 고구려의 국어 천(泉)에 해당합니다. 이 예로써 추찰하자면, 오늘날 반도의 사회에 가장 많은 김(金) 성과 같은 ‘금(クン)’이라든가 ‘김(キン)’이라든가의 한음으로 불려진 것은 나중 세상의

151)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오기임. 조선 성종 때, 조선 전도의 지리, 풍속과 기타사항을 기록한 책이다.

152) 중국의 정사의 하나로, 북위(北魏)에 관한 사서.

153) 중국의 이민족인 오호(五胡) 가운데 고대 북아시아에 살던, 몽골 족과 퉁구수 족의 피가 섞인 유목민족.

일이고, 당시는 '시라(シラ)'라고 읽은 것이었습니다. '기리산(キリサン)'이 아니라 시라이(白井)라든가 하는 씨명과 서로 통한다고 보아 조금도 부적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씨에 대한 것을 서술하는 것이 너무 길어졌습니만, 제가 말씀드리며 주의 드리고 싶은 점은, 오늘날의 성씨 개정은 곧 환원이다, 개정 즉 '내지'와 같이 고유의 것으로 고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반도의 옛날로 환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관한 일석(一石)은 우선 가지고 반도사회에 던져둘 필요가 없었던 것인지, 이 번 제 여행 중 지방 사람들을 만나 이런 종류의 담화를 교환할 기회도 있었습니만, 제 견해는 쉽게 받아들여졌고, 받아준 쪽도 다수 있었던 것처럼 판단되어집니다.

3

그런데 이 문화 환원입니다만, 제가 보는 바로는, 목하 반도 정세를 배견하여, 문화상의 융화, 정신적 일체 강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선진인 '내지' 사람들의 지도 유액에 기대해야 마땅하지만, 문화 환원의 제공을 충분히 터득시키는 것이 가장 유효 적당한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종교 즉 불교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옛날 백제의 성명왕(聖明王)은 불교를 일본에 보내셨습니다. 이후 천 년 남짓의 오랜 이 동전(東傳)은 중단되지 않고 일본 불교는 오늘날과 같은 내용 외관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 사실(史實)은 여러분이 숙지하시는 바이고, 반도 불교의 쇠퇴(衰態)를 일으키는 길은 단지 이 '내지' 불교의 내용 지도를 전해야 하는 것도 또한 숙지할 바입니다만, 저는 이 여러분의 각오 위에 주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지' 불교의 이입이식이라고는 해석하지 말고, 조선 불교의 환원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방순회 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은행, 저는 이것을 일본은행이라고 말해 두었습니다만, 이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그것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맡긴 쪽도 완전히 잊어 버렸던 형태입니다만, 받은 은행으로서는 이자에 이자가 쌓여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에 달했습니다. 조선의 문화가 예전에 일본으로 이입된 것이 그렇습니다. 현재 '내선인'의 사회에 어떤 사양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진해서 이 예금을 인출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일본은행의 점장은 빈틈없고 친절합니다. 그리고 원리금을 전부 갖춰가도 인출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듣게 되어 사람들에게 웬지 모르게 쾌활한 기분이 품게 되는 것처럼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4

이쪽 반도의 역사교육은 이러한 기초 상에 놓여져야 하지 않을까요? 문화 환원입니다. 반도인은 '환원'에 의해서만 전도에 광명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원'의 내용은 극히 광범하고, 물심양면하고, '내선만(內鮮滿)을 통틀은 광대한 영토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선문화의 환원'은 보다 한층 확대성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14년 11월 21일 DK로부터 방송)

〈출전 : 稻葉岩吉, 「歷史上より見たる内鮮關係」, 『ラヂオ講演講座』 제15집, 1940년 8월, 2~6쪽〉

4) 미나미 지로(南次郎), 시정30주년을 환영하며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

금일 총독 정치를 조선에 개시한 만 3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라디오를 통해 전국 여러분에게 제 감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바야흐로 세계대전의 폭풍이 마구 포효하고 있습니다. 조선으로서도 또한 전시체제 하의 국민으로서, 여러 영향을 받으면서 작년의 대 한발(旱魃)의 고통을 훌륭하게 극복하고, 금년의 결실의 가을에 안심하고, 반도 2천 3백만 민중의 평정한 생활 속에서 이 기쁨의 기념일을 맞이한 것은 진심으로 감격해 마지않습니다.

금일 조선총독부에 있어서도, 엄숙한 시정기념 식전을 거행하고, 돌아가신 공로자나, 직장에서 쓰러진 사람들의 초혼제를 개최하고, 조선 개발의 공로자를 표창하는 등, 각종 의의 있는 행사를 행했습니다만, 전조선 2천 3백만 동포는 모두 상당한 감격으로써 이 날을 맞이한 바입니다.

‘일지사변(日支事變)¹⁵⁴ 격발 이래, 반도 동포는 ‘내지’의 여러분과 함께 ‘황국신민’으로서의 마음을 같이 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애국 행위가 되어 나타난 결과, 혹은 지원병 제도, 혹은 교육 상 ‘내선’의 불차별제도 철폐, 또는 오랫동안 지나 식이었던 씨명을 ‘내지인’ 식으로 고칠 수 있는 제도 등, 여러 제도가 실현되어서, 내선일체의 관념이나 관습이 현저하게 발전해온 것은 지나간 옛날을 되돌아보고 실로 감개를 금하기 어려운 바입니다.

합병 이후, 일반 민중 사이에 자주 오해가 있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30년으로서, 현금과 같은 온화한 내선일체의 상태에 달한 원인은 무엇인가 말씀드리면, 아마도 다음 세 가지 점을 주요한 것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천황폐하’의 능위입니다. 역대 정치 국(局)을 담당한 사람들, 아울러 ‘내선’인중의 선각자, 지도자들의 열성적인 노력에 의한 것은 물론입니다만, 요약한 바, 조선동포에 대해서 ‘일시동인(一時同仁)¹⁵⁵의 뜻으로써 임하게 하시는 ‘천황폐하’의 대 능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백인(白人)의 나라들이 그 외지의 이민족에 대한 정치 방침이, 단지 본국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쥐어 짜내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토착민중의 지식이나 능력을 가능한 한 낮은 정도로 고정시켜 둔다는 듯한 방식과, 조선의 정치는 전혀 근본을 달리 하여, 반도 동포의 지능과 행복을 하루라도 빨리 ‘내지인’과 동일의 높이 끌어올려야 된다고 하는, 힘차고 아름다운 정신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를 말씀드리면, 구미인(歐美人)이 토착민을 토인(土人)이라고 부르며 자민국과 판연히 차별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일본은 조선인에 대해 우리들 동포라고 부르며 무차별로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30년 동안에 총독은 수차례 바뀌었습니다만, 통치 정신은 시종일관하여 오늘날에 이른 것입니다.

둘째는 반도 동포의 이를 받아들이는 밑바탕이 좋았던 점입니다. 아무리 정치의 정신이 선량하다고

154) 중일전쟁.

155) 한유의 「원인(原人)」에 나오는 말로, 성인이 누구나 평등하게 똑같이 사랑함을 이르는 말.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밑바탕이 좋지 않았다면 나쁜 토지에 좋은 종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내선일체는 실현되지 않을 테지만, 다행히도 반도 동포의 대다수가 순량(純良)하므로, ‘폐하’의 뜻으로 나오는 정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진해서 ‘황국신민’이라고 하는 생각이 해마다 번성해지는 것이 유력한 이유의 하나입니다. 이 경우 조선민족이 야마토(大和)민족¹⁵⁶⁾과, 옛날부터 혈통의 흐름과 문화의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역사의 밀접한 관계가 이 기세를 도운 것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셋째로는 만주사변에 이어서 지나사변, 그리고 이를 에워싼 세계정세에 대해 ‘내선인’과 함께 공동 운명과 공동 이상을 분명히 서로 인식한 점입니다. 반도의 동포가 ‘내지’ 동포에 대해서 다른 행동을 취하는 듯한 것은, 앞으로 세계를 살아나갈 방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만, 내선일체로서 극복하고 통합만 하면, 동양에서도, 세계에서도, 일본 국민으로서 함께 커다란 이상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깊이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은 과거에 있어서 내선일체를 깊이 할 수 있었던 원인일 뿐만 아니라, 금후에 더욱 와야 할 40주년, 50주년을 지향해서 내선일체를 더욱 더 강행해 가는 소임을 맡아, 우리들의 노력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선에 거주하는 ‘내지인’의 수는 약 65만 명입니다만, 반도인이 ‘내지’에 거주하는 자는 약 100만, 만주에 있는 자가 약 120만 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들 ‘내선인’이 섞이는 곳에는 언어나 풍속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오해 등도 일어나기 쉽고, 또는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서로 감화나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본국민이 일억일체(一億一體)가 되어 대동아를 건설해야 할 때라는 것을 자각하여, ‘내선인’ 다같이 함께 깊이 스스로를 반성하고, 적어도 이 일체 관계를 오해하는 듯한 언동을 삼가며, 일시동인의 성지(聖旨)에 따라 드릴 수 있듯이, 실로 일가족 내의 형제 동포로서 서로 손을 잡고 ‘황국신민’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특히 이 기회에 내·외 여러분에게 유의를 부탁드려 두고 싶은 점입니다.

합병 시에 태어난 조선의 아기는 오늘 서른 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국가의 봉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늙은 청년 조선의 면목을 상상하시기 바라며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10월 1일 총독부 관저로부터 전국중계)

〈출전 : 朝鮮總督 南次郎, 「始政三十周年を迎へて」, 『ラヂオ講演講座』 제16집, 1941년 1월, 2~4쪽〉

156) 이름의 유래는 일본에서 4세기에 존재했던 야마토 시대에서 따왔으며, 일본인을 구성하는 주된 민족을 일컫음.

11. 기타

1) 홍양명(洪陽明),¹⁵⁷⁾ 동경기행 - 조고자대회(操觚者大會) 보고로서

[1-1]

동경기행 - 도중견문기(途中見聞記)

조고자대회 보고로서

(1) 동경(東京)에서

홍양명

□□ 동인제형(同人諸兄)! 6일 사명에 따라 동아조고자간담회(東亞操觚者懇談會)¹⁵⁸⁾에 출석하기 위하여 만주국내 각 신문잡지대표 30여 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신경을 떠나 동경(東京)에 오게 된 것은 나 혼자서 일에 억매이지 않고 상당한 장시간 전시하 내지(內地)¹⁵⁹⁾의 풍물에 접하게 되는 기회를 독점하는 것이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물론 나는 이미 3년간이나 동경 생활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동경을 마지막 떠난 지가 벌써 12년이나 되었으므로 이미 기억조차 희미하였던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으나 그 전과 상모(相貌)¹⁶⁰⁾를 전혀 달리한 대(大)동경에 대하여 10여 년 간에 전변된 그 전과 아주 다른 별개의 현재의 나의 인간 척도(尺度)를 가지고 지금의 동경을 본다는 것은 호랑이 담배 먹는 식의 관찰이 될 터이나 기왕 온 □□□와 아울러 과거의 사람의 현재의 동도견문기(東都見聞記)를 약간 써 볼까 합니다. 다분히 고색창연한 회고적인 보고가 될지 모르지만……

애애(皚皚)한¹⁶¹⁾ 빙설(氷雪)이 자욱한 남만평야(南滿平野)를 지나 어둠속에 반도(半島)의 강산을 스쳐 지나고 한 길로 동경까지 온 길은 자고 먹고 단원들끼리 떠들고 하여 문자 그대로 엉뚱뚱 여행이었으므로 특히 느낀 것은 없다. 부산에 도착하기 전 몇 시간의 낮에 본 철도연선의 풍물은 상상하듯이 참담한 것이 아니었음은 다행한 일이었다. 작년 가뭄피해가 가장……(판독불가)……도(道)의 철도연□□□는 수해 상습지로서도 유명한 곳으로 낙동강의 치수(治水)공사(工事)는 조선 내 치산치수사업 가운데의 백미(白眉)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수해와 가뭄 재해가 빈번한 곳이면 빈민구제를 겸한 토목(土木)과 사방공사(砂防工事)의 □□적 진행으로 연선(沿線)의 도로는 완벽에 가깝게 되고 험벗었

157) 홍순기의 필명.

158) 조고자(操觚者) : 문필에 종사하는 사람 즉, 신문잡지의 기자, 편집자, 평론가, 문필가들을 일컫는 말.

159) 일본을 뜻함. 이하 일본으로 고침.

160) 얼굴의 생김새, 용모.

161) (서리나 눈 따위가) 희고 흰 모양.

던 산야는 어디나 거의 나무가 심어져 수해에 대한 영구적인 방지책은 힘 있게 집요하게 기반을 세운 듯 하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생활고에 시달린듯하면서도 부지런히 작업하고 힘 있게 살아가려는 사정이 역연히 있는 □□□□□□□□□□ 초라한 흰 저고리 검은 치마에 장을 보려고 연선(沿線)으로 나온 듯한 농촌모녀가 열차가 지나가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죄 없이 순수한 얼굴을 볼 때 가뭄재해(旱害) 지대의 농촌 광경이 생각되어 나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부산 잔교는 관부연락선(關釜連絡船)에 한두 번 늦어지지 않는 것은 오히려 예외가 되듯이 승객홍수로 두통을 앓고 있는 중이다. 만지대륙(滿支大陸) 왕래가 엄청나게 대량적으로 증대되는데 더하여 조선인의 노동 이민(勞動移民) 내(內) □□□□□□□□□□ 정원의 □□환(□□丸)이 3천 명을 태우건만 그래도 타지 못하여 한 선편(船便) 두 선편을 돌연히 배타기 위하여 기다린다는 현실은 대륙발전의 방향을 가리키는 기뻐할 지표이며 성장하던 고민(苦悶)이라고 할 것이다. 국체(國體) 여행(旅行)이라는 호위(虎威)¹⁶²⁾를 빌려 용이하게 발□(發□)한 나는 오랜만에 한계를 대해(大海)의 □□한 정신에 살리고자 시모노세키(下關)까지 8시간을 거의 갑판(甲板)위에서 보내었다. 반내륙(半內陸)인 만주국내의 끝없는 대지에서는 감상할 수도 없는 □□의 큰 바다의 광파만경(廣波萬頃)은 우주(宇宙)의 새 정기를 머릿속에 주입□□□□□□□□□□ 수조(水鳥)들이 유유히 놀고 있는 하얀 대파(大波)의 포말(泡沫) 사이를 용솟음쳐 뛰어오르는 비어(飛魚)의 도약(跳躍)은 문자 그대로 생명의 약동(躍動)을 상징함과도 같이 바다의 자연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풍물시(風物詩)이다. 시모노세키(下關)에서 차를 타고 밤 사이에 동해길(東海道)을 거쳐 아침에 후지산의 설봉(雪峰)을 멀리 쳐다보면서 정원(庭園)과 같이 아름답게 규모 있게 잘 경작되고 잘 정리된 연선의 □□고 푸른 배추까지 있는 초춘(初春)의 정원 풍경을 흠뻑 만끽(滿喫)하면서 8일 오후 동경역에 도착하였다.

〈출전 : 洪錫明, 「東京紀行 - 途中見聞記」, 『滿鮮日報』, 1940년 02년 16일〉

[1-2]

동경기행 - 긴자풍물첩(銀座風物帖)

조고자대회 보고로서
 (2) 동경에서
 홍양명

문화인의 대부분은 농촌과 □□□□□□ □□의 성과에 기생하는 소비군(消費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문화재의 생산요소로서의 존귀한 가치도 없이 약간의 기계적인 정신노동을 하고는 어떻게 인생을 빠르게 살찌게 지낼까하는 □□한 꿈을 꾸고 다시는 인간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대도회(大都會)이다. 대도회의 규모가 5면을 □□□□리한 회색(灰色)의 꿈도 크다. 그러므로 말하

162) 권세있는 사람의 위력.

길 지금 580만 동양 제일의 메트로폴리스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클로즈업된 대동경(大東京)이 홀로 예에서 빠질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부허(浮虛)한 소비(消費) 문화의 대표적 전시장이 긴자(銀座)¹⁶³이다. 나는 대동경(大東京)의 생산측면을 먼저 보는 것이 본질적인 관찰인 줄을 알면서도 역시 소비적 요소(要素)의 하나의 분자에 지나지 못한 나의 발은 동경에 도착하자마자 제1착으로 소비 전시 전으로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구제할 수 없는 창백(蒼白)한 약점이지만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정직한 고백이다.

소위 ‘오피스타임(office time)’이거나 ‘러시아워(rush hour)’가 된 후 어깨와 어깨를 마주치고 긴자(銀座)로 몰려나오는 남녀대군의 각양각색(各樣各色)의 복장과 그 걸음걸이와 용모를 보면 ‘몸뺄’을 입고 일을 하고 있는 농촌부인 국민복을 입고 굳건한 국민체조(國民體操)에 시국인식을 머리에 가득 담은 농촌중견청년의 그것과는 정확히 180도의 방향에 있는 듯하다. 그들의 복장 대부분은 남녀를 불구하고 양장(洋裝)인 것은 물론 될 수 있는 대로 첨단(尖端)적이라는 것이 □□의 □□이 되어 있는 듯하다. 아메리카적인 것, 파리적인 것 또는 남미적인 것 모든 것 가운데의 최고의 것이 고□(考□)될 것이다. 여자들은 대담한 메이크-업으로 뽐내고 있다. 그들 가운데 또는 일부 소수의 걸음걸이는 건국체조(建國體操)적인 것보다도 ‘탱고’의 스텝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물론 빛과 음향(音響)과 사람의 웃과 □작(□作)이 운연(運然)한 어조(語調)를 이루어 도시의 미관을 더하는 것은 저주(呪呪)할 일이라기보다도 바랄 일이다. 그러나 내가 본 긴자(銀座)의 풍경은 이 중대 시국 하에 있어서는 조화되지 않는 듯하다. 특히 중성화적 경향이 눈에 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포-즈’를 한 사람들이 간간히 보인다. 물론 나의 관찰은 □□이 있을지 모른다. 오랫동안 대도회에서 떨어져 있던 반감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긴자 소비문명이 주는 인상은 침정(沈靜)하고 사색(思索)적이고 윤리적인 동양적인 것에서 광□(狂□)하고 본능적이고 이기적인 서양적인 것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모던 남녀의 구매욕을 도발시키는 ‘대파트’¹⁶⁴의 모든 □□스러운 것들의 진열의 미(美)-! □화(□化)한 콘크리트 고층건물들의 역학적 선과 면과 대조의 미(美)! 내운 간판에 써있는 영(英), 불(佛), 독(獨) 각국어의 첨단적인 칭호! 이곳에는 좋게 말하면 세계문화가 즐편히 혼선교통(混線交通)되고 있다. 물론 □거주의(□居主義)에서 이문화도입주의(異文化導入主義)로 전환한지 한 세기도 못 되어서 서양물질문명을 완전히 흡수(吸收) 저작(咀嚼)¹⁶⁵하여 이제 이르러서는 불순한 서양문화의 정신적인 부분은 공제(控除)되고 있는 □□한 일본문명의 척도에서 볼 때 이러한 도회의 회색(灰色)의 감(堪)이 부허(浮虛)한 것이든 서양 모방(摸倣)이든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뿐 아니라 대도회에 이러한 회색의 감이 세기적인 광고(曠古)¹⁶⁶의 성전하(聖戰下)임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명랑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일본제국의 국민생활의 풍속(風俗) 정정(緘緘)한 것을 가리키는 바로미터로써 기뻐할 일이라고도 한 것이다. 그뿐이라? 이러한 완전히 서구화한 듯 한 거리의 생활풍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일본적이 것이 국민생활의 일체의 위에 확고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더욱 미덥고 경복(敬服)할 일이라 할 것이다.

163) 일본 도쿄(東京) 주오구(中央區) 남서부에 있는 고급상가이며 유흥가. 일본 도쿄 주오구 남서부.

164) 백화점을 뜻함.

165) 음식물을 씹음.

166) 전례가 없음. 만고에 없음. 미증유(未曾有). 공전(空前). 전대 미문(前代未聞).

□□을 하고 ‘아이-샤도우’를 하고 눈썹을 다 뽑아버린 ‘맷드리히’식(式)으로 그린 양장 모던 걸과 중성화한 첨단남아(尖端男兒)들의 일단이 머리를 숙여 이중교(二重橋)¹⁶⁷⁾ 앞에서 경건한 태도로 유구(悠久) 2천6백 년 연면(連綿)¹⁶⁸⁾한 기원가절(紀元佳節)을 축하하고자 머리를 수그리고 황거(皇居)를 통과하는 광경을 나는 11일 날 이중교 앞에서 배견(拜見)하였다. 아마 ‘대파트’의 직원들인 모양!

이들 선남선녀가 국민복을 입은 청년단원이나 ‘하찌마끼’¹⁶⁹⁾를 한 소방원에 비하여 경조경신의 관념이 더 강한지 약한지 이것은 아마 영원의 수수께끼가 되겠지만 어느 쪽이나 집에 돌아가면 똑같은 가미다나(神棚)¹⁷⁰⁾가 있고 황국신민이라는 자만심과 기대가 있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특수한 프롬나드(散步)로(路)인 긴자(銀座)의 피상적인 소비면만 보고서 지금의 동경문명을 운운하는 것은 돌□다고도 생각된다. 일본의 근대문명을 체□(體□)한 ‘헤른’씨가 O[ADOPT의 O-심택(深擇)], A[ADAPT의 A-적응(適應)], E[ADEPT의 E-숙달(熟達)] 문명이라는 약자(略字)로써 세계문화를 널리 채택 도입(導入)하여, 일본적 성격에 적응시키고 다시 숙달된 신문명이 일본문명의 특질이라고 한 말은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수긍된다. 밤이 되면 긴자(銀座)도 죽은 듯이 자숙자계(自肅自戒)¹⁷¹⁾의 규율이 엄수되고 물자부족의 소리가 높으나 조금도 전시하의 제도(帝都)같지 않게 긴장(緊張)하게 너무나 명랑하게 만족하게 시민생활이 시작되는 대동경의 자태에 접하여 도학자(道學者)도 못되면서 쓸데없이 큰 문제도 아닌 긴자풍경(銀座風景)만을 비방(誹謗)한 것은 나의 13년만의 동경 제1보가 너무나 감상이상의 만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생긴 착각인지도 모르겠다. 논제 탈선한 것을 밝히고 다음부터 조고자간담회(操觚者懇談會) 중심의 견문기를 쓰고자 한다.

〈출전 : 洪陽明, 「東京紀行 - 銀座風物帖」, 『滿鮮日報』, 1940년 2월 17일〉

[1-3]

동경기행 - 동문(同文)의 득실(得失)

조고자대회 보고로서

(3) 동경에서

홍양명

□□동인(□□同人)제형(諸兄)! 우선 신상(身上)의 고장으로 □□하여 통신(通信) 올리지 못한 태만(怠慢)을 관용하여주시고 좀 늦어진 감이 있으나 이하(以下) 이곳은 □건(□件)인 조고자간담회(操觚者懇談會)의 경과를 보고하는 자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167) 니주바시(二重橋). 일본 도쿄 황거 앞에 놓인 다리를 말함.

168) 혈통, 역사, 산맥 따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잇닿아 있음.

169) 일본어로 머리띠. 옛날, 무장할 때 머리를 천으로 감고 그 위에 투구를 씌.

170) 일본에서 집 안에 신위(神位)를 모셔 두고 제사 지내는 선반.

171) 스스로 삼가고 경계함.

간담회(懇談會)는 예정대로 광휘(光輝)있는 2천6백 년 기원절의 가절(佳節)에 일만지(日滿支)의 유력한 언론기관 관계 및 재외 방□ 신문 관계자 대표 합(合) 2백여 명의 출석으로 흥아(興亞)의 의기(意氣)와 희망에 궁성부 대회장에서 반□(反□)되는 천황폐하만세의 우렁찬 백만 인의 소리와 호응(呼應) 제1일 개최의 막(幕)을 열었다. 이에 앞서 오전 9시에 간담회 참가자 일동은 일제히 궁성 이중교 앞에 참집하여 삼가 황거(皇居)를 봉배(奉拜)하고, 다음 일동은 동경에서 제공한 자동차에 분승(分乘)하여 메이지신궁(明治神宮)을 참배하고 이어서,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에 이르러 신동아건설의 인주(人柱)가 된 황군장사(將士)의 영령(英靈)에 대하여 경건한 태도로 묵도(默禱)를 올렸다. 오후 1시 30분 동경회관에서 열린 개회식의 경우를 약기(略記)하면 식사(式辭)는 □□목(□□木) 동경시장이 병중이므로 대리로 오쿠보(大久保) 조역(助役)이 '동아시아국이 현재 신질서 확립의 단계에 들어선 바 선린우호의 실(實)을 거듭에는 여론의 지도자인 언론기관의 공정한 봉사가 일층 더 요망된다'는 의미의 요강이 있고 힘찬 격려로 개시되어 외상, 내상, 대만(對滿)사무국, 흥아원(興亞院) 총무장관, 만주국 대사 등의 축사가 있었고 다음 각지대표의 축사가 있었는데 총괄적으로 말하면 흥아운동에 대한 조고자(操觚者)의 임무의 중대성을 재론삼론한 것이다. 개회식이 끝난 후 일본저널리즘의 한편의 권위이며 임내각(林內閣)때인가 문부대신 물망에 올랐다가 자유주의(自由主義)란 이유로 군부의 반대를 만나 이중에 동경 조일(朝日)□사장자리만 내놓고 쾌쾌(快快) 불락(不樂)하다가 심기일전 다시 문장보국진(文章報國陣)의 선두에 나선 시모무라 히로시(下村宏)전사와 특색 있는 문명비평가 무로부세 고신(室伏高信)씨(현 일본평론사 편집장)의 특별연설이 있었다. 시모무라 박사의 연제(演題)는 '동문(同文)의 득실(得失)'이라는 것인데 요지는 일본과 지나는 한문(漢文)을 사용하는 동문관계에 있으나 발음방법과 의미를 달리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대체로는 서로 이해를 증진함에 편리한 점이 있는 반면 엉뚱한 착각도 생겨 □실(□失)되는 경우도 있는 즉 동문인 이상 발음도 통일하고 의미도 공통되도록 함이 동아신질서 확립상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그 예로써 문부성 국어심사위원(文部省國語審査委員)의 한 사람이며 언어에 대한 연구가 깊은 노박사(老博士)는 여러 가지 경우를 방인(傍引)□어(□語)하여 지나대표들을 위하여 통역하는 통역군의 □□으로는 도저히 전체의미를 완역할 수 없는 곤경(困境)에 함입(陷入)케 하여 만장(滿場)을 실소(失笑)하게 하는 유쾌(愉快)한 장면도 있었다. 박사의 예증은 도도(滔滔) 수백 건에 일일이 소개할 수 없으나 현저한 것만을 보면 '동서'는 일본어에서는 동편서편(東便西便)이지만 지나어의 의미로는 '물건'이니 동문의 의미가 없고 모처럼 써붙인 '장병님 고맙습니다(兵隊さん有難う)'의 포스터를 지나인은 '병대(兵隊)가 난(難)이 있다'고 해석하니 의미통일의 필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 지나의 지명의 일본식용법(日本式用法)은 북경(北京)─'빼킹(ペーキン)' 상해(上海)─'상하이(シヤンハイ)' 청도(靑島)─'칭타우(チンタウ)'식의 지나음 그대로의 용법도 있으나 중경(重慶)을 '츄우케이(チウケイ)' 항주(杭州)를 '코우슈우(コウシュウ)'라고 읽는 방법도 있으니 상해를 '쥬우카이(ジウカイ)' 청도를 '세이토우(セイトウ)'라고 읽어서 혼동된다면 동문(同文)의 실(失)이라는 것이다. 장개석(蔣介石)을 외국인들은 영불독어 어느 언어로나 지나어 그대로 '창카이식(CHANG-KAI-SITK)'¹⁷²⁾이라고 쓰고 중경 역시 모두 지나음(支那音) 그대로 'CHUNG-KING(충킹)'이라고 쓰는데 일본에서는 '쇼우카이세키(シヤウカイセキ)' '츄우케이

172) 'CHANG-KAI-SIK'의 오타로 다음호에 수정하였다.

(チユウケイ)라고 읽는 사람이 많으니 말만 동문(同文)이고 실제상으로는 외인(外人)보다도 괴리되는 점이 있으니 지명 인명의 고유명사부터라도 지나 지인명(地人名)을 지나음 대로 통일하여야 동문의 득이 되겠다는 것을 역설한다. 다음 일본어는 지나인이 배우기 쉬운 듯 하면서도 동일한 자(字)의 독법(讀法)이 경우(境遇)마다 달라지는 예가 많아서 착각하게 되니 이것도 단연 통일해야 된다는 것이다. 특히 본래의 일본어를 한자로 추후(追後)로 ‘아테지(アテジ)’¹⁷³⁾한 것은 이 예가 심하다는 것을 예증한 후 해(海)－우미(ウミ)라는 자(字)는 카이(カイ)의 음이 □준(□準)인데 해삼(海鼠)일 때는 ‘나마고(ナマゴ)’가 되고 해담(海膽)¹⁷⁴⁾인 경우는 ‘우니(ウニ)’가 되고 해돈(海豚)¹⁷⁵⁾일 때는 ‘이루카(イルカ)’ 해표(海豹)¹⁷⁶⁾의 시는 ‘아자라시(アザラシ)’가 되는 등 약 70종의 변화가 있으니 동문의 득을 획득하려면 카이(カイ)¹⁷⁷⁾의 음독법으로 하여 해돈(海豚)－‘카이돈(カイトン)’ 해표(海豹)－‘카이헤우(カイヘウ)’로 통일해야 된다는 것이다.

선일(先日)－‘센지츠(センジツ)’의 ‘일(日)’자 음독만 아는 지나인이 일본을 ‘지츠펙(ジツボン)’이라고 하는 데도 할 말이 없으니 적어도 일자일음(一字一音)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등등 수백의 예증은 실로 만장을 도연(陶然)¹⁷⁸⁾케 하여 경청할 바 있었으나 너무 길어지므로 그만 소개하거니와 요컨대 결론으로 동문의 실(實)을 더하기 위하여 조고자들의 언어에 대한 단일독법촉성운동(單一讀法促成運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출전 : 洪陽明, 「東京紀行 - 同文의得失」, 『滿鮮日報』, 1940년 2월 27일〉

[1-4]

동경기행 - 언어와 개념

조고자대회 보고로서

(4) 동경에서

홍양명

다음에 무로부세 고신(室伏高信) 씨의 『일본과 동아신질서』라는 제목의 강연이 있었다. 씨(氏)는 단상에 저돌적인 거구를 나타내자마자 연제(演題)는 주최자가 맘대로 붙인 것이라고 하면서 동아신문잡지대표대회라고 하여 나를 잡지 대표격으로 한마디 연설을 하라고 하는 것이나 현대에 있어서 잡지의 사명이야말로 건설적 창조적인 점에 있어서 너무나 평범(平凡) 속화(俗化)한 신문(新聞)보다는 훨씬 중

173) ‘당자(当字)’, 일본식 발음으로 같은 한자를 혼용하는 것.

174) 성게.

175) 돌고래.

176) 바다표범.

177) ‘海’의 음독은 ‘카이(カイ)’, 혼독은 ‘우미(ウミ)’이므로 음독으로만 읽자는 주장.

178) 도연하다 : 감흥따위가 북받쳐 누를 길이 없다.

대하므로 요다음에 이런 대회에는 잡지신문대표대회로 한 것이라고 개구일번(開口一番) 주최측을 비유하면서 대잡지기자로서의 품위 및 잡지 그것의 존재의 의의 큼을 강조하면서 완전히 청중을 리드(lead)하였다. 슈팽글러의 『서양의 몰락』을 처음으로 일본에 소개하여 『빛은 동방에서부터』를 저작하는 등 분방(奔放)자유(自由)한 필치로 동양문명의 재건을 고조하고 있는 특색있는 이 문명비평가의 도도(滔滔) 수천 언(言)의 연설은 그 필치가 반(反)의 묘(妙)를 회득(會得)¹⁷⁹⁾하고 있음과 같이 설왕설래 □환자재(□幻自在)로 듣는 자를 황홀(恍惚)케 하였으나 요약하자면 그 복잡한 내용은 아니다. 대체로 명론(名論)설(說)이나 명문장이 진실로 그 표시하는 내용보다도 교묘한 문구나열의 기(機)가 인심을 파악(把握)하여 이유없이 도연(陶然)하게 하는 바 있음과 같이 언어표현기술의 대숙수(大熟手)라고 할 무로부세(室伏) 씨의 연설은 그 방인(傍引)하는 바 널리 동서양에 대하여 일본의 고사기(古史記)를 예증하다가는 별안간 동반구(東半球)를 펼쩍 뛰어 넘어 ‘에로스신’이야기로 비약하는 등 재기종횡(才氣縱橫) 두뇌명석(頭腦明晰)치 못한 필자로써 충분히 전후관계를 연결하여 이해하려면 건우환(健隅丸) 썰이나 먹어가면서 들어야 될 지경이었으나 주의 깊게 대체의 개념을 파악하기에 노력하였다. 언어 자체는 개념의 표현형식이나 언어가 너무 발(發)된 결과 언어의 교묘한 결합은 개념 그것을 뛰어넘고 무시하게까지 되어 개념 없이도 무내용한 언어와 언어가 의미있는 듯이 비약(飛躍)한다는 것은 독(獨)¹⁸⁰⁾의 총명(聰明)한 대시인 괴테가 그 대작 『파우스트』속에서 □□ ‘메이피스로필레스’의 입을 빌어서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 있는 것이다. 개념없는 말이 제 멋대로 뛰어다니는 사회화(社會禍)는 지나친 지혜(智慧)의 인과응보가 아니냐”고 말한 말이 생각난다. 물론 무로부세 씨의 기교적인 다기다중 천(天)만홍의 표현법은 언어의 자유로운 구사(驅使)에서 오는 감탄할 정도의 명연설이었으며 요약되는 내용도 지당한 말이었다. 오직 기교적인 표현법이 좀 지나친 듯한 감이 있어서 이와 같이 나의 한쪽 머리는 언어와 □□만의 방향에 탈선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글로 쓰는데도 이와 같이 나는 □□으로 □□케 된 것이다. □□□□설 무로부세 씨의 이야기는 최소한도로 요약하면 “동아질서의 확립이 아시아 여러 민족의 세계사적 사명이나 아직 함축이 빈약한 듯한 그 내용을 충실하고 진정한 동양평화의 대궐도(大軌道)로 지나 민중을 유인하는 사명은 정치가도 아니요 실업가도 아니요 오직 저널리스트였을 뿐이나 저널리즘은 □□후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현대의 신문이 너무 속화(俗化) 타락(墮落)한 때문이다. 그러나 저널리즘은 역사에 선행하는 것이다. 저널리스트는 예언자가 되어야 된다. 민중의 나갈 길을 제시하는 저널리스트의 사명은 신의 섭리에서 선택된 최상급의 직업등이다.”하는 의사를 강조한 것으로 현재의 저널리즘의 실정에 불합(不合)한 이상론이었으나 적어도 조고자(操觚者)의 □□을 진작하는데 커다란 자극이 될 만한 이야기라고 감명을 바 있다. 씨(氏)의 광범 착잡한 어조를 이해하기 어려워 일일이 해석할 수가 없는 지나어 통역군(通譯君)이 가끔 이하는 세불상(說不上) (‘쉬부상-말할 수 없다)이라고 비명(悲鳴)을 울리는 것은 분명히 모르는 말을 어름어름 해석하는 것 보다는 유쾌(愉快)한 인상을 주었다.

간담회 제1일 일정은 이로써 마치고 밤에 동경 시장의 초연(招宴)이 있는 외에 특기할 것은 없다. 다

179) 마음속으로 깨달아서 알아차림.

180) 독일

음에 회의 제2일부터 종료(終了)일까지의 경과를 약설(略說)하기로 한다.

27일 부로 석간 1면 홍양명(洪陽明)씨의 동경기행문중 제5단 제1행 '쾌쾌불락(快快不樂)'은 '양양불락(洋洋不樂)' 제6절 제12행 '유□(有□ㄷ)'은 '유난(有難ㄷ)', 제7절 제5행 'SITK'는 'SIK', 동 제12행 □리(□離)는 괴리(乖離)의 오식(誤植)이기에 정정함

〈출전 : 洪陽明, 「東京紀行 - 言語와 概念」, 『滿鮮日報』, 1940년 2월 28일〉

[1-5]

동경기행 - 요나이(米内) 수상의 인상

조고자대회 보고로서

(5) 동경에서

홍양명

조고자간담회(操觚者懇談會) 제2일 개회에 앞서 오전 9시 참가자 일동은 수상관저를 방문하여 요나이(米内) 수상과 접견하였다. 의회개회중 촌□(村□)가 없는 수상의 몸으로 우리들 조고자 일동을 인견(引見)하여 주신 의의는 감탄할 일이었다. 요나이 수상은 사진에서는 해군복을 입으신 것을 많이 보였는데 통상제복을 입으신 것을 보니까 국한(局限)된 군정(軍政)에서 이제는 일본제국의 대재상이 되어서 정말 사면육□(四面六□)로 일을 많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실 몸이 되었구나 라는 감명(感銘)을 받았다. 6척 가까이 되어 보이는 위엄에 직립불이(直立不弛) 반석과 같이 튼튼하고 믿음직한 인상을 주는 요나이 수상은, 제자들을 대하는 스승과 같은 □독(□篤)하고도 엄격한 태도로 “일본의 희망하는 바는 항구한 평화상태이다. 우리들은 지금의 목적을 위하여 동아질서의 건설에 노력하고 있는데 이 이상달성에는 만지(滿支) 각국민의 협력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하여는 제군 고조자 각위의 임무가 중대하다. 분려(奮勵)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의 힘찬 격려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일본 측 대표 삼명실(森名室)신문사장은 “우리 언론계대표자는 당국을 지대□□하여 나갈 터인데 수상이 얼마 안 가서 그만두시면 안 되겠으니 적어도 3년이나 5년은 수약(受若)하여 주셔야겠습니다” 한 즉 요나이 수상은 머리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호호(好好)□ 같은 □진(□眞)하신 얼굴로 □□한 미소(微笑)를 띠신다. □□□□ 해 보이는 바 □□□□의 역사이면서도 □□의 □□이 있는 듯한 일언일구는 진실로 국민의 존경을 받을만한 □□과 같은 □□이었다. 세계에 □□한 강국대일본의 수상이라면 얼른 □□과 □력을 □□케 될 것이나 요나이 수상의 □□ 그렇지 않음을 느꼈다. 물론 천만인의 장 같은 당당한 감격이었다는 점에서 요나이 수상은 역대수상 중에서도 □□라는 □이 있다. 그러나 이보다도 힘차게 받는 인상은 □□하고 자비심있고 믿음직한 분이라는 □□한 감이었다. 요나이 수상은 의회□□이 있더라는 등 □□가가 아니시라는 말을 들으나 그 외 신념과 인격은 천만인의 □□보다는 나을 듯한 친화력을 가진 듯 하였다.

본 궤도(軌道)로 돌아가 간담회 제2일의 총회는 고□동맹통신사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간담제목으로 하나, 동아질서에 대한 협력방식에 대하여, 둘, 일만지(日滿支) 조고자의 친화연맹강화에 대하여 2건 제안 설명이 있는 후 긴급동의로써 왕정위씨에 대한 □□지지와 격려의 통□을 결의하고 다음에 만주신문 주간 입신(笠神) 씨는 만주국의 언론통제가 완벽에 가까운 현상을 설명하여 동아신질서 건설에 협력하는 신신문도덕 확립의 필요를 주장하여 만주국 대표로써의 면목을 □□케 하였다. 또 유신정부 선전국 비서 □임수(□任壽) 씨는 교묘한 일본어로 일지국교(日支國交) 회복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여 특히 일본조고계에 대하여 지나에 대한 정당한 □□을 요청하였다. □씨의 표현은 약 천간 흥분된 포즈로 지나 현세를 소개함에 있어 정당치 못한 태도 또는 인상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일일이 예를 들어 이러한 예가 일지친선을 저해하는 점이 많다고 통론하여 과연 그렇구나 하는 감명을 주었다. 최후에 중지대표 남경중국공론사(南京中國公論社) 주필 호한□(湖漢□)씨의 제안으로 동아신질서 건설의 성대(聖代)에 확고히 된 일만지(日滿支)군장병 및 보도(報道)전선에서 쓰러진 동지를 위하여 전원기립 1분간의 묵념을 바쳐 경의를 표한 다음 총원은 신문부회, 잡지부회로 나누어 오후 6시까지 신문잡지계의 제문제를 토의하였는데 일반에게는 별로 흥미없는 문제이므로 그 경과는 생략하기로 한다.

총회 제2일은 왕정위씨의 □관지중화일보사 대표 장건지(章建之) 씨의 연설이 있는 후 전일 신문부회에서 □원부탁이 된 ‘동아신문통신□연맹 결성 및 남경, 신경에서 대회 개최의 건’에 관하여 보고가 있었다. 즉 동아신문통신□연맹 결성의 건은 중요사항이므로 차기대회까지 연기함, 단 그때까지 □원회에서 □□심의함. 또 남경, 신경에서의 대회개최는 모두 정식소청을 받은 후에 개최기로 함. 이와 같은 보고를 승인하고 다음에 몽강대표 정□□씨로부터 동아신질서와 몽강신문계에 대한 연설이 있고 북지대표 청도신민보(靑島新民報)의 조작인(姚作寅) 씨의 ‘구미의존의 폐풍 타파’에 대한 연설, 이리하여 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1시에 간담회는 고야(古野) 동맹통신(同盟通信) 사장의 “대륙의 일부에는 현재 전쟁중임에 불구하고 본 간담회가 이렇게 성대하게 일지대표 2백여 명의 출석으로 개최되어 유종의 미를 얻은 것은 감사할 일이다”고 하는 의미의 폐회사로써 폐회되었다. 이 외에 야간에 각대표의 강연회 또 다음날은 동경 각 기관의 시찰견학 등 인망(忍忙)한 시찰 일정이 있었으나 동아조고자간담회에 관한 보고기(報告記)로는 이만쯤하고 돌아간 후에 귀로의 여중(旅中) 습유(拾遺)¹⁸¹⁾나 조금 써볼까 한다.

〈출전 : 洪陽明, 「東京紀行 - 米内首相의 印象」, 『滿鮮日報』, 1940년 02월 29일〉

2) 노창성(盧昌成), 라디오의 사명

아직까지도 국어¹⁸²⁾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가 조선 인구의 약 9할을 점하고 있는 우리 이 사회에 있어서 조선어방송에 의한 대중교육이 반도문화의 수준향상에 얼마나 중대의의를 가지고 있느냐 함은 새삼

181) 남이 잃어버린 것을 주움.

182) 일본어를 뜻함.

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요, 그 만큼 제2방송국을 담당한 우리로서는 절대적인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중대한 책임이 있는 곳에 반드시 다대(多大)한 고심(苦心)이 수반(隨伴)함이 원칙일진대 현대 라디오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방송의 국(局)을 담당한 우리들의 고심도 그만큼 큰 것이다.

우리들의 고심을 열거하면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별(大別)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니 하나는 '프로그램' 편성의 고심이요, 다른 하나는 연주(演奏)에 대한 고심이다. 이 가운데 후자는 주로 강연하는 당사자와 연예에 출연하는 본인 등에 속한 것이라 하겠지만, 전자는 순연히 방송의 국(局)을 담당 한 자에 속한 것으로서 방송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바리에테'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가. 어떻게 하면 실질적이며 취미적이며 시대적이며 기절적(期節的)이며 주지적(周知的)이며 순화적(醇化的)이며 향상 적일 것이냐 등 방송의 '프로그램' 편성은 참으로 세심을 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 가장 주요할 것은 무엇보다도 편성자의 주관적인 방면, 즉 편성자의 기호적 경향으로 '프로그램'이 편성되어서는 그것은 '라디오'의 사회적 성격을 멸각(滅却)한다는 그것이다. 물론 '프로그램'이 편성자의 두뇌의 산물인 이상 거기에 편성자의 주관적 방면이 전연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 일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도리어 사회적 실리를 재래(齎來)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편성자는 될 수 있는 대로 주관적 기호 경향을 배제하는 동시에 청취자의 객관적 기호경향을 널리 또 깊이 통찰해서 대중이 절실하게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적절하게 알려주고 간절히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을 취미 있게 느끼게 하여 '라디오'로 하여금 명실공히 청취자의 '라디오'화 하도록 '프로그램'의 내용을 편성해야 한다는 그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말함은 결코 방송의 국을 담당한 자가 함부로 무비판적으로 대중의 기호에 아유(阿諛)¹⁸³⁾하며 영합(迎合)하기만 치사(置事)한다는 것이 아니다. 대중의 기호가 아무리 객관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악질의 기호요, 저급의 기호라면 그러한 것은 단연배제하고 보다 더 양질의 보다 더 고급의 것으로 대치하여서 사회를 순화(純化) 향상(向上)하는 것이 '라디오'의 사명의 뚜렷한 일면인 것이나, 그렇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대중의 객관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방송의 존재 이유이므로 종래에 강연이며 강연에 대한 청취자의 객관적 취향을 여러 각도로 조사하여 진상탐지(眞狀探知)에 용력(用力)도 하여 보았으나 아직 만족한 결과를 얻어 본적이 없음은 방송국을 위하기보다도 청취자를 위하여 유감천만(遺憾千萬)인 일이다.

듣건대 영국(英國)에서는 청취자로부터 방송국에 항서(降書) 혹은 답서(答書)를 보내는 수가 1년에 백 만 통 이상에 달하므로 대중의 기호가 어느 방면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고찰하는데 다대한 편리를 준다고 한다. 조선에 있어서도 청취자 제위(諸位)가 방송에 대한 희망과 용구며 방송국의 문의에 가림 없이 그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주신다면 이는 다만 방송국을 편달(鞭撻)하여 방송으로 하여금 청취자의 방송화할 뿐만 아니라 연(延)하여는 반도의 교화향상에 다대한 공헌을 흥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감히 강호(江湖)의 청취자 제위(諸位)에게 일언(一言)을 붙이는 바이다.

(필자는 제2 방송부장)

〈출전 : 盧昌成, 「라디오의 使命」, 『매일신보』, 1940년 3월 23일〉

183) 아침함.

3) 이상협, 시국과 보도기관의 사명

참사 이상협(李相協)

때의 전시와 평시에 관계없이 보도기관에 항상 부여되어 있는 뭔가 일반적인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때 그 때의 사건을 신속하게 일반민중 앞에 공보하여 그 사태를 해명해 가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성과 새로움이란 항상 보도의 제일의적인 중요 면이다. 특히 뭐든지 스피드와 신기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현대 저널리즘에 가세된 오늘날의 보도 가치는 하나에 걸어서 이 현재성과 새로움에 있다고 보아도 좋다.

그 현재성과 새로움을 극도로까지 발휘하기 위해서 현대 보도에는 절대 속보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그 날에 일어난 사건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인쇄하여 그것을 가능한 한 빠르고 널리 전국 또는 전세계에 반포하는 것이 보도의 생명이고, 이 보도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모든 희생을 기울여 있는 만큼의 통신교통 기간과 속도성이 이용되고 있다.

이 속보주의와 함께 현대의 보도에 재차 기사에 절대 정확함을 기하는 것이다. 전에는 보도기사를 가능한 한 과장하여 함부로 민중을 자극하는 것을 일삼은 시대도 있었고 7분의 거짓에 3분의 이치라는 말도 있지만, 오늘날의 보도기사는 그러면 안 된다. 오늘날의 보도는 무엇보다도 그 사건의 사실에 철저한 보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것은 민중에게 필요 이상의 자극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외의 산지식을 정확하게 부여해주는 것이다.

불과 한 토막의 신문기사가 때에 따라서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민중에게 미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 일행(一行) 일구(一句)의 기사에 그만큼의 책임을 느끼며 한 자도 경솔하게 써내려갈 수는 없다. 가능한 한 사실을 치밀하게 조사하여 절대 정확함을 보증한 다음에 비로소 민중 앞에 보도하는 것이 우리 보도기관의 양심이자 임무다.

이상으로 서술한 것이 현대 보도의 일반적 사명이라고도 해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과 같은 전시 하에서 일단 그 의미가 강화되어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전시 하에서는 저 전장에 서는 병사들이 민속한 행동을 명령받고 있듯이 우리들에게도 절대로 민속한 행동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지나사변에서 동아에 새로운 질서가 오는 건설적인 전환기의 특징으로서 전국(戰局)과 사태가 매일 비약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때에 우리들은 가장 민첩한 행동에 의해 그날그날의 뉴스를 모집하고 민중 앞에 보도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예전에 윌슨씨 등은 “그 날의 뉴스는 의견의 양식이다”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오늘날의 뉴스는 완전히 민중의 그날그날의 양식 그 자체이고, 매일 새로운 뉴스를 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는 것이 시국에 보답하는 우리들의 사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내외 제 정세의 움직임에 가장 예민한 주의를 향함과 동시에 개개의 사건에 하나하나 정확한 주의를 살피려 가야한다. 그 신속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보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만을 논하고 말면, 언뜻 보기에 전시와 평시에서의 보도의 사명은 본질적으로는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러한 것들 위에 서서 하나의 새로운 중요한 사명을 전시 하에 있는 보도기관의 사명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그것은 이상 서술한 것을 전적으로 통일해서 행하는 하나의 국민적 사명이다. 이것은 이 시국에 있어서 특히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보도기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문은 사회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의미에서 사회의 거울이라고 일컬어지고, 보도의 순 객관성이 일컬어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피상적인 견해이며 사실에 있어서는 보도는 결코 단지 뉴스를 기계적으로 보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그 뉴스의 의의를 명백히 하며 우리들의 의견을 공표한다. 이것은 우리들이 어디까지나 공정과 진실 위에 서면서 항상 그 보도에 관해 그 책임과 방법을 분명히 하는 형태이며, 또한 여기에 보도의 도덕적인 의미와 우리들의 국민적 입장이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 보도기관도 국가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에 속해서 국가의 정책에 순응하며 협력하는 기관이다.

제1차대전 당시에 영국 정부가 특히 보도대신을 두고 모든 보도의 통일을 도모하게 하려고 했을 때, 신문은 국가와 독립적 존재라고 하는 반대론이 나와서 상당히 서로 논의한 것을 들었는데,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그 논의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보도기관은 처음부터 국민적인 기관이면 그것이 국가에 속하는 것은 새삼 논할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목적은 일반 국민 앞에 그것을 공보하고 그 상태를 분명히 함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공선(公善)¹⁸⁴⁾을 민중 앞에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항상 국가의 정책에 응하여, 총체 운동을 위해서 가장 굳은 협력을 기하는 것이다. 특히 전시 하에 있어서는 이것이 더욱 강화되어 우리들은 그때그때의 국책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 의미를 파악해서 충실하게 순응하여, 효과적으로 보도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평시의 보도자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사변에 참가하여 협력하고 있는 한 사람의 병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의 총력에서는 단순히 무력만의 전쟁이 아니고, 군사와 경제와 선전전의 협조 일치로 가져야 비로소 승리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로, 제1차 구주대전¹⁸⁵⁾ 시 저 독일이 무력에 이기고 선전에 졌다고 하는 것도 그 사실을 의미한 것이다.

이 선전전에 참가하는 자격으로서 우리 보도기관은 분명히 하나의 중요한 부대다. 물론 진실한 의미에서 보도와 선전은 일단 구별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면 보도는 가능한 한 일반적이고 시의적(時宜的)인 것을 기하는데, 선전은 조직된 특수한 사성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는 등…… 그러나 이 전시 하에서는 모든 것이 조직화되고 통일된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보도와 선전은 서로 일치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구주대전에서 독일은 전철(前轍)을 감안해선지 처음부터 전 선전기관을 조직적으로 통일해 가는 중에 보도기관에 대해서도 강력히 그것을 통제하고 뉴스의 모집과 배합에 있어서 선전성(宣傳省) 보도부 지도하에 D·N·B와 트랜스 오체안 2대통신사를 통해 대외선전을 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전시 하에서는 국가가 통신사 신문기관 등을 통일 지도해 가는 것은 당연한 국책이다. 또한 우

184) 공중을 위한 선(善).

185) 제1차 세계대전.

리들이 그 국책에 민감하게 응해서 하나의 전사로서 사변에 대응하는 것이 시국에 대한 우리들의 유일한 사명이다.

사변에 참가하고 협력하는 유력한 부대로서 우리들의 보도기관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한명 한명이 병사로서 확고한 발판을 디디어 제삼 전선에 섬과 동시에 제일선의 전장에서 병사들이 포탄 하나하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항상 내외의 제 정세의 움직임에 민속하게 응하면서 일행 일구의 기사도 신중하게 취급해야 된다. 아니 한 개의 포탄은 적진지의 일 지점을 파괴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들의 보도기사의 일행은 족히 전국 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면, 이때에 우리들에게 부여된 사명은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들의 사명이 지난(至難)하다고 해도 전선에 있어서의 우리 '무적항군'의 상승적(常勝的)인 전적(戰績)을 생각해서 우리들도 그에 지지 않는 결의와 용기를 가지고 이 시국에 대응하면, 이 지난한 사명을 어느 정도까지 완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시국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가 실현된 새로운 시대에 이르는 도정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역할인 것이다.

〈출전 : 李相協 「時局と報道機關の使命」, 『總動員』 제2권 6호, 1940년〉

4) 매일신보 현황(1943)

【연혁과 사황(社況)】 매일신보는 그 기원을 조선 최초의 신문인 대한매일신보에 두고 1905년 7월에 창간되어, 1910년 8월 29일 일한합병이 공포되자 '매일신보(每日申報)'로 개제(改題), 이듬해인 1911년 4월에는 경성일보와 합병하여 경성일보와 함께 조선 통치의 대 정신을 지키면서 창간 이래 30여년에 걸쳐 반도 언론계의 영웅으로 인정받아 왔는데, 지나사변을 계기로 대륙 정책의 전진 기지로서 빛나는 장래를 가진 반도의 비약 시대에 적응하여 더욱 언론보국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1938년 4월에는 경성일보사와의 복합 조직을 개편하였다. 자본금 100만 엔의 주식 조직으로 경영기구를 독립함과 동시에, '매일신보(每日申報)'를 '매일신보(每日新報)'로 개제하고, 독립 신생의 의기로서 그 본래의 사명인 내선 일체의 이상 하에 조선 통치의 익찬에 매진하여, 이듬 해 1939년 3월에는 신축 중인 공장 및 사옥의 일부가 준공되어 현재의 사옥으로 이전하고, 알버트식 윤전기 4대, 알호식 1대 등 최신 공장 설비를 갖추고, 지방판을 7판제로 확충함과 동시에 지면에 일대 쇄신을 가하여 동년 5월에는 조선 내 12개 도 지사에서 지방 호외 현지 발행의 특별 인가를 얻어 수시로 지방 호외를 내는 등, 동사의 보도 기능은 모든 각도로부터 유감없이 정비되기에 이르렀다. 1940년에 들어와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국책에 순응하여 폐간되자마자 그 영업 지반을 계승함과 동시에 자본금을 150만 엔으로 증자함으로써 역사적 전환기를 지도하는 반도 유일한 언론신문으로서 사운의 경이적 약진을 이루고, 1942년에는 기금 40만 엔을 투자하여 동사 방계단체로서 재단법인 매일신보사 후생사업단을 설립하여, 한편으로는 반도 민중의 교화 지도의 일익으로서 각종 사회사업에 착착 손을 대고 있는 중이며, 또 지면의 향상에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1942년 말에는 본지는 4판제로, 지방판은 12판제로 확충되었다.

◎ 지방 호외 발행지

△매일신보 충북 호외(발행지 청주) △동 충남 호외(동 대전) △동 전북 호외(동 전주) △동 전남 호외(동 광주) △동 경북 호외(동 대구) △동 경남 호외(동 부산) △동 황해 호외(동 해주) △동 평남 호외(동 평양) △동 평북 호외(동 신의주) △동 강원 호외(동 춘천) △동 함남 호외(동 함흥) △동 함북 호외(동 나남)(이상 12 지방 호외는 모두 현지 지사에서 수시 발행)

◎ 정기 간행물

매신사진순보

◎ 1942년도의 주요 사업

○육군병원 위문 연주, 제1차 전첩 축하 기념으로 2월 26일 용산 육군병원을 방문하여 위문 연주 ○시국강연과 영화회, 전첩 제2차 축하일을 기념하여 3월 12일 부민관(府民館)에서 개최 ○미영 격멸·필승 축원, 성지 부여 조선신궁 역전경주대회, 정전(征戰) 하 반도 청년으로 하여금 숭고한 조국(肇國)의 신정(神精)을 체득하게 하고 필승 불패의 신념을 공고히 하여 적국인 미영의 격멸에 매진해야 할 국민의 지기(志氣) 양양과 체력 연성에 이바지하도록 전선 각도 청년단 대표를 모아 기점을 성지 부여로, 종착점을 조선신궁으로 하여 4월 26일부터 동 29일의 4구간을 개최, 본 사업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금년은 그 제1회로 한다 ○징병제 실시 기념 대강연회, 반도 동포의 오랫동안의 대망이며 광영인 징병제 실시가 결정되어 5월 16일 경성 부민관에서 징병제 실시 대강연회를 개최 ○전선 도시대항 축구대회, 5월 16일부터 4일간 조선체육진흥회와 공동주최로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징병제 실시 축하회, 5월 23일 경성 부민관에서 개최 ○해군 포스터 전람회, 5월 27일의 해군기념일에 남녀 중등학교 생도 작품을 모아 초지야(丁子屋)에서 개최 ○제3회 전조선 종합씨름대회, 6월 6일부터 2일간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문화음악 대연주회, 6월 11일 경성 부민관에서 개최 ○제16회 전조선 남녀 궁도대회, 6월 13일부터 2일간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바다 기념일 저녁, 7월 19일 부민관에서 개최 ○국민무용 강습회, 건전하고 명량한 국민무용과 국민올동을 보급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5일간 경성 부민관에서 강습회를 개최 ○금강산 등행 연성회, 국민 체위 향상과 건강보국을 목표로 금강산 등행단을 모집하여 8월 14일부터 3일간 금강산에 파견 연성 ○만주 개척 위문 연예, 대륙 식량 증산에 개척의 팽이를 휘두르는 재만 동포 흥의 용사를 격려하기 위해 연주반을 2대로 편성하여 8월 20일부터 1개월간 만주 각지에 파견 ○만주 건국 10주년 경축 시찰단, 우방 만주국의 빛나는 건국 10주년을 경축하는 의미에서 조선 내 각층의 유력자를 9월 4일부터 3개대로 나누어 만주에 파견 ○지방 부로(父老) 부인 병영 견학단, 징병제에 대한 반도 부모들의 인식을 심화시키기 위해 각도로부터 지방 부로 30명, 중견부인 100 명씩을 경성에 불러 모아 군문의 감격을 체득하게 한다. 본 사업은 9월 20일부터 착수하여 이듬해인 1943년 5월까지 계속된다 ○징병제 취지 보급 야만담부대 파견, 농민 대중에게 징병제의 인식을 심화시키기 위해 일류 야담 만담가를 동원하여 전선 각지에 파견한다. 본 사업은 10월부터 이듬해 1943년 3월까지 반년에 걸쳐 전선 방방곡곡에서 실시한다 ○남방전선 노획 병기 전람회, 야스쿠니(靖國)신사 임시대제를 중심으로 10월 14일부터 8일간 경성 초지야에서 개최 ○우량 다자(多子)가정 표창, 인구 증가의 국책선(國策)

線)에 따르는 우량 다자가정에 대해 육아보국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전조선에서 선발하여 11월 3일의 명치절(明治節)을 택하여 표창 ○대동아전쟁 1주년 기념사진 전람회, 12월 3일부터 열흘간 경성 초지야에서 개최 ○모범 지원병 가정 표창, 12월 8일의 대동아 1주년 기념일에 금지훈장을 받은 지원병 가정과 2명 이상의 자제를 솔선해서 지원병으로 보낸 모범 가정을 전조선에서 선발하여 표창 ○매신(每新) 교화 선전차 완성, 전시 하 후방 반도 민중의 계몽운동에 기여할 목적으로 다액의 비용을 투자하여 '매신 교화 선전차'를 제작했다. 본 교화 선전차는 영화 장치, 확장 장치를 비롯하여 자가발전 장치, 절첩(折疊)무대 장치 등의 극히 정교한 장치를 갖춘 근대과학의 정수를 모은 '움직이는 무대'를 가진 호화차로, 내지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에서만 볼 수 있을 뿐인데, 조선에서는 동사가 처음으로 하는 계획이다. 그 이용은 전기 설비가 없는 □□한 농산어촌을 순회하고 강연 또는 영화를 주로하면서 이에 시국적인 만담, 야담, 가요, 춘극 등을 연출한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조선군도 절대적으로 원조를 하는 중이며 최근에는 제2호차의 출현을 보기에 이르렀다 ○나가이 류타로(永井柳太郎)씨 강연회, 12월 18일 경성 부민관에서 개최, '세계에 선구하는 청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반도 청년의 분기를 촉구했다 ○세민 구제 서화전, 동사 항례에 따른 '세말 세민 구제 서화 직매회'로 12월 18일부터 6일간 경성 초지야에서 개최 ○히노마루(日の丸) 부채 헌납운동, 남방 전선에서 활약하는 황군 장병에 대한 감사 선물로 30만개를 목표로 동사가 제창한 '히노마루 부채 헌납운동'은 연말에 벌써 30만 7백 개를 돌파 예상외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현세일반(現勢一斑)■

사 명 매일신보사
 소재지 경성부 태평통 1정목 31번지의 3
 창간 1905년 7월 18일
 조직 주식회사
 자본금 150만 엔
 조직 변경 1938년 4월 15일

【간부 성명】

취체역사장 금천성(金川聖), 전무취체역 오노 도시유키(小野利率), 동 금본동진(金本東進), 취체역 서춘(徐椿), 동 정인익(鄭寅翼), 동 최창학(崔昌學), 동 마루야마(丸山隆準), 동 방의석(方義錫), 동 안성기(安城基),¹⁸⁶⁾ 동 히라후미 다다오(平文忠男), 동 박기효(朴基孝), 감사역 이시카와(石川清深), 동 이협(李協), 동 마쓰모토 마고토(松本誠), 동 박흥식(朴興植), 동 서병조(徐丙朝) (총무국) 국장(겸) 오노 도시유키, 서무부장 나카자토(中里文治), 경리부장 나가시마(長島龜喜), 사업부장 김달진(金達鎭), 출판주임 양재□(梁在□), 공장장 아메야마(天山□進) (편집국) 주필 서춘, 국장 정인익, 고문 이노우에(井上收), 동 심우섭(沈友燮), 논설위원 전임 미야무라(宮村允鐘), 정리부장(겸) 정인익, 사회부장 홍종인(洪鐘仁), 정

186) 이기찬(李基燦)의 창씨명.

경부장 겸 논설위원 이원영(李元榮), 지방부장 히로타(廣田運一), 조사부장 겸 논설위원 구니모토(國本昌洙), 학예부장 겸 논설위원 조용만(趙容萬), 체육부장(겸) 홍종인, 교열부장 히로세 시로(廣瀨四郎), 사진순보 주임 다마미네 도시오(玉峰利夫), (영업국) 국장(겸) 가네모토 도신, 판매부장 마쓰나가 시게루(松永茂), 광고부장 윤병은(尹炳殷)(이상 본사 관계)

【주요 설비】

외국제 알버트식 윤전기 4대, 외국제 알호식 윤전기 1대, 평반인쇄기 내국제 3대, 사용 활자 6포인트 3, 자모설비 정비, 활자 주조기 12대, 사진 제판기 1대, 롤링 1대, 복사기 1대, 연판주입기 3대, 연판 마무리기 2대.

【발행 회수】

주간 4쪽, 석간 2쪽(연중 무휴간)

【지면 체제】

1행 글자 채워서 15자, 1단 행수 175행, 1쪽 단수 15단.

【각종 요금】

구독료 1개월 1엔, 외지용 1개월 1엔 20전, 광고료 보통면 1행 1엔 50전, 특별면 1행 3엔 △[기사난 내 광고(1회 요금) 제자(題字) 하(13행) 금 25엔, 30행 1틀 금 75엔, 50행 돌출 1틀 금 100엔△[지정 요금 (5호 1행 요금) 게재일 지정 요금 20전, 조석간 1면 지정 요금 20전, 동 사회면 지정 요금 30전, 기사 직하 지정 요금 10전, 시간외 조체(組替)요금 50전.

(매신 사진순보) 순간(월 3회 발행) 구독료 1개월 60전.

【각지 지사 지국】

지사

도쿄(東京)지사 도쿄도 교바시(京橋)구 긴자(銀座) 8의 2 전화 긴자6658 지사장 가네야마(金山箕範), 오사카(大阪)지사 오사카시 기타(北)구 다카가키(高垣)정 16 전화 도요사키(豊崎)1046 동 박윤석(朴尹錫), 충북지사 충북 청주읍 전화 340 동 마스야마(益山謙□), 충남지사 충남 대전부 전화 926 동 스에나가(末永岡熙), 전북지사 전북 전주부 전화 740 동 최홍렬(崔鴻烈), 전남지사 전남 광주부 전화 867 동 국기열(鞠鎡烈), 경북지사 경북 대구부 전화 1718 동 갑□(甲□), 경남지사 경남 부산부 전화 5009 동 김정일(金正一), 황해지사 황해 해주부 전화 370 동 가네다(金田基秀), 평남지사 평남 평양부 전화 4038 동 다카미네(高峰暉), 평북지사 평북 신의주부 전화 293 동 가사마 기미오(笠間公男), 강원지사 강원 춘천읍 전화 231 동 리노하라(李原漢復), 함남지사 함남 함흥부 전화 3134 동 니시카와(西川林), 함북지사 함북 청진부 나남본정 전화 540 동 가네야마(金山韶能), 신경지사 신경시 조일통 전화 (2)3929 동 도쿠야마(徳山海男), 봉천지사 봉천시 대화구 전화 (2)5751 동 이시카와 요시오(石川吉夫), 간도지사 간도시

신안로 전화 909 동 마쓰야마(松山兼治), 북경지사 북경 동성 정은호 동 17호 전화 동4752 동 시라야(白
矢世哲) (지국) 전선, 내지, 전만, 북지, 중지 등에 지국 353개소, 분국 686개소.

본사

사 서 함 경성 100

대 체 경성 636

본국 전화 8, 1108, 111

8, 1128, 113

8, 1148, 115

8, 1168, 117

8, 1188, 119

8, 7858, 786

6, 9725, 331

(대표 전화 (2)8111)

〈출전 : 『昭和十八年新聞總覽』, 1943년 12월 20일, 160~161쪽〉

찾아보기

【ㄱ】

- 가격등통제령 276, 282
加納一米 641
加藤好晴 642
加瀬雄三 644
가미요시 쇼이치(神吉正一) 246
가스사업법 275
가시이 겐타로(香椎源太郎) 244, 250
가야 오키노리(賀屋興宣) 272
가와카미 코이치(河上弘一) 244, 249
가와테 스테지(河手捨二) 244, 249
가정의 벗(家庭の友) 968
가축전염병예방령 742
가축전염병예방령시행규칙 668
가타 나오지(賀田直治) 244, 248, 250, 252
가타쿠라 타다시(片倉衷) 246, 247, 251, 252
간도 5·30공비폭동 700
簡牛凡夫 640
감옥법(監獄法) 822
岡 久雄 639
강계(江界) 802, 803, 811
岡利晃 579, 602, 630, 638, 646
岡部與一 645
江上 639
강전준웅(江田俊雄) 954
개로운동(皆勞運動) 452
개정조선교육령 43, 886
개정치안유지법 829, 830
갱생일본공산당사건(更生日本共產黨事件) 763
乾山元求 603, 632
결전실행대 624
鎌田岳城 602, 628
경금속제조사업법(輕金屬製造事業法) 268, 275
경덕왕(景德王) 980
경무학교 675
경무회보(警務彙報) 676, 751
경방단(警防團) 491, 494, 595, 722, 723
경성국방화학협회 722
경성보호관찰소장 784, 786, 789, 791, 792, 794
경성약학전문학교 730
경성의학전문학교 729
경성제국대학 729
경성치과의학교 729
경제경찰관계법령취대본(經濟警察關係法令聚臺本) 752
경제경찰관계법령취추록(經濟警察關係法令聚追錄) 752
경제안정대책위원회 82
경찰공제조합 746
경찰관필휴조선어(警察官必携朝鮮語) 752
경찰범처벌규칙(警察犯處罰規則) 403
경찰법령취(警察法令聚) 752
경찰법령취병사대본(警察法令聚兵事臺本) 752
경찰법령취병사추록(警察法令聚兵事追錄) 752
경찰직원록(警察職員錄) 752
경찰헌병 660, 673
경찰협회 751
계광순 135

계란증산계획 239
 高崎平吉 644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磨) 482, 862
 고도국방국가 135, 140, 142, 143, 453, 454
 高嶋在涓 588
 高島在涓 579, 638
 고레카와제철주식회사(是川製鐵株式會社) 280
 고려공산당 688, 763
 高木信 644
 고문제도 675
 고바야시 사이난(小林采男) 245, 248, 250
 고바야시광업주식회사(小林鑛業株式會社) 279
 高峰秀明 644
 高山珉用 648
 고산재동(高山裁(載)東) 593, 617
 高山夏樹 645
 古市 進 640
 고안언(高安彦) 768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61, 62, 73, 74, 280,
 484, 848, 943, 967
 고이즈미 치카히코(小泉親彦) 272, 382
 고일청(高一淸) 803
 高井健次 642
 고타니(小谷益次郎) 572
 고힌마 하치야(小浜八弥) 249
 고크구무(谷口武) 770
 谷口市二 586
 곤노 켄조(権野健三) 245, 250
 공로기장(功勞記章) 678
 公山基弘 575
 공유수면매립법 276, 282
 공의(公醫) 726, 728
 공작기계제조사업법 275
 공장·사업장관리령 423
 공장법(工場法) 276, 282, 409
 공장사업장기능자양성령 329
 공장취업시간제한령 329
 공출자 369
 관공리도 53
 관동대지진 701
 관동주선원령(關東州船員令) 405
 관부연락선(關釜連絡船) 985
 관알선제도(官幹旋制度) 398
 관폐사(官幣社) 49
 광동합락 866
 廣瀨健次郎 643
 광부노역부조규칙(鑛夫勞役扶助規則) 409
 광업법 275
 광원심후(廣遠深厚) 69
 광주보호경찰소장 786, 788, 790, 792, 794, 795
 교길장(橋吉藏) 768
 橋本光義 604, 633
 橋本吉藏 647
 교학진작(教學振作) 39
 구니모토(國本昌洙) 999
 구도 요시오(工藤義男) 245, 251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正成) 122
 구주(歐州) 전쟁 54, 132
 구한국 713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 261, 315, 316, 321,
 323, 396, 403, 406, 416, 417, 422, 440, 451, 455,
 471, 860, 861, 863
 국민개로(皆勞) 60, 469, 565, 611, 616, 622, 634
 국민개병(國民皆兵) 920
 국민갱생금고 303
 국민근로보국협력령(國民勤勞報國協力令) 321,
 323, 328, 330, 397, 399, 413, 469, 629
 국민대표회의 699
 국민등록 401
 국민등록표(國民登錄票) 394

국민정신총동원 55, 165, 221, 879, 880, 882, 890
 국민정신총동원연맹 864
 국민정신총동원운동 56, 170, 254, 499, 689, 850,
 851, 880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49, 170, 255, 850, 851,
 890, 891, 950
 국민직업능력신고 417
 국민직업능력신고령(國民職業能力申告令) 321,
 323, 328, 403, 405, 418, 429, 431
 국민직업지도소 360
 국민징용(國民徵用) 319, 391, 397
 국민징용령(國民徵用令) 321, 323, 324, 331, 394,
 396, 402, 404, 405, 413, 417, 425, 429, 440, 441,
 443, 447, 578
 국민징용령시행규칙(國民徵用令施行規則) 425,
 394
 국민징용부조규칙(國民徵用扶助規則) 394, 410,
 413, 447
 국민징용의 해설 390
 국민총동원운동 891
 국민총력 594
 국민총력운동 55, 57, 59, 72, 315, 612, 703
 국민총력정동리연맹 590, 615
 국민총력조선연맹 56, 57, 136, 342, 390, 584, 632,
 638
 국민총력체제 56
 국방국가 517
 국방국가체제즉응(卽應) 137
 국방부인회 493
 國本政佐 601, 627
 菊田鏞禧 599, 626
 國定 豊 597
 국제전기통신주식회사법 282
 菊池光興 644
 菊地仁德 645
 국제관념 165, 211, 254, 467, 476, 585, 599
 국제론 134
 국제명징(國體明徵) 37, 169, 775
 군기보호법 706
 군무응소(軍務應召) 408
 군사부조(軍事扶助) 410
 군사후원연맹 857
 군사후원회 595
 군수공업동원법 390, 859
 군수생산책임심사회 263, 296
 군수생산책임제도 290, 296
 군수지정회사 278
 군수총족회사령 280, 281, 284
 군수회사법(軍需會社法) 261, 266, 267, 270, 274,
 276, 278, 282, 285, 290, 292, 294, 296, 297
 군수회사법시행규칙 264
 군수회사법시행령 266, 271, 272
 군용자원비밀보호법 706
 군인원호사업 553
 군인원호회 602, 611
 궁기속임(宮崎速任) 768
 宮內幾太郎 566, 647
 宮本哲男 647
 권갑중(權甲重) 954
 궤도법 281
 근로 동원 81
 근로 배가 운동 218
 근로동원원호회(勤勞動員援護會) 393, 412
 근로보국대(勤勞報國隊) 171, 205, 210, 395, 469,
 629
 근로보국대원(勤勞報國隊員) 413
 근로현공장(勤勞顯功章) 295, 409, 611
 근우회(槿友會) 688
 근위성명(近衛聲明) 133
 金岡潤 643

金江信治 648
 金江鎮聲 645
 金谷秀信 646
 金谷榮太 645
 金谷淨實 647
 金光相洙 592, 616, 644
 金광익차랑(金光益次郎) 475
 金宮貞夏 646
 金本동진(金本東進) 998
 金本安民 647
 金本裕屹 586, 647
 金山兼二 646
 金山韶能 579, 606, 639, 648
 金山竣源 596, 622
 金山俊源 645
 金山倉久 644
 金森 信 642
 金城光政 603, 633, 648
 金城秀松 584, 608, 646
 錦城熙昌 648
 金永光 603
 金永光正 648
 金永泰勳 642
 金原炳哲 642
 금융조합(金融組合) 968
 金子根鎬 641
 金田大英 643
 金田英武 579, 580, 638
 金田龍周 559, 626, 644
 金田弘 647
 金田弘三 643
 金정뢰차랑(今井賴次郎) 155, 646
 金정오개(今井五介) 155
 金井勇 646
 金井泰濩 642
 金천성(金川聖) 998
 今泉岩光 646
 金村光郎 645
 金澤聖明 595, 621, 647
 金澤良忠 643
 금택우암(金澤愚庵) 956
 金浦丙俊 645
 金浦恒一 647
 기관기기발동기(汽罐汽機發動機) 단속규칙 710
 기류계(寄留屆) 511, 512
 기류령(寄留令) 512
 기류지수검통상원(寄留地受檢通常願) 536
 기류환수검원(寄留換受檢願) 536
 기사카와(岸川於菟松) 562, 639, 647
 기시노부 스케(岸信介) 251
 기업합동운동 139
 기업허가령(企業許可令) 268, 276, 288
 기타노 켄조(北野憲造) 246, 248, 251, 252
 기타자키 시가토(北崎志賀都) 467
 吉木善介 642
 吉本正成 596, 622, 635
 길일수(吉一洙) 805
 吉田雅一 576, 647
 吉田祐四郎 636, 647
 길전평차랑(吉田平治郎) 770
 吉村元治 646
 吉村親定 647
 김구(金九) 700
 김달진(金達鎭) 998
 김대우(金大羽) 949
 김동준(金東準) 591, 645
 김병욱(金秉旭, 永田種秀) 135, 142
 김사연(金思演) 951
 김상연(金尙演) 769
 김수일(金洙一) 810

김시권(金時權) 947
 김연수(金季洙) 246
 김예현(金禮顯) 952
 김원봉(金元鳳) 700
 김응방(金應芳) 803
 김종석(金鍾奭) 957
 김주한(金胄漢) 641
 김준연(金俊淵) 763
 김준형(金駿炯) 642
 김한경(金漢卿) 118, 122, 134
 김향수(金享洙) 810

【ㄴ】

나가시마(長島龜喜) 998
 나가타 히데지로(永田秀次郎) 755, 757
 나병요양소 관제(官制) 735
 나진청(羅津廳) 52
 나카가와광업주식회사(中川鑛業株式會社) 280
 나카무라 고타로(中村孝太郎) 487
 나카무라 나오지로(中村直次郎) 467
 나카이 레사쿠(中井勵作) 245, 250
 나카자토(中里文治) 998
 나카지마(中島健三) 556, 644
 나카지마(中島司) 950
 나카타니 타케사부로(中谷竹三郎) 245, 250
 남경(南京) 866
 남경(南京) 함락 884, 891
 남경조약 893
 남구사변(南口事變) 858
 남백우(南百祐) 647
 南條 晟 642
 南憲政輔 643
 內山政雄 644
 내선일체(內鮮一體) 50, 60, 109, 110, 111, 113,
 115, 117, 122, 127, 131, 132, 134, 166, 167, 169,
 181, 182, 241, 247, 253, 254, 255, 258, 260, 493,
 494, 498, 499, 500, 501, 506, 573, 574, 584, 587,
 601, 602, 901, 945
 내선일체실천사 902
 내선일체화 471, 614
 內田鯤五郎 642
 내지이입(內地移入)알선요강 358
 네즈 카이치로(根津嘉一郎) 161, 245, 251
 노구교(盧溝橋)사건 165, 699, 894, 917, 962
 노구치 시타가우(野口遵) 248, 250, 252
 노기대장(乃木大將) 122
 노동자수송계획 343
 노동자알선요강 332
 노동자알선요강세칙 340
 노리나가(本居宣長) 122
 노모토 추에(榎本中衛) 245
 노무동원(勞務動員) 391, 398, 898
 노무동원 관계 관계 개정 315
 노무보국 567
 노무보도원(輔導員) 360
 노무수급조정계획 340
 노무자연명부 368
 노무조정령(勞務調整令) 333, 360, 397, 469
 노무지도원 훈련생 추천서 479
 노무지도원훈련소 476, 477, 479
 노무징용 578
 노창성(盧昌成) 992
 농공병진(農工併進) 39
 농산어민훈련소 211
 농산어촌진흥운동 55, 156, 210, 211, 212, 242,
 247, 258
 니노미야 신이치(二宮晋一) 244, 247
 니노미야 요시시게(二宮治重) 244, 247
 니시모토 케조(西本計三) 247
 니시오카 요시지로(西岡芳次郎) 247

닛타 류지로(新田留次郎) 244, 251

【ㄷ】

다가와 쓰네키로(田川常治郎) 245

다구치 스케이치(田口彌一) 245, 248

다나카 이토유키(田中 從之) 467

다니타 키마(谷多喜磨) 245, 248, 250

다다 에이키치(多田栄吉) 245, 248, 251

다마미네 도시오(玉峰利夫) 999

다이쇼천황(大正天皇) 971

다전영길(多田榮吉) 811

다카시마 히로미츠(高島弘光) 467

다카오 신조(高尾甚造) 247

다케우치 카키치(竹内可吉) 245, 250

다케우치 토크지(竹内徳治) 248, 251

다쿠라 하치로(田倉八郎) 251

다하라(田原實) 396

단게 후미타로(丹下郁太郎) 247

담보부사채신탁법(擔保附社債信託法) 275

대곡善一 570, 589

대串 獯 569, 645

대구보호경찰소장 786, 788, 790, 792, 793, 794

대潭泰昇 596, 622, 645

대島久昌 646

대동광업주식회사(大東鑛業株式會社) 280

대동아건설 61, 480, 637

대동아경제권 633

대동아공영권 86, 93, 94, 97, 104, 108, 109, 110,
111, 112, 114, 115, 135, 136, 150, 506, 573, 575,
614, 622, 704, 930

대륙전진병참기지 111, 114, 115, 291

대邦仁宇 642

大山 晁 579, 580, 638

大山隆司 643

大山重穆 599, 626, 645

大山昌文 644

大西幸吉 589, 643

大野孝太郎 585, 647

大元朗民 644

大原清治 647

대일본부인회 583, 590, 611

大田豊市 647

大井魯泰 643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 998

大倉鐵三 647

大川光一 634, 641

大村謙次郎 639

太平晚秀 643

대필계(代筆係) 401

대한교민단(大韓僑民團) 699

대한독립당 699

대한의원(大韓醫院) 726

德山白洵 573

德山必求 641

德泉溶 583, 607, 641

테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 117, 798

도가와 신지(十河信二) 245

도고 미노루(東郷美) 246

도리야마 스스무(鳥山進) 472

도변철부(渡邊鐵夫) 769

도시계획법시행령 276, 282

稻垣徳三郎 644

도자혜의원(道慈惠醫院) 726

島田秀一 597, 623, 647

도전승태랑(稻畑勝太郎) 155

島田義文 643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271, 319, 382, 482, 483

도청호(都忠浩) 647

독고선(獨孤璇) 955

東 純朝 644

동국통감(東國通鑑) 121
 동근동조(同根同祖) 560, 935
 동문동종(同文同種) 166
 동방광업주식회사(東邦鑛業株式會社) 278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 699
 동아공영권 90, 109, 114, 150, 470, 631, 909
 동아일보 704
 동아조고자간담회(東亞操觚者懇談會) 984
 동양운모광업주식회사(東洋雲母鑛業株式會社)
 278
 동양전선주식회사(東洋電線株式會社) 279
 동양지광 944, 952
 동양척식회사 686
 동우회(同友會) 687, 798
 동학당 684
 藤崎謙祐 642
 藤井福七 647
 藤丸友吉 613, 643

【ㄷ】

린치공산당사건 763

【ㄹ】

마루야마(丸山隆準) 998
 마쓰나가 사다이치(松永貞市) 245, 248, 252
 마쓰나가 시게루(松永茂) 999
 마쓰모토 마코토(松本誠) 245, 248, 250, 998
 마쓰모토 켄지로(松本健次郎) 245, 250
 마쓰바라 준이치(松原純一) 245, 250, 252
 마쓰자와 다쓰오(松沢龍雄) 245, 248, 251
 마에다 고조(前田光藏) 280
 마에다 하루우미(前田春海) 467
 馬場友慶 643
 만주국 163, 195, 202, 203, 235, 237, 256, 500,
 694, 695, 742

만주사변 87, 166, 184, 254, 290, 677, 687, 688,
 697, 699, 700, 763, 777, 885
 末永淳 646
 매일신보(每日新報) 704, 996
 메이지시대 126
 메이지신궁(明治神宮) 988
 메이지유신(明治維新) 920
 면양장려확충계획 239
 明本智隆 644
 모리 노부테루(森轟和) 246, 250
 모리벤 지로(森弁治郎) 246, 252
 모리타니 가쓰미(森谷克己) 96
 毛勝伊之助 645
 木尾良清 621, 638, 644
 睦川頊相 641
 木村重樹 647
 木村昌薫 642
 木村千藏 644
 몽강(蒙疆) 186, 189, 203
 몽강자치정부(蒙疆自治政府) 887
 茂谷一弘 641
 무라세 나오노부(村瀬直養) 245
 무라타 쇼조(村田省藏) 245
 武山忠治 932
 茂松春根 646
 무영헌수(武永憲樹) 470
 文川性律 645
 미곡배급통제법 51
 미기흥태랑(尾崎興太郎) 769
 미나리광업주식회사(三成鑛業株式會社) 280
 미나미 지로(南次郎) 37, 41, 43, 45, 48, 54, 57,
 58, 60, 146, 754, 760, 761, 762, 795, 797, 816,
 848, 850, 851, 852, 853, 857, 880, 885, 886, 887,
 982
 미네고로(美根五郎) 247, 639

미쓰비시마그네슘공업주식회사(三菱マグネシウム工業株式會社) 279
 미쓰이 에이초(三井榮長) 246, 250
 미쓰이유지화학공업주식회사(三井油脂化學工業株式會社) 279
 미야모토 하지메(宮本元) 246, 248
 미야모토 하지메(宮本元) 768
 미야무라(宮村允鐘) 998
 미즈타 나오마사(水田直昌) 246, 249, 250, 252
 미치다 가즈오(道田一男) 467
 미하시 코이치로(三橋孝一郎) 246, 252
 민규식(閔奎植) 641

【ㅂ】

박광원(朴光遠) 805
 박금(朴錦) 957
 박기효(朴基孝) 998
 박남규(朴南圭, 大朝實臣) 901, 903
 박영철(朴榮喆) 244, 248, 249
 박영희 118
 박중양(朴重陽) 161, 244, 247
 박창서(朴彰緒) 953
 박창훈(朴昌勳) 952
 박춘금 116
 박흥식(朴興植) 244, 249, 998
 박희도(朴熙道) 944, 945, 958, 961
 伴格夫 640
 반도의 광 968
 반병석(潘柄錫) 938
 방공감시대원(防空監視隊員) 405
 방공건축규칙 720
 방공단 174
 방공위원회 721
 방공협회 810
 邦光朗 645

邦本泰高 647
 방응모(方應謨) 906, 908
 방의석(方義錫) 579, 639, 647, 998
 방첩 특수지대 174
 芳湖敏浩 584, 643
 배영국민대회 892
 배전통제령 282
 白江重元 583, 607, 643
 백명규(白命奎) 804
 백백교(白白敎) 사건 688
 白石光治郎 639
 백승길(白承吉) 938
 병사부(兵士部) 485, 486, 487, 488, 489, 492, 501
 병역법 517
 병인의용대 699
 병참기지 158, 163, 166, 167, 168, 234, 241, 255, 256, 500, 719
 보광광업주식회사(寶光鑛業株式會社) 279
 보급금(補給金) 413
 보급금제도(補給金制度) 414
 보도부 492, 494, 497
 보도원제(補導員制) 410
 보민교도위원회(保民教導委員會) 810
 보호관찰법 764, 789
 보호관찰소 760, 764
 보호관찰소관제 755, 756
 보호관찰심사회 754, 755, 759, 764, 765
 보호관찰심사회관제 757
 보호관찰제도 788, 791, 832
 복무기율(服務紀律) 441
 福永由太郎 644
 福田國光 646
 복전심이랑(福田甚二郎) 768
 本田孝一 644
 봉고제(奉告制) 886

봉천무연탄광주식회사(鳳泉無煙炭鑛株式會社) 279
 부락보국대 628
 富士山隆盛 579, 590, 615, 638, 645
 부사원경수(富士原景樹) 769
 부인보도원 559
 부직업소개소 342
 북경조약 893
 북선(北鮮) 171
 북지사변 855, 863, 864, 877
 북지임시정부 887
 北村久七郎 648
 불령사상(不逞思想) 771
 불령자(不逞者) 68
 濱田虎熊 640

【스】

사가라 하루오(相良春雄) 823
 사노 마나부(佐野學) 763
 사법경찰법규집(司法警察法規集) 752
 사법공소법 838
 사상범보호관찰법(思想犯保護觀察法) 754, 757, 758, 759, 760, 762, 763, 779
 사상범보호관찰제도 778, 843
 사상범예방구금제도 829, 832, 838
 사상보국연맹(思想報國聯盟) 796, 800, 802
 사상보국운동 123
 사상보호관찰법 830
 사업명령 294, 295
 四元嘉平次 577, 579, 639, 648
 사이토(齋藤茂) 955
 사이토 타케오(齋藤武夫) 246, 251
 사이토 히사타로(齋藤久太郎) 246, 250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 763
 사카타(坂田政次郎) 954

사쿠라다몬(櫻田門) 687
 사회사업법 216
 사회사업협회 611
 삭주(朔洲) 802, 803, 812
 山岡尚善 644
 山口友造 624, 642
 山崎廣龜 641
 山南知資 930
 山名酒喜男 639
 山本錫根 645
 산본의일랑(山本義一郎) 770
 山本昌鎬 646
 산업경제조사회 167
 山隆賢龍 642
 산재(散在)제도 660
 山中 巽 600, 647
 山中大吉 588, 613, 642
 산하수수(山下秀樹) 768
 森 誠一 644
 森 幸次郎 638
 3국 동맹 조약 54
 삼국사기 561
 삼국유사 121
 삼국조약 94
 三達正武 590, 615, 645
 三島承一 579
 三島承催 638
 삼림령(森林令) 269, 287
 삼림법 276, 282
 삼산무일(杉山茂一) 770
 33간당(間堂) 121
 森安敏暢 553, 554, 564, 578, 579, 581, 582, 639, 642
 杉原長太郎 579, 638, 644
 三井夷熙 579, 598, 624, 638, 643

三井清次 642
 삼척개발주식회사(三陟開發株式會社) 279
 杉村逸樓 579, 629, 638, 645
 三浦亨 603, 632, 648
 森幸次郎 579
 常松泰 634, 645
 상애원(相愛園) 736
 상야장청(上野藏淸) 770
 上野行義 580
 상재전장(常在戰場) 611
 上村篤實 579, 645
 上村重太郎 645
 상해 임시정부 686
 상해 한인청년당 699
 상해사변(上海事變) 858
 생산력확충 137
 생산확충운동 140
 西島寅吉 643
 서병조(徐丙朝, 大峯丙朝) 577, 579, 638, 644, 998
 서빙정정(西氷貞政) 769
 西原敏夫 646
 西原翊華 647
 西原正雄 595, 620, 647
 西田木惣市 645
 서정쇄신(庶政刷新) 40
 西村哲太郎 642
 서춘(徐椿) 104, 998
 石橋良祐 642
 석도장태랑(石渡莊太郎) 155
 石森久彌 550, 639, 642
 石原久彌 579
 石原磯次郎 579, 639
 石原榮 644
 石原憲一 579, 580, 639, 642
 석유업법 275
 석유자원개발법 275
 석전례조(石田禮助) 155
 石川倦造 642
 石川化慶 647
 석탄배급통제법 282
 선만연락회의(鮮滿連絡會議) 114
 선만일여(鮮滿一如) 38, 157, 924
 宣永嘉一郎 647
 선원급여통제령 282, 287
 선원법(船員法) 405
 선원직원능력신고령 405
 선천(宣川) 802, 811
 선천동우회사건(宣川同友會事件) 798
 設樂平八郎 643
 成井觀永 588, 612
 星村宇德 640
 成澤永道 644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729
 笹川恭三郎 579, 639, 647
 세키야 테이사부로(関屋貞三朗) 117, 161, 246,
 248
 小見山清三郎 643
 小谷益次郎 580, 639, 642
 小口肇 644
 小島金之助 645
 소도회(昭道會) 767, 780
 소록도 갯생원 736
 小林義武 646
 小林儀三郎 647
 小林義雄 646
 小林重延 642
 小林請三 646
 小山伊三郎 643
 小室千代吉 591, 616, 648
 소운송업법 281

沼田虎次郎 579, 580, 638, 643
 속수황(速水滉) 155
 孫園禮次 580, 642
 손학현(孫學玄) 804
 松江嘉城 931
 松岡世宗 579, 604, 635, 639, 647
 松岡秀樹 647
 松岡秀昌 645
 松岡良樹 646
 松宮朗 647
 松本清 641
 松永東允 576, 644
 松原寬 931
 松原泰龍 648
 송이관(宋利官) 805
 松田敏一 642
 松田秀浩 642
 松田憲昌 645
 松井秀浩 587
 松井邑次郎 579
 송판옥(松判屋) 155
 송평화부(松平和夫) 770
 송포속(松浦屬) 842
 松下嘉次郎 590, 615, 645
 쇼와정공주식회사(昭和精工株式會社) 280
 수역예방령(獸疫豫防令) 741
 수역예방령시행규칙 743
 水原進 593, 646
 수출우검역법 743
 수출입조치법 862
 슈토(首藤胖) 955
 스가와라 미치자네(菅原道實) 122
 스기야마 하지메(杉山元) 484
 스사노오노 미코토(素盞鳴尊) 600
 스즈카와 히사오(鈴川寿男) 246, 250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 109
 스즈키 우메타로(鈴木梅太郎) 246
 스키야마 하지메(杉山元) 280
 스페인 내란 777
 시가지건축물법 276, 282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時局對應全鮮思想報
 國聯盟) 796
 시국대책위원회(時局對策委員會) 153, 157
 시국대책조사회(時局對策調査會) 51, 153, 154,
 155, 157, 159, 160, 161, 162, 163, 164, 168, 241,
 242, 252, 259
 시국대책준비위원회 257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 926
 시마다 도시오(島田俊雄) 280
 시마다 시게타로(島田繁太郎) 272, 382
 시모무라 히로시(下村宏) 246, 248
 市山直衛 642
 시오다(鹽田正洪) 394
 시오하라 토키사부로(塩原時三朗) 246, 248
 시천교(侍天教) 689
 植原正義 597, 623, 647
 植村忠清 647
 신간회 688
 신규징용(新規徵用) 404
 신도(臣道)실천대 624
 신문지법 907
 神保信吉 579, 639, 646
 신시대(新時代) 915, 916
 新安善弼 643
 신의주 802
 신의주보호관찰소 785, 787, 790, 792, 793, 794,
 797
 신익균(申益均) 953
 新田豊吉 638, 645
 新井康弘 642

新井保實 647
 新井永敏 601, 626, 642
 신정재식(新井在植) 923
 新井準 648
 新井重陽 647
 신찬전(神饌田) 169
 신태악(辛泰嶽) 957
 新貝肇 639
 심봉환(瀋鳳煥) 938
 심우섭(沈友燮) 998
 쓰다 신고(津田信吾) 245, 248, 250
 쓰즈미 요시아키(堤良明) 766, 768, 770

【ㅇ】

아국판상(我國版上) 163
 아리가 미쓰토요(有賀光豊) 246, 248, 250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天照大神) 634, 635
 아베 고이치(阿部梧一) 117, 245, 250, 252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73, 79, 83, 264, 270, 279, 284
 아베노히라후(阿倍比羅夫) 937
 아사하라 사다노리(淺原貞紀) 247
 아사히경금속주식회사(朝日輕金屬株式會社) 279
 阿野盛若 646
 아오키 카즈오(青木一男) 246, 248, 250, 252
 아유키와 요시스케(鮎川義介) 245, 250
 아타카 야키치(安宅弥吉) 246, 250
 아편전쟁 893
 아편조약 738
 안광천(安光泉) 763
 안달유신(安達唯信) 769
 안도 기사부로(安藤紀三郎) 272, 382
 安東星玉 646
 安本昌市 644

安本孝式 645
 安田豊太郎 644
 안정원(安錠遠) 642
 알선내지이입조선인노무자 선출인원할당결정서 366
 알선내지이입조선인노무자 도선출인원할당결정서 364
 알선내지이입조선인노무자 부군할당제(濟)보고 365
 알선내지이입조선인노무자 인계서 367
 알선내지이입조선인노무자 할당제(濟)보고 367
 岩橋朝一 594, 619
 岩本壯雄 932
 암웅정의(岩熊正義) 768
 암주양치(岩住良治) 155
 애국단 700
 애국반 적격회(敵擊會) 623
 애국반(愛國班) 56, 57, 72, 342, 396, 555, 567, 589, 610, 618, 619, 628, 634
 애국반상회 584, 602, 623
 애국반장 608, 633
 애국부인회 699
 애국일 205, 878
 애락원(愛樂園) 736
 애양원(愛養園) 736
 야마다 타다쓰구(山田忠次) 245, 251
 야마모토 노부오(山本信夫) 245, 250
 야마시타 겐비(山下元美) 250
 야마와키 마사타카(山脇正隆) 486
 야마자와 와사부로(山沢和三郎) 245, 248
 야마자키 다츠노스케(山崎達之輔) 272
 야마자키 이와오(山崎巖) 248
 野附勤一郎 642
 야스카와 유노스케(安川雄之助) 245, 250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589, 852, 988, 997

野原藤次郎 646
 野田勝弘 642
 야지마 스키조(矢島杉造) 245, 250
 약제사시험규칙 730
 약품 및 약품영업단속령 737
 양돈 장려 제1기 계획 239
 양봉장려계획 239
 梁井癸元(之) 637, 644
 양치현모주의 210
 梁川在昶 579, 580, 639, 642
 양토(養兎)장려 239
 어대전(御大典) 687
 어촌정장(御村正藏) 769
 에노모토 추에(榎本中衛) 250
 ABCD공동전선 452
 ABCD포위진 91
 엔도 류사쿠(遠藤柳作) 943
 여동춘(呂同春) 603, 633, 648
 여자정신근로령(女子挺身勤勞令) 394, 397, 399, 416
 여자정신대제도 416
 여자청년단 594
 力武黒左衛門 641
 延原昌熙 599
 연화단속규칙 709
 열조열종(烈祖烈宗) 122
 염전사업 275
 鈴木孝太郎 646
 영변(寧邊) 802, 811
 영변공자교사건(寧邊孔子敎事件) 798
 영사관령(領事館令) 711, 712, 713
 영사재판권 659
 鈴川泰重 642
 예방구금제도(豫防拘禁制度) 822, 824, 829
 오가자(五家子) 사건 692
 오구라타케노스케(小倉武之助) 249
 오노 도시유키(小野利幸) 998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緑一郎) 243, 258, 452, 974
 오노 타케시(小野猛) 244, 251
 오다치 시게오(大達茂雄) 280
 오다케 주로(大竹十郎) 971
 오무라 겐조(大村謙三) 935
 오무라 타구이치(大村卓一) 244, 251
 吳本鉉埼 646
 오시마 토라지(大島寅治) 247
 오시무라 다카후미(押村堯文) 467
 오오야(大宅義一) 955
 오정식(吳丁植) 938
 오카와 우치마사토시(大河内正敏) 244, 248, 249
 오후라 킨모치(大蔵公望) 244, 248, 249, 252
 오후라 타케노스케(小倉武之助) 244
 오후무라 시게마사(奥村重正) 247
 오후보 고이치(大久保弘一) 84
 오후야마(奥山) 118, 120, 121, 122, 124, 127, 133
 오후히라 다케히코(奥平武彦) 90
 오탈니 노보루(大谷登) 244, 251
 오탈케 주로(大竹十郎) 244, 247, 252
 玉岡在新 643
 玉山星煥 602, 629, 648
 玉山壺義 645
 옥천양장(玉川良藏) 473
 와다 히데마사(和田英正) 951
 와타나베 도요히코(渡辺豊日子) 308
 왕정위(汪精衛) 900
 外山喜右衛門 643
 요나이 미쓰마사(米内光政) 280, 943
 요나이(米内) 117
 요코야마 이사무(横山勇) 248, 250, 252
 용산공작주식회사(龍山工作株式會社) 278
 우가키 가즈시케(宇垣一成) 116, 117

宇內光濂 647
 우스이 타다히라(碓井忠平) 246
 우시시마 다카카즈(牛島隆一) 467, 473
 우시지마(牛島省三) 947
 우에 하야세(上瀧基) 946
 우에키 켄키치(植木憲吉) 245, 250
 우치 미칸지(宇佐美寛爾) 245
 우폐역 보체결합법(補體結合法) 744
 운모배급조정규칙(雲母配給調整規則) 269
 熊谷正一 648
 워싱턴회의 686
 원(圓)블록 200
 원방도(原邦道) 155
 元村炳喜 593, 618, 644
 元村肇 579, 639, 641
 위생조합 728
 위체관리법 862
 유기합성사업법(有機合成事業法) 267, 275
 柳樂達見 642
 유무라 타쓰지로(湯村辰二郎) 246, 248, 250
 유사 코헤(遊佐幸平) 246, 250
 유선광업주식회사(遊仙鑛業株式會社) 279
 유억겸(俞億兼) 953
 유업 장려 5개년 계획 239
 柳井哲 933
 유족부조료 409
 柳川咸範 647
 육군군영표 525
 육군무관복역령 521
 육군무관분한령 521
 육군병사부령 481, 483
 육군지원병제도 922
 육군통제령 282
 육군특별지원병 490
 육군특별지원병제(陸軍特別支援兵制) 886, 913
 육운통제령 287
 윤덕영(尹德榮) 116, 155, 160, 244, 247
 윤병은(尹炳殷) 999
 윤치호(尹致昊, 伊東致昊) 124, 146, 925, 945
 윤태빈(尹泰彬) 948
 栗本正隆 642
 율전청조(栗田清造) 768
 은사진홀자금 216
 응급원호 414
 응송용종(鷹松龍種) 768
 응징사(應徵士) 76, 393, 394, 399, 401, 407, 409,
 413, 421, 441
 응징유공장(應徵有功章) 409, 443, 444
 응징장(應徵章) 446, 409
 의열단 700
 의전극기(依田克己) 768
 의주(義州) 802, 803, 812
 이가승룡(李家昇龍) 592, 617, 648
 이경봉(李庚鳳) 641
 이광수(李光洙) 123
 이기찬(李基燦, 安城基) 161, 244, 247, 998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978
 이나하타 카쓰타로(稻畑勝太郎) 243, 249
 이노 히로야(井野碩哉) 243, 249, 319
 이노우에(井上收) 998
 伊達四雄 553, 554, 556, 561, 562, 564, 566, 578,
 579, 581, 583, 639
 이동혜(伊東惠) 768
 伊藤奉圭 589, 614
 이마이 고스케(今井五介) 161, 244, 249
 이마이 요리지로(今井頼次郎) 244, 249
 이민구(李敏求) 642
 이방우(李芳遇) 805
 이범익(李範益) 948
 이사청령(理事廳令) 710, 711, 712, 713

이사카 케이치로(井坂佳一良) 246
 이상협(李相協) 994
 이성근(李聖根) 949
 이성환(李晟煥) 952
 이승우(李升雨) 161, 244, 247, 768
 이시다 레이스케(石田礼助) 244, 249
 이시다 센타로(石田千太郎) 469
 이시와타 소타로(石渡荘太郎) 244, 248, 249, 252, 280
 이시카와(石川清深) 998
 이와즈미 료지(岩住良治) 243, 249
 이와하타 고마(岩畑コマ) 806
 이원보(李源甫) 770
 이원영(李元榮) 999
 이원철산주식회사(利原鐵山株式會社) 280
 이인석(李仁錫) 851
 이정진(李正鎭) 957
 이종모(李鍾模) 762, 766
 이중교(二重橋) 987
 이지노미야 긴쇼(一宮銀生) 155
 이지마 시게야스(井嶋重保) 244, 249
 이창근(李昌根, 平松昌根) 135, 140
 利川文英 603
 이치노미야 긴쇼(一宮銀生) 243, 249
 이타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郎) 481
 이태완(李泰完) 811
 이토 마쓰노스케(伊藤松之助) 243, 249
 이토 분키치(伊藤文吉) 155, 243, 249
 이토 타이키치(伊藤泰吉) 247
 이토이 기요지(糸井喜代治) 467
 이하라 준지로(井原潤次郎) 246
 이협(李協) 998
 익찬회(翼贊會) 64
 인조석유제조사업법(人造石油製造事業法) 268, 275
 인지세령 302
 인화물질단속규칙 709
 일·소 정전협정 693
 日高勇 643
 일독방공협정(日獨防共協定) 777
 일러전쟁 105, 106, 111, 631, 709
 일만의정서 500
 일만지권 99
 일만화일체(日滿華一體) 88
 일반원호 413
 일반징용 404
 일본공산당 688, 763
 일본내화재료주식회사(日本耐火材料株式會社) 279
 일본마그네사이트화학공업주식회사(日本マグネサイト化學工業株式會社) 279
 일본마그네슘금속주식회사(日本マグネシウム金屬株式會社) 278, 279
 일본무연탄제철주식회사(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 279
 일본발송전(發送電)주식회사법 275
 일본정공주식회사(日本精工株式會社) 279
 일본제철주식회사법 275
 일본탄소공업주식회사(日本炭素工業株式會社) 278
 일본통운주식회사법 282
 일소협정 700
 일시동인(一視同仁) 166, 168, 253, 498, 506, 559, 929
 일장기 말소사건 704
 일질(日窒)마그네슘주식회사 279
 일질고무공업주식회사(日窒ゴム工業) 278
 일청전쟁 105, 106, 111, 118
 日沖政之助 646
 일한병합 660, 775, 784

- 林敬雄 642
 임금통제령 276, 282, 329, 360
 林秉極 644
 임승수(林勝壽) 458
 임시농지가격통제령 276, 282
 임시농지관리령 276
 임시농지등관리령 282
 임시사업자금통제법 859
 임시정부 686
 임창수(林昌洙) 643
 林憲章 642
 入山 昇 644
 立野新五郎 579, 580, 638, 643
 입영자직업 보장법 587
 입화용국(立花龍國) 769
- 【ㄷ】**
 자동차관계법규집(自動車關係法規集) 752
 자동차교통사업법 281
 자동차단속규칙 711
 자동차운전의 벗(自動車運轉の友) 751
 자동차운전자시험 문제집(自動車運轉者試驗問題集) 752
 자동차제조사업법 275
 자제회 810
 자혜의원 727, 728, 735, 736
 장고봉사건(張鼓峰事件) 45, 159, 162, 167, 171, 257, 260, 693, 803
 장기우삼(長崎祐三) 768
 장면(張勉) 955
 長城圭亮 586, 611, 646
 장송주(張松胄) 938
 장애부조료(障礙扶助料) 409
 張元正己 647
 장응진(張膺震) 955
- 장정권(蔣政權) 962, 974
 장직상(張稷相) 948
 장행식(壯行式) 370
 재등영치(齋藤榮治) 770
 적미호길(赤尾虎吉) 768
 적색노동조합 763
 적자분령(赤子分靈) 69
 적지생산주의(適地生産主義) 108
 전기사업법 275
 전도금(前渡金) 421
 전력증강시책 63
 전선공직자대회 579, 580, 584
 전염병예방령 668
 전전승(前田昇) 768
 前田長太郎 647
 전조선무도대회 751
 전조선보호관찰소장회의(全朝鮮保護觀察所長會議) 795
 田中武雄 639
 田中俊輔 639
 田中陣平 621
 전진병참기지 253
 전향자대회 847
 정가이작(井家伊作) 467
 井谷儀三郎 645
 정광현(鄭光鉉, 定村光鉉) 828
 정도중보(井島重保) 155
 정동(精動)운동 59
 井上改平 591, 616
 井上吾一 643
 정신근로명령서 416
 정신대 494, 617
 정야석재(井野碩哉) 155
 정원섭(鄭元燮) 804
 정인섭(鄭寅燮) 118, 127

정인익(鄭寅翼) 998
 정주(定洲) 802, 811
 제1차 공산당 조직 688
 제2차 공산당 688
 제3국제당 700
 諸岡泰彦 586, 645
 제국광업개발주식회사법 275
 제국석유주식회사법 275
 齊藤壽 594, 647
 제철사업법(製鐵事業法) 267, 275
 제철설비제한규칙(製鐵設備制限規則) 270
 조광(朝光) 766, 904
 조근식(趙根植) 768
 조기승(趙紀勝) 802
 조병상(曹秉相, 夏山茂) 579, 639, 642
 조서환발기념일(詔書渙發記念日) 687
 조선 산파학교 667
 조선가축전염병예방령 741, 743
 조선결핵예방협회 734
 조선경금속주식회사(朝鮮輕金屬株式會社) 278
 조선경방협회 722
 조선경찰공제조합 749, 750
 조선경찰공제조합령 746, 751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 688, 763
 조선공유수면매립령(朝鮮公有水面埋立令) 268, 287
 조선공장·광산방공연구회 723
 조선광부노무부조규칙 328, 331
 조선광업대서사 규칙 714
 조선교육령 70
 조선국방화학협회 722
 조선군사후원연맹(朝鮮軍事後援聯盟) 856
 조선군수생산책임제도 290
 조선근로동원원호회 412
 조선나병예방협회 735, 736
 조선노동총동맹 688
 조선노무협회(朝鮮勞務協會) 452, 454, 455, 458, 460, 466, 468, 471, 472, 477, 478
 조선농업계획위원회 64
 조선도시바전기주식회사(朝鮮東芝電氣株式會社) 279
 조선동해전극주식회사(朝鮮東海電極株式會社) 278
 조선등록세령 302
 조선마약단속령 667
 조선마정(馬政)확충계획 239
 조선마츠시타전기주식회사(朝鮮松下電氣株式會社) 280
 조선목재통제령(朝鮮木材統制令) 269
 조선무수주정주식회사(朝鮮無水酒精株式會社) 279
 조선무연탄주식회사(朝鮮無煙炭株式會社) 278
 조선물산장려회 687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 270, 271, 299, 300, 518, 519, 754, 853
 조선민족혁명당 700
 조선박람회 687, 731
 조선방공협회 722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思想犯保護觀察令) 754, 757, 758, 762, 763, 766, 770, 776, 813, 825, 834
 조선사상범보호관찰회 768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 813, 816, 822, 823, 824, 828, 829, 833, 837, 842, 844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시행규칙 816, 824, 825, 837
 조선시설철도령 285
 조선사업법 275
 조선산업경제조사회 164
 조선석유주식회사(朝鮮石油株式會社) 278
 조선석탄배급통제령 286

조선선원령(朝鮮船員令) 405
 조선소년단총본부 687
 조선소생산계획 238
 조선소운송업령 286
 조선소작조정령 697
 조선수의사규칙 740
 조선스미토모경금속주식회사(朝鮮住友輕金屬株式會社) 278
 조선스미토모제강주식회사(朝鮮住友株式會社) 280
 조선시가지계획령(朝鮮市街地計劃令) 268, 667, 714, 720
 조선시국대책조사회 153
 조선시멘트주식회사(朝鮮セメント株式會社) 278
 조선식량관리령 302
 조선식량영단 302
 조선식량채권 303
 조선신광금속주식회사(朝鮮神鑛金屬株式會社) 278
 조선신궁(朝鮮神宮) 878
 조선아사노시멘트주식회사(朝鮮淺野セメント株式會社) 278
 조선아편단속령 738
 조선알루미늄공업주식회사(朝鮮アルミニウム株式會社) 280
 조선압록강수력발전주식회사 279
 조선영업세령 302
 조선영화령 707
 조선오노다시멘트제조주식회사(朝鮮小野田セメント株式會社) 278
 조선우결핵병예방령 746
 조선우선회사(朝鮮郵船會社) 682
 조선우유영업단속규칙 746
 조선운모개발판매주식회사(朝鮮雲母開發販賣株式會社) 279
 조선유연탄주식회사(朝鮮有煙炭株式會社) 278
 조선유지주식회사(朝鮮油脂株式會社) 280
 조선이연항공기재주식회사(朝鮮航空機材株式會社) 279
 조선인노무자알선신청서 363
 조선인민회 184
 조선인조석유주식회사(朝鮮人造石油株式會社) 278
 조선일보 704
 조선자동차교통사업령 286, 711
 조선전공주식회사(朝鮮電工株式會社) 278
 조선전기사업령(朝鮮電氣事業令) 268, 710
 조선전기야금주식회사(朝鮮電氣冶金株式會社) 278
 조선전기제강주식회사(朝鮮電氣製鋼株式會社) 280
 조선전력관리령(朝鮮電力管理令) 268
 조선전선주식회사(朝鮮電線株式會社) 280
 조선전업주식회사(朝鮮電業株式會社) 278
 조선정신총동원지방연맹 494
 조선중두령 733
 조선중기공업주식회사(朝鮮重機工業株式會社) 280
 조선중앙방공위원회 175
 조선중요공업주식회사(朝鮮重要工業株式會社) 278
 조선중요물자영단 299, 300, 301, 302, 303, 305, 307, 308
 조선중요물자영단령 298, 302, 304, 306, 307
 조선중요물자영단령시행규칙 303
 조선중요물자채권 300, 302, 304, 305
 조선직업소개령 287, 328, 701
 조선질소화약주식회사(朝鮮窒素火藥株式會社) 278

조선징병독본 506
 조선징병제 920
 조선청년단 137
 조선청년총동맹 688
 조선청년총연맹 700
 조선총독부관제 663
 조선총력연맹 595
 조선타이어공업주식회사(朝鮮타이어工業株式會社) 279
 조선특수화학주식회사(朝鮮特殊化學株式會社) 278
 조선해상방공연맹 723
 조선화학기주식회사(朝鮮化工機株式會社) 279
 조선화약제조주식회사(朝鮮火藥製造株式會社) 279
 朝野晴義 597, 624, 642
 조용만(趙容萬) 999
 조원환(曹元煥) 953
 조재호(曹在浩, 夏山在浩) 135, 144
 朝田永常 647
 足立長吉 646
 종교보국 143
 종업자고용제한령 329
 종연서선중공업주식회사(鐘淵西鮮重工業株式會社) 280
 좌등방미(佐藤芳彌) 769
 좌등중태랑(佐藤重太郎) 769
 佐生源吉 643
 湊京吉 592, 616, 644
 주식회사북선제강소(株式會社北鮮製鋼所) 280
 주식회사조선기계제작소(株式會社朝鮮機械製作所) 278
 주식회사조선제강소(株式會社朝鮮製鋼所) 280
 주식회사조선착암기계제작소(株式會社鑿岩機製作所) 280
 주식회사중앙전기제작소(株式會社中央電氣製作所) 280
 竹岡寅一 645
 竹山明 647
 중국공산당 699, 700
 重技太索 646
 中馬越之助 641
 中本弘鍾 579, 639, 642
 中山新夫 644
 中山郁之亮 648
 重松鶴吉 645
 중앙협화회 499
 中野昌範 646
 중요공업광산노무자 371, 373
 중요기계제조사업법 275
 중요물자영단 310
 중요사업장근무관리령 276, 282
 중의원구락부(衆議院俱樂部) 140
 중입정일(中込精一) 811
 中畑武男 588, 614
 中畑武雄 643
 중지유신정부(中支維新政府) 887
 中村郁一 579, 581, 639, 642
 중화민국 202, 203
 中込精一 646
 曾根勇 644
 池畑灯 642
 지급관보(至急官報) 425
 지대가임통제령(地代家賃統制令) 276, 282
 지도정신대 585
 지방철도법 281
 芝山祺 579, 638, 643
 지원병 50, 922
 지원병제도 142, 922
 지원병후원회 611

- 지원병훈련소 923
지인태(池麟泰) 851
池田佐忠 596, 621, 645
池田秋藏 600, 647
芝村定宰 593, 617, 642
直野良平 642
직업보도(輔導)소 183
직역봉공(職域奉公) 57, 142
織田留吉 645
津島寛太郎 643
津田梅一 647
津田興一 583, 606
진충보국 586
징모구(徵募區) 525, 535
징모자(徵募者) 590
징병령 913
징병령취지철저위원회 594
징병면제원 532
징병사무집행 525
징병원호사업 561
징병적령계(徵兵適齡屆) 527
징병제 486, 506, 854, 914, 919
징병제실시준비위원회 555
징용관(徵用官) 제도 399
징용명령서 402, 407, 419, 421, 423, 425, 426
징용변경명령서 420, 423, 425, 426
징용변경영서(徵用變更令書) 436, 437, 439
징용영서(徵用令書) 430, 431, 435, 437, 438, 439
징용취소명령서 419
징용취소영서(徵用取消令書) 434, 435
징용해제명령서 420, 423, 425, 426
징용해제영서(徵用解除令書) 438, 439
- 【*】**
車田濬潭 641
- 참궁단(參宮團) 121
참정권(參政權) 117
창고업법 281
창기단속령 712
妻木國雄 595, 620, 647
千岡鳴煥 642
川端勝春 643
淺野文亮 646
泉良一 643
천장절(天長節) 752, 974
千田專平 640
泉正次郎 951
천진조약 893
철광통제규칙(鐵鑛統制規則) 269
철도영업법 281
靑岡海弼 645
청년특별연성소 606
청년특별연성제도 71
靑柳種(鍾)吉 596, 622, 635, 645
靑山允信 643
청소년고용제한령 329
靑松 潔 644
靑松允瑞 646
清水佐太郎 645
靑田永德 558, 644
청진보호관찰소장 784, 787, 789, 791, 793, 794
草內興洙 642
초산(楚山) 802, 803, 811
초혼사(招魂社) 169
축탁보호사 792
축탁의(囑託醫) 727
村上八郎 647
촌전좌문(村田左文) 768
총동원(總動員) 210, 392, 451
총력연맹 555, 558, 583, 597, 611

총력연맹선전부 589
 총력운동 140
 총력전 540
 총포화약관계법규집(銃砲火藥關係法規集) 752
 총포화약류단속령 667, 708
 최규동(崔奎東) 927
 최규창 768
 최남선(崔南善) 123, 933
 최린(崔麟) 161, 246, 248
 최창학(崔昌學) 998
 諏訪善右衛門 644
 萩原 寛 648
 추축(樞軸) 진영 96
 출동대원명부 367
 출두명령서 402, 421, 423, 425, 428, 429
 출두변경명령서 419, 425
 출두변경영서(出頭變更令書) 432, 433, 437, 439
 출판규칙 704
 치과의사시험규칙 729
 치과의학전문학교 729
 치안유지법 754, 755, 763, 764, 771, 813, 816,
 824, 825, 829, 830, 832, 833, 834, 837, 843, 844
 7·7금령(禁令) 707

【ㄱ】

코민테른 688, 700, 777

【ㄴ】

타이쇼호우타이비(大詔奉戴日) 633
 太宰欽明 642
 泰川濟洪 646
 택지건물등가격통제령 276, 282
 土肥清五郎 644
 통감부 659, 660, 738
 樋口寅藏 582

통제회사령 288
 특별지원병제도 43, 490
 특별해군지원병제(特別海軍志願兵制) 913
 특수경방단 494, 495
 특수징용 404

【ㅇ】

판구희조(坂口喜助) 770
 坂本幹平 647
 坂本俊資 644
 판임문관 677
 팔굉일우(八紘一宇) 45, 59, 90, 107, 111, 121,
 166, 168, 169, 181, 500, 508, 906, 930
 八木信雄 639
 팔전가명(八田嘉明) 155
 패전사문위원회(敗戰查問委員會) 91
 片桐和三 579, 638
 平居熙迪 646
 平光金平 644
 平文忠男 601, 627
 平山榮彦 645
 平山清朝 646
 平沼 憲 583, 607, 646
 平沼昶鎬 595, 620
 평양 대성학우회(大成學友會) 687
 평양보호관찰소장 785, 787, 789, 791, 793, 794
 平井熙迪 563
 平川德一 647
 平澤永浩 646
 포로급여규칙초(抄) 384
 포로노무규칙 375
 포로노무허가원 377
 포로파견규칙 374, 378
 포즈머스 조약 106
 폭약제조단속규칙 708

표창장 445
 豊永保 602, 628
 豊川一清 604, 634
 피징용자표창규정(被徵用者表彰規程) 394, 409, 443
 필름검열규칙 707

【ㅎ】

하기와라 히코조(萩原彦三) 244, 247, 251, 252
 河東秀明 646
 하라쿠니 미치(原邦道) 244, 248, 251
 河本啓秀 645
 夏山正義 931
 하산정의(夏山正義) 931
 하시모토 케자부로(橋本圭三郎) 244
 하야미 히로시(速水滉) 244, 247
 하야시 시게조(林繁藏) 244, 248, 249
 河原田庚用 647
 賀田直治 579, 639
 하지모리 사다(土師盛貞) 244, 248, 251
 夏川正鳳 647
 하즈다(八田嘉明) 160
 하쿠손코(白村江) 937
 학도근로령(學徒勤勞令) 397, 399
 한구(漢口)합락 260, 891
 한국국민당 700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韓國對日戰線統一同盟)
 699, 700
 한규복(韓圭復) 161, 245, 247
 한동석(韓東錫, 朝川東錫) 135, 138
 한미전기회사 709
 한백하(韓百夏) 952
 한상룡(韓相龍) 146, 245, 248, 250
 한영교(韓瓔敎) 644
 한일합병 106, 111, 723

한족노동당 700
 한지의사(限地醫師) 729
 咸元泰夫 595, 620, 647
 함흥보호관찰소장 784, 786, 789, 791, 792, 794
 핫타 요시아키(八田嘉明) 244, 251, 272
 항공기제조사업법(航空機製造事業法) 267, 275
 항만운송업등통제령 282, 287
 항무의관(港務醫官) 728
 항무의관보 728
 해군무관복역령 521
 해군통제령 282
 해군특별지원병제 913
 해군협회 611
 해남도(海南島) 868
 해운통제령 287
 香山承洙 618, 646
 향천원(香川愿) 769, 770
 香村吉德 646
 헌병경찰제도 671
 혁명당 700
 현영섭(玄永燮) 118, 950
 현원징용(現員徵用) 392, 400, 405
 현인회(縣人會) 605
 현준호(玄俊鎬) 245, 248, 250, 770
 협화사업(協和事業) 702
 협화회(協和會) 360
 형사공소법 836
 형평사(衡平社) 688
 戶谷正路 642
 호국신사 49
 湖山祚鳳 587, 612, 647
 호즈미 신로쿠로(穗積真六郎) 244, 248, 249, 252
 홍양명(洪陽明) 984, 985, 987, 989, 991
 홍종인(洪鐘仁) 998
 鴻池養千 644

和氣孫吉 579, 639, 647
 和田始馥 646
 和泉巖 645
 확충대증미계획(擴充大増米計劃) 116
 丸山隆達 605, 636, 647
 활동사진영화단속규칙 707
 황국신민(皇國臣民) 60, 71, 114, 137, 142, 143,
 148, 165, 168, 169, 170, 171, 204, 205, 210, 253,
 471, 473, 491, 492, 704, 778, 779, 987
 황국의 도 144
 황군 148
 황도공영권 62
 황도국가관 67
 황도실천 131
 황도정신 50, 181, 774
 黃本雲天 647
 黃原觀河 590, 615, 646
 황조신(皇祖神) 69
 회사경리통제령 276, 282
 橫山幸生 639
 횡전오일(橫田伍一) 768
 후나다 카즈오(船田一雄) 245, 250
 後藤吾一 646
 후루카와 가네히데(古川兼秀) 458
 厚母繁一 648
 후생성(厚生省) 411
 후지모토 슈조(藤本修三) 246
 후지무라 슈헤이(藤村修平) 467
 후지와라 긴지로(藤原銀次郎) 245
 후쿠모토 카즈오(福本和夫) 763
 휴업부조료(休業扶助料) 409
 黒岩覺一 642
 흥사단 699
 흥업구락부(興業俱樂部) 687
 히라누마 기이치로(平沼驥日郎) 481
 히라야마(平山泰三) 506
 히라오 하치사부로(平尾釵三郎) 246
 히라후미 다다오(平文忠男) 998
 히로세 시로(廣瀬四郎) 999
 히로세 토요사쿠(廣瀬豊作) 248, 249, 252
 히로세 히사타다(廣瀬久忠) 246, 248, 280
 히로타(廣田運一) 999
 히로타 고키(廣田弘毅) 755, 757
 榊富太郎 554, 643